

국립국어원 2009-01-3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19-14

#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 ▣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김 순 자(제주대학교)
- ▣ 조사 지역: 제 주 도
- ▣ 조사 항목: 호 상 옷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정희

공동연구원: 김순자



##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개요 .....	3
1. 조사 개요 .....	3
1.1. 민족생활어의 개념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6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사항	
2. 조사 지침 .....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9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4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	16
1. 조사 계획 .....	16
2. 조사 보고 .....	17
2.1. 제보자_17	
2.1.1. 주 제보자	2.1.2. 보조 제보자
2.2. 조사 기간 및 방법, 장소_18	
2.3. 조사 내용_19	
2.4. 조사 결과물_19	

##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호상옷’-김경생의 말 .....	23
1. 출생과 가족관계 .....	23
2. 장례 절차 .....	24
3. 상복 .....	30
4. 호상옷(수의)과 부속물 .....	39
5. 속담과 금기어 .....	51
6. ‘호상옷’(수의) 부분 명칭 .....	53
7. 적이영 떡이영(적이랑 떡이랑) .....	64
8. 바느질 배우기 .....	74
9. 호상옷 짓기 .....	79
10. 호상옷 부분 명칭(2) .....	90
11. 바느질법과 도구 .....	125
제4장 조사된 어휘 .....	132
1. ‘호상옷’(수의) .....	132
2. ‘호상옷’ 종류 .....	132
2.1. 남자 옷_133	
2.1.1. 속중의	2.1.2. 점벙이(잠방이)
2.1.3. 중의	2.1.4. 바지
2.1.5. 다님(대님)	2.1.6. 행경(행전)
2.1.7. 적삼	2.1.8. 저구리
2.1.9. 창옷	2.1.10. 도복(도포)
2.2. 여자 옷_135	
2.2.1. 소중의(속곳)	2.2.2. 속적삼
2.2.3. 적삼	2.2.4. 속저고리
2.2.5. 저구리(저고리)	2.2.6. 것저고리(겉저고리)
2.2.7. 혼삼(한삼)	2.2.8. 단속곳
2.2.9. 치메(치마)	2.2.10. 속치메(속치마)
2.2.11. 것치메(겉치마)	2.2.12. 허리띠

2.2.13. 과도	2.2.14. 장옷	
2.3. 부속물_139		
2.3.1. 엄도	2.3.2. 검은호상	
2.3.3. 왓수	2.3.4. 지금	
2.3.5. 천금	2.3.6. 대림포	
2.3.7. 손수건	2.3.8. 주멩기	
2.3.9. 보선(버선)	2.3.10. 신발	
2.3.11. 베개	2.3.12. 설멩지(명주솜)	
2.3.13. 기타		
2.4. 부분 명칭_144		
2.4.1. 윗옷	2.4.2. 아래옷	
3. 재료 .....		151
3.1. 주재료_151		
3.1.1. 멩지(명주)	3.1.2. 검은멩지(검은명주)	
3.1.3. 노랑멩지(노랑명주)	3.1.4. 양단	
3.1.5. 베		
3.2. 부재료_152		
3.2.1. 백지(백지)	3.2.2. 오색실	
3.2.3. 창호지	3.2.4. 산디짚(밭벗집)	
4. 제작 도구 .....		153
4.1. 재단 도구_153		
4.1.1. 자	4.1.2. 꺾세(가위)	
4.2. 바느질 도구_153		
4.2.1. 바늘(바늘)	4.2.2. 싹(실)	
4.2.3. 골미(골무)		
4.3. 마무리 도구_154		
4.3.1. 다리웨(다리미)	4.3.2. 윤디(인두)	
4.3.3. 윤디판(인두판)	4.3.4. 화리(화로)	
5. 제작 과정에서 생산된 어휘 .....		155
5.1. 재단 과정 어휘_155		
5.1.1. 돌르다(마르다)	5.1.2. 기치다(자르다)	
5.2. 바느질법 관련 어휘_155		
5.2.1. 바늘질(바느질)	5.2.2. 손바늘질(손바느질)	
5.2.3. 뒷바늘질(뒷바느질)	5.2.4. 덩침(온박음질)	
5.2.5. 감치다	5.2.6. 박다	

- 5.2.7. 시끄�다(징그다)
- 5.2.8. 호다
- 5.2.9. 줍다(깍다)
- 5.2.10. 들다(달다)
- 5.2.11. 못다(맺다)
- 5.2.12. 동근술
- 5.2.13. 수눅 새기다
- 5.2.14. 주름줍다(주름잡다)
- 5.3. 마무리 과정 어휘\_158
  - 5.3.1. 다리다
- 5.4. 기타\_159
  - 5.4.1. 고비치다(곱치다)
  - 5.4.2. 꺼끄다(꺾다)
  - 5.4.3. 꺾다(꺨다)
  - 5.4.4. 끼우다
  - 5.4.5. 더끄다(뒸다)
  - 5.4.6. 무끄다(뭉다)
  - 5.4.7. 베우다(베게 하다)
  - 5.4.8. 부찌다(붙이다)
  - 5.4.9. 입지다
  - 5.4.10. 즐라메다(즐라매다)
  - 5.4.11. 동굴라지다
  - 5.4.12. 쫓불쫓불(쫓불쫓불)
  - 5.4.13. 메께(매듭)
- 6. 관련 어휘와 속담·금기어 ..... 161
  - 6.1. 관련 어휘\_161
    - 6.1.1. 염
    - 6.1.2. 초소렴(소렴)
    - 6.1.3. 대소렴(대렴)
    - 6.1.4. 베염날(뱀날)
    - 6.1.5. 본명일
    - 6.1.6. 좀날
    - 6.1.7. 쥐날
  - 6.2. 관련 속담·금기어\_163
    - 6.2.1. 호상웃 망인 죽은 후에는 슬지 아년다.
    - 6.2.2. 모시로 호상웃 행 입지민 자손들 머리 헤영해분다.
    - 6.2.3. 호상웃 좀 쓰으민 죽손에 고망난다고 안 입진다.
    - 6.2.4. 좀 친 옷 입으면 손지 대에 좀 친다.
    - 6.2.5. 호상웃 췡이 쓸아분 거 입으민 도둑질허는 자식 난다.
    - 6.2.6. 호상웃 만들 땀 뒷바농질 안 현다.
    - 6.2.7. 호상웃은 틀어 고치지 안 현다.
    - 6.2.8. 본명일광 좀날은 호상웃 안 만든다.
    - 6.2.9. 좀인 호상웃은 망인이 살아 있을 때 손다. 죽영 슬민 짐 췌다.
    - 6.2.10. 살앙 호사 혼 번 죽영 호사 혼 번

## 제 3부 연구 결과



참고문헌 .....	171
부    록 .....	173
찾아보기 .....	187



## 제 1 부

#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 제 1 장 연구개요

### 1. 조사 개요

#### 1.1. 민족생활어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민족생활어란 생활과 언어에 민족이란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민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선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실제 삶과 연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집단 혹은 민족의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가 형성·발전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사고 체계, 문화 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미 만들어진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한 민족이 살아 온 삶의 모습, 사고체계,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민족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활어의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의 재발견과 조사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 민족문화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문화도 포함된다.
-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한민족 구성원에 의하여 연구 변용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한민족이 우리 강역 안에서 이룩한 문화 외에도 외국으로 일시 진출하거나 항구적

으로 이주하여 이룩한 문화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선사시대의 생활양상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자연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에 의하여 이용되고 의미를 부여한 자취가 있을 때는 한국 민족문화로 다룬다.
- 현대 문화의 양상은 전통 문화와의 연관이 파악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국 민족문화이다.
- 민족문화는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아홉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앞으로 수행할 이 사업의 조사 대상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Sapir Whorf 가설,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에 보면 언어구조나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많은 언어 형식을 창조한다. 사용자가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눈, 얼음, 바람을 아주 세분된, 수십 개의 말로 표현한다. 필리핀 민도르의 하우누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500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한다. 실제 공인된 공식 도감의 분류보다 400여 종이 더 많다.

어떤 언어 사용자의 죽음은 그가 가진 독특한 생활어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 전통에서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강신표, 인제대).

이러한 관점은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누구를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이 관점을 토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란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란 바로 그러한 한국 민족문화 모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어휘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 민족 내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생활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음운

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 의미, 용례, 담화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합당한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어휘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언어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기존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관념의 형성,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새말이나 기존 의미의 변화, 문화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휘이므로 어휘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어의 음성, 어휘, 의미, 용례, 담론,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민족생활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와 한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유지, 발전 되어온 국어의 어휘, 의미, 용례, 소통양식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정리, 보관,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한다.

한 민족의 삶 속에 내재한 생생한 생활어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올바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소멸·쇠퇴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창출됨에 따라 국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전통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민족생활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용례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탈근대 혹은 지식·정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민족생활어의 조사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고령자일 경우가 많다. 민족생활어 조사의 긴급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를 살면서 일상의 온갖 생활어를 생생히 사용해 왔던 고령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생활어를 긴급하게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참으로 귀중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노년세대들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그들의 자존감도 회복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어도 조사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당대의 고령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생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한국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1.3.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의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 1.3.1. 조사의 의의

- 행위자(제보자) 관점에서 이해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 조사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의식적 행위와 실제적 행위 모두 포착하고 규명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탐색조사(Pilot Study)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참여관찰, 인터뷰,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담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고, 이것은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조사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과 융통성이다.

####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사례가 지닌 역사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적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



사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례가 지닌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2. 조사 지침

조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의생활·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토속어(입말 구술 자료)를 채록하기 위한 기층생활어 조사와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업관련어 조사로 나뉜다.

- 기층생활어 조사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 채록
- 직업관련어 조사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과 연관된 생활환경, 제례의식, 민간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 채록<sup>1)</sup>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층생활어 조사는 앞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표준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어휘와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그 외 기존의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층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 항목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격화된 조사방식으로 생활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질문지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방법론을 활용하며, 구술체 자료(입말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수집한다. 아래와 같은 분야의 어휘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질문 조사방식으로 조사·수집 정리한다.  
 가) 입말 구술 자료 : 일생의례, 생업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세시풍속, 민속놀이, 질병과 민간요법, 특수 직업 어휘농업, 어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  
 나) 어휘 자료 : 민족 고유 전통문화 어휘, 직업어 자료

## 2.1. 현장 조사 지침

###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토속생활어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같은 대상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만약 조사된 어휘가 전형적인 특징(의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어휘 항목으로 선정하고, 음운론적 변종들은 어휘 항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의 용례는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명칭은 질문지의 그림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영하여 제출한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들은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어휘는 인간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를 찾아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조사 분야 중에서 지리적 변종이 예상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 선정
- 지리적 변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지역 선정

###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물에 관한 생활어를 잘 아는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체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어 조사는 조사 대상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을 따르되, 조사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한다.
- 직업 관련 제보자의 경우 조사 대상 직업을 10년 이상 지속한,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관록 있는 제보자를 선정한다. 단 조상 때부터 동일 직업을 가지고 이어온 제보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주변에 동일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어 구별을 위해 또 다른 제보자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ㅡ]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혜성 → 혜성
- ⑨ 단모음 ‘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키’이면 ‘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기’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기’이면 ‘기’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시’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랍 → 사랍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준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듬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 2.3. 올림말 선정 지침

###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와 'ㄱ'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써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ㅕ>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혜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ㅏ’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밭), 뽕다(뽕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ㅓ’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ㅏ’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벙이다(배우다)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ㅕ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씨(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ㄹ. ㄱ>기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피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ㄴ. ㄴ>네 : 괴기>계기, 괴비>계비(식물), 외우다>에우다, 피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ㄷ>기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둑>귓둑,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ㅅ. ㅅ>시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껌>피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ㄱ. ㅂ>기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첩(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ㄱ>ㅂ : 주직>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ㅂ. ㄱ>ㅎ : 아곱>아흡, 뚝>뚛, 숙->슉-(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⑰ ‘-’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양기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⑲ ‘ㄴ’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플~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물개~모래, 생강~새

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1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퐁(병풍), 팜나(밤낮), 폴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2 어간말 자음 ‘ㄷ, ㅌ,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꼳(꽃), 윗(웃), 빗(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3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꺾다(건다), 짚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2.4. 뜻풀이 지침

###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등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종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 1. 조사 계획

2009년 민족생활어 제주지역 조사 주제는 ‘호상옷’이다. ‘호상옷’은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 즉 수의를 말한다. ‘호상옷’은 ‘호상’, ‘저승옷’이라고도 부른다. ‘호상옷’은 보통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잘 간수했다가 죽어서 저승 갈 때도 입었다고 한다. ‘호상옷’을 새로 지을 때는 ‘삼베’나 ‘명주’로 지었다. 환갑 때 자식들이 마련해 주거나 본인이 마련해 두기도 한다. 요즘은 물색 호상 대신 흰 명주로 곱게 ‘호상옷’을 지었다가 죽어서 갈 때 입고 간다. 색깔 있는 옷은 이묘할 때 시신의 뼈에 물이 들어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요즘은 흰 명주 옷을 선호한다고 한다.

‘호상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과 버선이나 신발 등 부속물 등으로 이루어진다. 성별에 따라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장옷을 입는 대신 남자는 창옷에 도포를 입는 것 등 몇 가지 옷을 제외하고는 ‘호상옷’에 들어가는 물품은 거의 같다. 시신을 싸는 ‘대림포’를 비롯해 속옷, 바지, 저고리와 바지(또는 치마), 지금, 천금, ‘주맹기’, ‘검은호상’, ‘엄도’, 신발 등 시신을 관(棺) 안에 넣을 때 함께 넣는 부속물까지 호상의 수는 30가지 가까이 된다.

‘좀 친 옷 입으면 손자 대에 좀 친다.’(좀이 쓴 옷 입으면 손자 대에 좀 쓴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제주에서는 ‘호상옷’ 준비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미리 준비했던 ‘호상옷’에 좀이 쓴 흔적만 발견해도 그 옷을 버리고 새로 옷을 지어서 입혔을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 풍습이 많이 바뀌어 ‘호상옷’ 또한 간소화하는 추세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장례와 관련한 모든 일을 집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호상옷’ 관련 일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만들기 때문에 ‘호상옷’과 관련한 어휘와 문화 등도 특수한 어휘가 되어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번 민족어생활 조사는 제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호상옷’과 관련한 어휘들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상옷’은 종류와 부분 명칭, 부속물, 관련 속담과 금기어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제주시 무형문화유산 제3호 ‘수익와 부속품 제작 기능인’ 김경생에게 ‘호상옷’은 물론 제주의 장례 풍습 등과 관련한 구술 자료도 확보할 계획이다.

## 2. 조사 보고

‘호상옷’ 조사는 모두 6일 동안 5명의 제보자에게 이루어졌다.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와 의귀리, 신흥2리에서 4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호상옷’의 종류와 부문 명칭 등을 조사하였다. 또 7월 10·11·20일, 11월 5일 4차례에 걸쳐 제주시 이도1동에서 ‘수의와 부속품 제작 기능인’ 김경생을 대상으로 ‘호상옷’과 관련한 장례 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남원읍 의귀리 제보자 오양수는 결혼 때 입고 왔다는 장옷을 꺼내 보여주어 촬영할 수 있었으며, 김경생의 조사에서는 ‘호상옷’과 부속물 일체, 바느질 도구 등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모든 조사는 구술 채록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술 자료에서 관련 어휘를 추출하여 어휘 파일을 정리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한 어휘에 대한 분석 자료와 구술 생애 자료, 엑셀로 정리된 어휘 파일로 이루어졌다. 올림말과 용례, 생애 구술 자료 표기는 제주 현지의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에 수록된, 제주방언연구회 제정, ‘제주어 표기법’(1991)을 따랐다. 엑셀 어휘 파일은 ‘아래아’와 ‘쌍아래아’ 표기가 어려워, ‘오/, 요/’처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오/’는 아래아(으)를 나타내고, ‘요/’는 쌍아래아(으)를 표기한 것이다. 구술 자료에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표시를 해두었다.

### 2.1. 제보자

#### 2.1.1. 주 제보자

##### 1) 김경생



[사진 1] 수의와 부속품 제작 기능인 김경생

주 제보자 김경생은 1920년(주민등록상 1922년생) 서귀포시 성산면 고성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향교 훈장을 하는 할아버지를 따라 표선면 성읍리로 이사를 가서 할아버지와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다. 할아버지의 반대로 성읍심상소학교 4년을 졸업하고 학교를 그만 두고 가사를 도왔다. 열여섯 살에 같은 마을 출신 부영봉에게 시집가서 사삼사건이 나는 해에 남편의 직장이 있는 제주시로 이사 와서 여태까지 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 심부름을 하면서 바느질하는 법을 익혔다. 혼인해서는 시아버지 옷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이웃에 혼례가 있을 때 초청 받아 바느질을 도왔다고 한다. 한복을 지을 수 있는 집에서는 재단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집은

직접 한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대가를 받고 일해 본 적은 없다고 한다. 시아버지 ‘호상옷’ 만드는 것이 계기가 되어 부모 ‘호상’도 직접 만들며 ‘호상옷’과 부속물 일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2002년 1월 4일 제주시 무형문화유산 제3호 ‘수의와 부속품 제작’ 기능인으로 지정된 김경생은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수의공동작업실을 열어 전통 방식으로 상복과 ‘호상옷’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불우이웃에게 무료로 ‘호상옷’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또 전국주부교실과 한국부인회 등 단체 활동도 활발히 하는 등 평생을 봉사활동으로 보냈다. 만덕봉사상, 국민포장 등이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해준다.

김경생은 노령의 나이에 또 지금도 ‘호상옷’과 상복을 제작하고 있어 ‘호상옷’과 관련한 어휘를 풍부하게 알고 있었다. 기억력이 뛰어나 바느질법과 부분 명칭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 ‘호상옷’ 조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호상옷’ 외에도 상복, 장례 풍습 등과 관련한 김경생의 구술 자료는 제주의 기층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 제작한 ‘호상옷’과 부속물, 바느질 도구 등도 촬영할 수 있었는데, 김경생이 재단할 때 쓰는 자는 70년이 넘는 것이다.

### 2.1.2. 보조 제보자

- 1) 현군식(여, 83,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 2) 정공희(여, 78,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 3) 현재숙(남, 90,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 4) 오양수(여, 72,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 2.2. 조사 기간 및 방법, 장소

일정	조사 내용	장소	도구
6·7월	문헌 조사		
6. 22.	호상옷 종류와 명칭 부분명칭 등	남원읍 남원2리 노인복지회관	녹음기
6. 23.	호상옷 종류와 명칭	신흥2리, 의귀리 제보자의 집	녹음기 카메라
7. 10.	생애 구술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2층 수의공동작업실	녹음기 캠코더
7. 11.	호상옷·부속물·부분명칭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2층 수의공동작업실	
7. 20.	생애 구술 호상옷 종류 쓰임새	이도1동 주민자치센터 2층 수의공동작업실	녹음기 캠코더
11. 5.	호상옷 부분 명칭 사진 촬영	제보자 김경생의 집	녹음기 카메라

### 2.3. 조사 내용

조사 내용	세부 항목 조사
호상옷?	호상옷 정의, 특징
호상옷 종류	남자 옷(정병이, 중의, 적삼, 저고리, 바지, 창옷, 도복 등), 여자 옷(소중의, 적삼, 속저고리, 저고리, 속치마, 치마, 장옷 등)
호상 부속물과 기타 명칭	검은호상, 엄도, 주맹기, 지금, 천금, 베개, 신, 대림포, 관포, 멩전 등
호상옷 재료	멩지, 검은멩지, 노랑멩지, 설멩지, 삼베, 산티짚, 오색실
제작 도구	바늘, 실, 골미, 자, 7세, 윤디, 윤디판, 다리웨
부분 명칭	잇몸, 질소미, 깃동, 상복, 큰셋복, 죽은셋복, 허리, 단, 고름, 어불복 등
관련 어휘, 속담·금기어	초소렴, 대소렴, 상물, 좀 친 옷 입으면 손지 대에 좀 친다 등
바느질법과 관련 어휘	몰다, 박다, 감치다, 호다, 시끄다, 뒷바농질, 동근술, 멩침 등
구술 채록	김경생의 생애, 호상옷, 제작도구와 만드는 법, 부분 명칭, 상복, 장례 풍습 등

### 2.4. 조사 결과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영상 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호상옷	159	111	5/2	140	40	3

※ 미등재 어휘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를 말함.



## 제 2 부

---

## 연 구 내 용

제 3 장 ‘호상옷’ - 김경생의 말

제 4 장 조사된 어휘





## 제 3 장 ‘호상옷’-김경생의 말

### 1. 출생과 가족관계

@ 선생님, 저기 태어나신 디가 어디우팍?

# 태어난 디는 성산면 고성.

@ 성산면 고성예. 몇 년도에 태어나셨마씨?

# 음. 내가 이제 이십년생이니까 아마 천구백이십년 뉘겅지.

@ 예. 천구백이십년생. 우리 나이로는 몇 살이우광?

# 지금 주민등록에는 이십이년으로 뉘고 나는 구십인데. 주민등록에는 옛날 죽어부는 그 일이 많으니까 이제 죽지나 아녀카해서 이년 후에 놓으니까 주민등록에는 이십이년 생으로 뉘곡.

@ 그 우리 헤치로는 무슨 헤치마썸?

# 저 원승이띠.

@ 아, 원승이띠. 납헤치?

# 납헤치니까 지금 구십이니까 이십년생이지.

@ 예. 그 성산 고성에서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 그 생활해난 거?

# 어린 때 갓지. 아주 어린 때. 표선면 성읍리허고 대정고을 허고 제주도에 행교가 두 군데 뿐이니까. 하르버지가 그디 행교에 훈장으로 계시니까 이제 하도 그 성읍리 이구에 농촌 허는 디가 좋다고 해서 이제 그 하르버지가 글로 간에 어쩔 수 엇이. 가족덜 이 하르버지 말이렌 허민 안 따라갈 수 엇이 다 가기가 싫엇지만 다 따라 간 거예요. 성읍리 이구에서 살았거든.

@ 아, 그러면 태어나기는 고성에서 태어났는데.

# 예, 예.

@ 예. 그러면 그 가족 관계는 어떻 뭐난마씸?

# 가족이 전부 그때 아버지는 그 하르버지가 그 성읍리를 갈라고 허니까, 우리 아버지네 형젠디 형제가 다 반달 헛어. 다 안 가겏다고. 고성서 그 웃드르라고 옛날은 해서 그런 그 노동도 잘 못헛곡 이제 축산도 잘 못헛곡 허니까 안 가겏다고 해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이제 안 가니까 하르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성읍리 공문동산에서 멍석뭉이를 헛어. 아덜덜을 막 때려부러어. 그러니까 화가 나난 작은아버진 일본으로 도망가고, 우리 아버지는 청진으로 해서 이때는, 그때는 여기 붉고 거기 어둡고 바빠진다는 게 지금은 노국 ㄱ튼 디라. 청진으로 해서 거길 가부러어. 아 그레 가부니까 하르버지 할머니 큰하르버지 큰할머니 대소변만 아버지 들곡, 우리 어머니만 큰메 누리니까 우리 아이덜, 우리가 체얌은 오 남매라났는디 그때가 오 남매지. 오 남매 데리고 거기 하르버질 따라 갔주. 어쩔 수 엇이.

## 2. 장례 절차

@ 오늘은 그 장례, 옛날 장례 많이 치렀잖아예. 해서 장례에 대헛 여쭙크라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때부터 가서 문영 오고 집에 올 때까지 그 과정예. 한 번 쪽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십서?

# 이거 녹음에 들어갈 게라?

@ 예.

# 그 사람이 일단 아프면, 그 막 지금은 모든 게 병원에서 절차를 허지만은 옛날은 가정에서 돌아가거든. 돌아갈 때는 그 춤 한의원, 옛날은 전부가 의사가 드물고 한의원이 와서 손, 이런 맥을 딱 지프민 그 맥이 어느 정도민 돌아가실 걸 알아. 그 시간에 돌아갈 걸 알민, 그 시간을 의원이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해서 진단을 해뵈 나가민 애기들이 다 대기를 해어. 애기들이 잇는 사람 허곡, 없는 사람은 친족 대리라도 다 그 임종허는 걸, 임종이라고 허거든. 돌아가는 걸, 임종허는 걸. 대기해서 물도 떠 놓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숨이 끊어지거든. 끊어정 돌아가면, 우선 돌아가면 그 사람이 돌아가면 뼈가 다 굳어불민 관에 놓을라면 관에 맞질 않거든.

@ 예.

# 그러든 사람을 쪽쪽 폐와서 폴도 끈끈 꿰고 머리도 쫘, 사람이 돌아가민 눈을 떠. 게민 손으로 머리를 쓱허게, 머리를 손으로 눈 데레 쓱 더프민 눈이 꼭 감기거든. 그러면 폴도 끈끈 꿰곡 다리도 곤작 폐와서 천으로 서너 밧디 영 즐라메여. 형식적으로 그 오그라지지 안 허게.

@ 예예.

# 그 폴로부터 영 준등이에 팔목까지 툅허게 무껴서 깨끗한 천 포재기나 툅 더경 놔 두거든. 입관허기 전이. 그렇게 해서 밧다가 이젠 택일을 보거든. 애기들도 걸리지 안 허곡 날짜도 좋은 날을 해서 택일도 보고, 묘지도 미룻 정허지 않은 사람은 묘지도 보 곡. 이제는 가족묘지가 다 정헛지만 옛날은 가족묘지가 없이 산터를 다 정시가 봐야 묻게 뉘서.

@ 예.

# 경 허민 이젠 그 정시를 좇아가지고 일단 택일을 보면 장스 택일을 보고 애기들에 맞춰서 그 제 지나는 택일을 택일 보는 데서 받아요. 그러든 성복제가 있고, 또 일포제가 있고, 또 그 장지 나가는 거 출고. 다 그 택일에 나오거든. 어느 날 어느 시에는 성복을 허고, 입관을 허고, 모욕을 시기고. 그 일정이 쪽 써가지고 이제 나오면. 이젠 그 성복 택일이라는 초택일이거든. 처음 이제 그 성복제 지내고 입관 허는 거. 그래서 그 관에 담는 날이거든. 성복이라는 거는. 겨믄 이제 그 입관 택일해서 성복날을 딱 받으면 성복은 허기 전이 성복은 제 지나는 거곡. 성복날 성복 시간 전이, 성복날은 흐루에 받고. 시간 전이 우선 상제 옷도 준비를 다 허고 재물도 다 준비허고. 성복에 올리지 않은 재물은 삼년에 못 쓰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그 성복에는 재물을 귀긱착서 만들거든. 하나 족으나 이제 만들곡, 상복 다 허고 이제는 출려서 준비해놔뉘. 그 준비는 다 해서. 이젠 호상을 준비해 뉘거든. 미룻.

@ 예.

# 호상은 다 그렇게 살지 못헛 줄 알면 호상을 다 만들어 놓으면, 호상이 없는 사람 이면 입은 옷이라도 깨끗허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젠, 그 쫘끔 덜 곱앗저. 목숨 돌아가기 전이 의원이 이 분이 돌아가간다 허면 우선 상물로 모욕을 시겨서 깨끗헌 옷으로 곱아 입혀서. 곱아 입혀. 곱아 입혀 그 분이 돌아가시믄 그걸 초소럼에 입는 옷이라거든. 그 옷 갈아입혀서 그 분이 돌아가거든. 돌아가민 그대로 곱게 무껴가지고 포재기

더뻛다가 이젠 대소렴이라고 해. 건 초소렴이렌 허곡. 대소렴. 대소렴은 관에 놓을 때 허는 거라. 대소렴을 허게 되면 이젠 그 입젓던 옷을 다 다 벗겨가지고 깨끗이 이젠 몸을 또 애기들이 상물 솟아가지고 다까요. 그 멍인 그 돌아가신 어른 몸을 다까서 호 상옷을 입저. 저승 가는 옷을. 지금 우리 수의. 그 몸을 깨끗이 상물로 닦은 다음에 입 허가지고 전부 스물여섯 가지를 헤서 무꺼가지고 대립포로. 입관을. 열두 무꺼를 다 무 끄거든.

@ 열 두?

# 열두 무꺼. 열두 무꺼엔 헌 것은 베를 여섯 개 놔서 베를 요렇게 찌지민 열두 번을 졸라메여. 헌 번에. 하나에 열두 개를 졸라메는 게 아니고 열두 무꺼를 묶어. 헌 사름 기장 하나에 열두 번. 열두 무꺼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무끄는 거야. 무끄면 이젠 관을 갖다가. 관은 전부 짜서. 기장에 맞춰서 관을 짜서, 관에다가 그 물을 맥여서. 완전하게 지금은, 그 뺨기를 맥이는 게 아니고 먹물이나 아주 깨끗헌 물로, 신체에 좋은 걸로. 이젠 그냥 무신 요새 뺨기허듯이 그런 게 아니고 관에 청묵이나 곱아가지고 전부 관에 붙여서 관 옆에다가 스체를 톡허게 들여놓거든. 들여놓으면 그 옆이 공갈공갈 허지 안 해여. 그러면 산디찍을 헌 줍씩 깨끗허게 다듬아서 그 놈을 헌 줍씩 무꺼가지고 생으로 놓는 게 아니고 옛날은 덩드렁이라고 돌을 막 두드리는 게 잇어. 그 놈에 톡톡 덩채길 두드리민 그 놈이 복삭복삭해여. 그 놈을 백지에나 창옷지에나 뱅뱅 싸가지고 관 양 옆을 톡톡 흔들리지 아녀게. 몸을 흔들거리지 아녀게 그 놈을 채와요. 채왕.

@ 그러면 그 채우는 거를 뭐렌 험니까?

# 보공.

@ 그 보공을 산디찍으로 허는 거라예?

# 응. 보공. 보공. 옆에 놓는 거를 보공이라고. 그렇게 보공을 담아서 이젠, 그 전부 이젠 보공을 담앗는다. 이제 그 웨냐 허민 그 우에다가 이제 또 골르민, 뜯 거 옷이라도 보공을 짝 담양 관 덮어가지고. 이제 그 관을 더프기 전이 또 이제는 애기털이 무신 이제는 다라니도 나고 뭐 천도 농곡 허는다. 옛날은 천도 어렵고 다라니도 어렵곡 허 거든. 그러민 그냥 무신 손수건 새끼라도 쪼끔씩해서 “이거 아정 갑센.” 부모 마지막 가는 질이렌 다 출려놓민 애기들이 보아서 관을 딱 더퍼. 더평 이제는 관을 무끄거든.

@ 그러면 그 손수건 놓는 것도 보공이우과?

# 선물이지. 가당 눈물 다끔센 허는 선물.

@ 건 선물예?

# 선물이고. 그때는 지전이라도. 지금은 다라니가 있는데 다라니가 없거든. 지전 백지 허영 지전ㄱ치 물랑으네 이제 그 소꿉에도 농곡 영 관 뒤에 영 돌아근에 관 뒤에 가명 출출 흘치기도 허곡. 노жат돈으로.

@ 관 그.

# 노жат돈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관 뒤에 돌아가지고. 관 네 귀에 그 놈을 돌아. 가민 툇툇 털어지민 노жат돈으로. 그 지전 몰라서. 지금은 다라닌디. 그렇게 해서 아주 옛날식이주. 그 영 해서 관을 다 무껴서 이제 장스 택일이 돌아와. 내일은 장스거든. 그러면 오늘은 일포라. 일포민, 그 일포 전이는 영가가 산 영가ㄱ치 밥도 떠 놓고 담베도 부껴 놓고 영가 앞이 다 헤 놓거든. 아척즈낙이 곡소리 허고 절 허고 애기덜이. 그렇게 해서 내일은 딱 장지에 나갈 거다 허민 오늘 저녁은 일포제라고 있어. 그러면 그 전이 재물허고 다 챙겨가지고 크게 쥘 지내거든. 헤지기 전이. 딱 다섯 시엔 허민,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사이에 지나면. 이제 뒷날 아척은, 동관이라 현 건 관을 들러놓는 게 어디레 들러놓는 거. 계민 그 옛날엔 지금은 장지에서 현디 가정에서 돌아가믄 바른 문으로 나가지 안 해여. 바르는. 이렇게 현관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중간으로, 중간으로.

@ 그건 무산고예?

# 바르는 영가가 못 나간다고 해서. 좋지 않다고 해서. 만일 이게 현관문이민 이런 ㄱ룻문으로 이렇게 나가거든. 나가서 이제 그 춤 옛날은 그 상여. 나무 두 개 놔가지고 그것에 상여 씌우고 이제 헤민 훌륭한 양반의 집은 만스라고 있어. 만스라고.

@ 만서예.

# 만스 축 써가지고 장지에 나갈 땐, 이건 잘 사는 사름이다 못 사는 사름이다, 이건 양반이다 쌍놈이다 현 걸 알거든.

@ 만서만 뺑예?

# 만서를 쭉, 잘사는 사름은 양 옆으로 만서가 현 설남은 장 막 흘리고, 멩전은 앞에 허고. 또 못 사는 사름은 서너 개도 있고, 댓 개도 잇곡. 쌍놈은 없어. 만서가. 그래서 이제는 그 만서가 짝 흘려가지고 허민 앞이 그 모세기머리라고 해서 앞이 메는 사름은 메여가지고 요령 흥글멍 노래도 부르곡 다 그렇게 해서 장지에를 가거든.

@ 맨 앞에 선 사름을 뭐렌 곶아마씨?

# 아이고, 또 잊어부렸저. 옛날도 모세기머리.

@ 모세기머리엔 헤마씨.

# 응. 앞이 잡은 사름을. 앞머리 잡은 사름을.

@ 모세기머리엔 헤 마심?

# 응.

@ 그거 무슨 뜻이우광?

# 그 쥬 앞이 앞머릴 잡은 사름이라고.

@ 그 요령 흔드는 사람이 모세기머리라예?

# 응. 그 아니. 앞을 영 둘러 멘 사름을. 우의 판 우의 사가지고 또 그 요령 흔드는 사름이 또 있어.

@ 아, 모세기머리는 관 앞이 서는 사람마씨?

# 응. 예. 그래서 이젠 요령 흔들멍 가서 장지를 가민 놓앙. 또 이젠 장지에서 팽풍 치곡 제 지나. 그디 강 모성 올렸젠. 제 지낭 이젠 광중을 다 달루거든. 게민 또 광중에 들어가젠 허민 또 쥬, 그레 무신 술이나 혼 잔 올령 들어감수텐. 들어감수텐 올리민 이제 광중에 들어갈 때, 관에 들여놓거든. 들여놓민 그 관을 떼여. 관을 떼민 다 열두 무겔 풀어. 애기덜이. 열두 무겔 다 풀거든. 이제 다 열두 무겔 풀영. 즐라멘 거. 게민 영가가 다 풀어지거든. 썩 풀어정, 풀민 그레 관 더깁. 이젠 그레 멩전 더핑, 멩전은 들령 간 거니까 더핑 이제 그 애기덜이 그디 또 샅이라고 있어.

@ 샅예.

# 샅. 관 우의 더프는 샅. 막 마지막 놀 때 샅 놓고 멩전 더프곡 해서 애기덜이, 상제들이 쥬 큰상제로부터 샅으로 흑을 세 번씩 갖당 넣어. 세 번씩을. 관 우의 세 번씩을 상제덜이 놓은 다음은 일꾼이 그레 다 봉분을 쌓거든. 어느 정도 봉분을 쌓면 동네사름덜이 달구를 지어. 이렇게 몽뎡이 짚어가지고 '어어 달구 헤그네'. 혼 사름이 선소리를 이제 달굴허민 그 많은 사름이 모여져가지고 막 그 달구지면서 발로 뽀아. 그 봉분

을 데깁니다. 그래서 달걀대로 누르뜨고 발로 뽀뽀하면 봉분이 팽팽 열리거든. 그민 그 다음은 그디 흙을 딱 깔고 때 허곡 다 이제 봉분을 해서 쌓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초제라고 해서 전부 아전간 제물 다 올리고 상제들이 이제 절 허곡. 이제는 절 간에도 가곡 뒤희주만 옛날은 이제 그 조상들 모신 그런 디 다 아저강 모시곡. 이제 그런 디가 어신 집인 그냥 집이 모성. 이제 그 옛날 그 성묘허던 것까지 모르지. 그러는디 집이 모시민. 옛날 우리집이, 우리집 아방이 돌아가실 때 삼년 상식을 했어. 이레 방 하나 딱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큰상 병풍치고 놓아. 그러면 아침저녁을 거려놔. 아침저녁을. 조반도 헤어 강. 또 상제덜은 초허루날허고 보름날 색일덜, 애기덜이 전부 모영 출령 허곡. 집에서는,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가 허곡. 마누라가 못허민 큰아덜이 허거든. 큰아덜이. 재산도 큰아덜에 상속을 많이 헤 주고 제스 멩질도 다 큰아덜이 헤 여.

@ 그게 아까 올리는 게 상식이우과?

# 상식. 때, 때 올리는 게. 돌아가시면 상식. 그래서 담배 부져 놓고, 신발 툇 접혀 놓곡. 이제 그래서 상식을 허곡. 어디서 뭇 무신 굴룬 음식이 들어오면 우선 상에 앓다가 올려두곡 남으민 식구가 먹곡.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상 지나고 삼년 해서 또 대상 지나고, 또 경 허민 또 그디, 아이고 것도 잊어부러져. 뭇가 또 제가 있어. 석 들 열흘 백일 뒤희민.

@ 담제 이런 거?

# 응, 담제. 담제. 석 들 열흘 백일 뒤희민 담제 지낭, 담제 지나민 그걸로 꺾어야. 지금은 절간에도 가곡 무시 거 허는디. 경 허민 옛날은 그 무당헤여서 그 칠치는 거.

@ 예예.

# 칠 다끄는 거. 우선 오면 집에, 이제 그 무당을 빌어가지고 이제 그 큰질을 쳐. 막 벅기서 질청 큰 전 깔고 이런 디 문 대허영 폼양은에 다 글로, 다 헤영 질청 다 무치는디 무당들이 다 곳인 염불 헤가지고, 질치고 \*\*거리고 해서 이젠 막 큰제를 지나요. 그래서 질치고 제를 다 지나고 하면 이제는 제스만 지내는 거라. 지금은, 그르후제는 절간 믿는 사름은 절간으로 가지. 성당 믿는 사름은 성당으로 가지. 예배 믿는 사름은 예배식으로 허는디 그 옛날은 그제 엇엇거든.

@ 전통식으로.

# 예. 전통식으로. 그래서 그자 무당 빌영 질치고 그렇게 집에서 상식 놓고.

@ 그러면 그 무당 빌영 칠치는 것은 삼년상 끝난 다음 허는 겁니까?

# 아니. 삼년상 끝났. 옛인 사름은 삼년 끝났 허기도 허곡. 잇는 사름은 돌아가실 때 오랑 질을 쳐. 그냥 돌아가실 때 이디 상, 질치명 상 모셔가명 질쳐. 그 날 처낙.

@ 문영 왕은에?

# 문영 왕예. 문영 왕 질을 치는 거. 경 허곡 그 후젠 이제 또 오민 간단허게만 질을 치는디 그때는 크게 쳐주. 어디 모셔갈 디가 없으니까. 부жат침은 크게 상제들이영 다 모여서 그 산에 강 오랑. 밤에 상 낳으네 모성, 모셔가명 질을 쳐.

@ 바로예?

# 우리 생전에, 그 이상은 몰라.

@ 경 행 예전에 시아버지 상도 직접 다 헛지 않습니까?

# 예, 예.

@ 어머니, 친정 어머니 다 헛는데.

# 예.

### 3. 상복

@ 그때는 어떤 식으로 헨. 상복을 만들잖아예. 상복은 언제 만들아마쌌?

# 상복도 그땐 지금은 상복을 미룻 행 놔두지 않아요.

@ 예예.

# 그러면 그때는 장사가 딱 나거든. 나쁜 미룻 베 ㄱ튼 거나 뭐는 질쌌을 허니까 집에서. 질쌌허곡. 결혼할 때는 지금은 처가침이서 아덜옷을 해주볼민 옷을 못헤여. 질쌌할 때는 그 부모가 장계갈 때는 전부 옷을 다 챙겨주거든.

@ 아덜 옷도 예?

# 도폭이나 아덜옷이나 메느리 옷이나 챙기거든. 부모가. 이제는 처가침이서 헤 주는



다. 질쌘히고 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돌아가시민 아까 뵈이렌 글안?

@ 상복.

# 상복?

@ 예.

# 상복, 상복 ㄹ튼 건 집에 베ㄹ튼 건 잇거든. 딱 돌아가신 후에. 동네사름덜이 어느 집에 장스 낫저 허민 우선 대접이 뭐냐 허민 바놓히고 실허곡 가워. 걸 가지고 가서 옷을 만들어야 돼거든.

@ 개민 동네 사름덜이?

# 동네 사름덜이 오꼴 어느 집의 장사가 낫저 허민 다른 거를 하나토 생각 안 허곡 바놓, 실 췌겨 가는 거라. 바놓질 할라고. 지금은 다 이렇게 해놓지만은 옛날은 동네 사름덜이 모여정 허거든. 지금은 동네사름 두건 하나 안 줘야. 다 동네사름덜이 누게 죽엇저허민 바놓히고 실허곡 이젠 행 가지. 또 남즈덜은 남즈패로 전부 이제 그디, 준비. 다른 거 준비. 장사난 거 준비. 여즈덜은 상복 준비를 허여. 경 허민 이제 상복도 입고 두건도 갖췌거든. 허민 이제는 그 대가는 돈으로 허거든. 그땐 그게 아니엇어. 이제 도야지 잡양 장사허곡 제물허곡 다 허민 그걸 공정이렌 허여.

@ 공정?

# 공정. 공정이렌 허민 정시 나세는 큰 체룽 네귀반듯한 체룽. 아마 지러기는 자 가옷 너비는, 여덜 치 췌은 웰 거라. 그런 체룽에다가 돛다리 하나 놓고, 술 혼 뉘 놓고 이제 떡을 다 멘들야. 옛날은 떡이, 설귀떡, 절벤, 솔벤, 중궤, 약궤, 우지시 이렇게 만들거든. 경 허민 그 떡을 궤우는 게 어떻게 궤우냐 허면은 알로 췌, 설귀떡 놓고, 중궤, 약궤, 절벤, 솔벤, 우지시를 지름떡이거든. 그 놈을 췌 나라비로 궤서 딱 두께 더꺼가지고, 돛다리 하나 놓고 술 혼 뉘 놓고 해서 정시신디 아저가는 거라. 다른 건 없어. 개민 또 점심 마랑 또 그디 수고헌 분들이 잇거든. 전부 알로 췌르르허게 췌끔씩이라도 고기 혼 다리민, 혼 다리로 너멧 개 허민 꿏어가면서 술도 죽은 사이다병으로 하나씩 허곡. 또 췌 그 공정을 허는 거라. 또 여즈도 동네에 멧 사름이 오라가지고 그 옷을 헤가지고. 그 두건 하나 줘는 사름도 공정을 헤여. 수고 하영 헌 사름은 한 대로, 죽게 헌 사름은 죽게 헌 대로. 반에 반이라도 허영. 접시 하나에 떡 하나라도 돌리거든. 그래서 옛날은 그 공정으로 다 인정을 가궤어.

@ 공정으로예?

# 공정으로. 계민 그때만 허는 게 아니고 삼년을 다 헤여. 장스 때에 공정하고, 소상에 허고, 대상에 허고 그랬지요. 옛날에는 돈이라는 게 일절 없었지요.

@ 삼년 할 때마다 크게 허면 집안이 휘청휘청거리는 거는?

# 아니, 아니. 그렇게 크게 허는 게 아니고. 애기덜이 다섯이 웬다고 하면 예를 들영 큰아덜은 어느 걸 출리고, 셋아덜은 어느 것 출리고, 죽은아덜은 어느 거 주민 다 각자로 출령 가져오거든. 가져오민 우선 공정을 먼저 설러부러야 남은 걸 일반에 맥이는 거라. 게서 우선 가져온 걸로 전부 부모 돌아간 때 수고헌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공가프는 거라. 부모에 공가프는 거. 하고 죽은 걸 떠나서 떡 닦은 허나씩이라도 도야지고기 혼 멧 점 썩이라도, 혼 반 썩이라도 그 분들신디 다 헤여똥 남은 거는 집에 오는 손님덜 대접허민. 조문 가는 사름은, 돈이, 그때 돈이 없어. 계민 그 생성 허나, 생성 허나 남즈덜은 끌레기라고 새 헤영 끌레기라고 있어. 특허게 일로 즐라메영 될로 거끄민 여기 특 낵으네 또 즐라메영. 끌레기.

@ 끌레기?

# 끌레기. 고기 싸는 걸 끌레기라고 헤.

@ 아, 고기 싸는 걸 끌레기라고 허는 구나예?

# 응. 고기 싸는 게 끌레기.

@ 그것도 새로 만드는 거마썸?

# 이게 새거든이. 세 밧디. 새는 요만이 즐라메영, 즐라메민 요 놈을 이렇게 꼬불르거든. 메거든. 영 뒤집어.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생성을 요레 낵 특 싸. 쌍 이젠 요놈을 이렇게 해서 특 즐라메민 끌레기가 소랑하게 이렇게 똤거든. 그러면 이 놈을 특 들러아정 상에 강 이렇게 올령 절을 허는 거라.

@ 아아.

# 그래서 옛날은 조문을 헛어. 남즈덜은. 또 여즈덜은 아정갈 게 없거든. 그민 아정갈 게 없으면 여즈덜은 감주. 감주도 헤영 병에 혼 병 질영 가곡. 또 쪼끔 여유 있는 디는 쫄 쪼끔만한 낭퐁이에 요런 낭퐁이새끼에 특 헤영 그렇게도 갖고. 경 행 이제 그런 식

으로, 무슨 제물이라도 하고. 혼 방울 죽은 걸 떠나 하영 혈 게 없거든게. 그래서 성의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문을 가면 기자 조문도 가민 춤 대접하곡. 부жат침은 부жат침 이대로 하고 대접을 했는디 옛날은 그 삼년을 못치난 이제 그 지금은 하간 교가 많이 나니까 다 교식으로 달라서 지금은 해여. 그 불교 믿는 사름은 불교식, 성당 믿는 사름은 성당식, 예배 믿는 사름은 예배식 허는디. 옛날이야 얼마나 설롭고 어렵게 살아서게.

@ 게난 사람이 돌아가시면 또 아까 상복을 만든덴 헛자녀우파에?

# 응.

@ 상복도 그 종류가 틀리시예? 아덜 입는 상복?

# 아덜 입는 것 뜰리고 말곡.

@ 그거 혼 번 곶아줍서. 상복에 대해서?

# 아덜 입는 거는 이제 그 독지에 이렇게 부치는. 지금은 아덜 입는 거는 등따리에 자 두 치 하나만 톱 부쳐. 등따리만. 그건 아덜이라는 표시 하나만. 혼 자 두 치만 혼 나 그걸 뒤에 부치민 아덜이곡. 상제덜은 일반 손지고 상제고 십시일반으로 입는디. 그 잔 어디 아사다부런. 옛날은 이제 그, 만일 예를 들어근에 요렇게 상제웃이면 이제 그 양 독지에다가 부찌. 양 독지에. 양 독지에 부찌고. 또 이제 이게 등따리민, 등따리도 이렇게 찌어가지고 이렇게 양 등따리에도 부찌곡. 또 이젠 준등이도 이렇게 웬노로 막 슬치게 꼬아서 막 이대로 막 부각허게 이만은 이렇게 무끄곡. 이제 이렇게 영 행으네 앞드레 웬 띠로 해서 무끄곡. 부치는 게 많았지. 아덜 상제.

@ 아덜 상제?

# 예. 또 경 허곡 아덜 상제는 지금은 이렇게 우머닐 들령허는디 아덜 상제는 우머니가 없어. 이렇게 딱 이 두루막꺾찌 좁게, 좁게 허곡.

@ 옛날은 좁게 허곡예?

# 좁게 허곡 허는디 사위는 떡을 받으라고, 사위나 손지는 떡 받는 걸로 우머닐 들련 헛거든.

@ 그걸 우머니렌 험니까?

# 우머니. 우머니.

@ 이렇게 영.

# 예. 우머니. 우머니. 그건 아들이나 손지나 떡 주민 반양 이덜 들이치는 걸로. 부주도 반양 들이치곡, 떡도 반양 들이치곡 영 해서 우머닐 들렸는디 아덜 상제는 그런 게 없어.

@ 요즘은 다 아덜 상제.

# 지금은 아덜 상제도 딸 상제도 이렇게 한다고.

@ 그 옛날에는 사위 거는 흐끔 요즘은 요추룩허고예?

# 응. 아덜 거는 소단. 이걸, 넓게 현 건 중단이라고 허고 좁게 현 건 소단이라고 허거든. 이 몸에 부치는 거는 아덜게 허는디 소미만큼은 소단으로 한다고.

@ 아, 옛날에는 소단으로예?

# 소단. 아덜은 소단. 아덜은 이렇게 소단으로 허곡 이제 그 사위허고 이제 손자는 중단으로 허고.

@ 요즘 거꿀로 또 뒤퍼러감신 게예?

# 응, 응. 그렇게 요즘은 시국대로 허는디 그렇게 해서 옛날은 이제 허고. 아버지는 돌아가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디. 장례사(장의사)에선 돈 박아. 아덜은 이렇게 감쳐. 아바진, 아바진 돌아가민 이렇게 감치곡 또 어머니 돌아가민 이렇게 단을 거껴서 박곡. 역시 지금도 그렇게 허는디 지금 장례사에서 밋밋 박으니까 건 몰라.

@ 옛날에는 그걸로만 봐도 아, 이 집엔 무슨 상 낫구나 현 걸 아는 거잖아예?

# 그렇지.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가 돌아간 걸. 게서 아니 요세도 참 즈끔 뭐 현디 우린 강 보민 이디 사촌네 죽은집 가봐도 보민 문딱 이런 걸 박으니까 “저걸 풀영 감치렌.” 경 해서. 감쳐야 원칙이지. 경 허난에 우린 박은 후제도 굶은 실 행 감쳐줘. 박은 우로도 것만 뜯어볼민 우리 어머니라도 입게. 그렇게 해서 해주는디 경 안 허민 장례사에서 밋밋 박고. 요새 차례가 없는 땐디 옛날엔 그렇게 해주.

@ 그 옷을 무슨 옷이렌헉니까? 그 옷 이름을.

# 상복.

@ 그냥 상복?

# 상복.

@ 저쪽 남원 쪽에서는 지도옷이런 헌 말을 허는디 건 뭘 옷이우강?

# 지도옷?

@ 그건 안 들어봣디가?

# 아니 그것도 들어놨주. 지도옷. 지도옷. 지도옷도 지도옷인디 상복이 표준이라.

@ 상복예?

# 그 옛날에는 지도옷이런도 헤실 거라.

@ 그 상복이예, 아까 남자들 거 이렇게 양쪽에 돌르는 거에 그것도 이름이 이수과?

# 그건 그걸 상복이런 헤. 상복에 딱른 거난.

@ 아, 상복예?

# 응, 딸른 거난.

@ 게민 그거는 남자 상복은 경 허곡 여자 상복은 어떻게마씸?

# 여즈 상복은 그자 지금은 여즈 상복을 이렇게 헤서, 이렇게 헤서 영 입는디 여즈는 적삼 입곡. 여즈는 적삼 입곡 치메 입곡. 그자 건대 쓰곡. 그랬는디 중간에 여즈 상복 이 나왔주.

@ 아, 이것도 예전에는 엇어난 거라예?

# 응, 적삼 입곡 여즈는.

@ 여자는 적삼. 머리에 건대도 이제야 나온 거우과? 예전에도.

# 아니, 아니. 건댄 옛날부터.

@ 여자도?

# 예.

@ 남자도 아들 상제허곡 사위가 허곰 틀리지 안 험니까예?

# 건대. 건디 사위는 건대를 안 쓰지.

@ 아 사위는 건대를 안 허는 거구나예. 아덜만.

# 아덜만. 딸은. 손지도 아버지가 엇영 아버지 대신 사는 손진 건대를 쓰곡 경 안 허민 안 쓰곡. 당연히 아덜만.

@ 그 아까 아버지 죽으면 아래 단을 감추곡 어머니는 이렇게 단을 꺼끈텐?

# 거끄곡.

@ 꺼끈텐 했잖아예. 건데 무사 경 헌덴 헤마심?

# 그 아버지는 아멩 헤도 어머니만이 문문허질 안 허곡. 그래서 아버지는 쏘끔 거친편에서 감치곡 또 그 이런 방장대 잊지 아녀? 상장대엔도 허곡 방장대엔도 허곡.

@ 상장대도 험니까?

# 예. 경 허난 그렇게 허는디. 그것도 어머니는 죽으면 머귀냥을 허고, 그 고비고비문 어머니는 헤도 모든 막작이 많거든. 아버지는 죽으면 왕대로 허고.

@ 그거는 멧 막작으로 헤마심? 아버지는.

# 멧 막작이 아닌, 지푸는 게 그 기장이 있어. 혼 자 멧 치 여덫 친가. 기장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 이제 머귀냥으로 허곡 아버지는 지금은 그걸 지푸는 디도 없지 만은 옛날은 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주. 북시미 허곡.

@ 북시미?

# 북시미는 다 ㄹ트게 허고.

@ 북시미는.

# 북시미는 다 꺾으로, 꺾으로.

@ 찍으로 혜 갖고 중간에 영 무끄잖아예?

# 그건 북시미라고 허곡 이거는 방장대도 허곡 상장대도 허곡.

@ 그 방장대는 무사 지프는 거렌 험니까?

# 상제가 그만큼 아척으로 어둡도록 상 올젠 허민 힘이 없거든게. 그러니 의지허는 거지. 의지, 의지, 의지. 지퍼가지고 우는 의지.

@ 그 뭐는 북시미는 무슨 의미?

# 북시미는 그 상장대에 뜨른 거니까 앞이 허허니까 이제 상장대에 북시미가 바늘 꿰민 아버지 어머니 모양으로 이것도 내웨분그치 뜨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북시미 놓고 상장대 놓고. 이렇게 힘을 내서 절을 허곡 또 이렇게 가져볼 땐 지프곡. 이 건 향시 뜰라야 뉘는 거라. 거난 북시미허고 상장대는 내웨분 같은 거라.

@ 내외분 같은 거예?

# 예. 뜨른 거.

@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북시미랑 상장대도 다 상복 헐 때 다 준비허는 거우과?

# 그, 으. 그트게 준비허는.

@ 그러면 예전에 이제 아덜이나 손지나 딸이나 메뉴리 그런 상복 말고 그 두건도 줍잖아예? 두건은 누구네가 써마씨? 멧 촌까지 줍니까?

# 두건은 정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옛날은 이제는 팔촌에도 사돈을 허는디 옛날은 십오촌까지 사돈도 못 허고 친족이랏어. 십오촌까지. 그 넘으면 헝꿈 멀어지는디 이제 십오촌까지는 다 두건을 줘. 다 두건을 처음부터 주고. 또 그 촌수 외로 나가는 두건은 정복이엿 행으네 만일 딸이 친허나 아덜이 친허나 헝 사름이 줄 수 잇는 거. 정복으로.

@ 정복으로. 정으로 준덴 헝 정복이구나예?

# 예. 정복으로. 치마도. 그럴 수 잇고, 정복으로. 정으로.

@ 남자한테는 그러면 두건을 주는 거곡?

# 여주는 치마.

@ 여즈는 치마?

# 여즈는 옛날은 치마가 비싸니까 수건 줬지. 수건. 수건 이렇게 석 자. 옛날은 석 자 수건을 썼어. 이디 영 톱 즐라메곡. 게믄 여잔 수건. 치메도 중간에 흐끔 요구허니까 치메도 주곡 몸빼도 주곡. 그럴 여유가 엇어. 수건.

@ 그 수건을 복수건이렌 허는 거우과?.

# 복수건. 복수건.

@ 아.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 7튼 경우에 그 상 나면 할머니들이 보통 복수건을 썼잖아예? 친척들도. 상복 안 입은 경우는 이젠 복수건으로 대신헌 거구나예?

# 응. 복수건. 그계 복이주. 그계 복.

@ 그러면 이젠 그런 식으로 행 그런 상복들을 돌아가시면 다 만드는 거라예?

# 돌아가시면 만들야. 미룻 만들양 놓지 아녕. 동네 사름덜이.

@ 그니까 동네사람들이 모여져야 뉘컨게예?

# 동네 사름들이 그때는 이 집의 잔치헌다 허민 가정가는 게 뭐냐 허면은 칼허곡 도마.

@ 잔치는 칼허곡 도마?

# 칼 허고 도마, 이걸 들렁 가서. 칼에 도마를 써야 일을 허거든. 뉘든. 또 이젠 불은 낮젠허민 바가수에 물. 바가수에 물 들렁. 그자 어디 불 낮젠 허민 우선 집이 바가수나 낭푼이 좃양 물 들렁 가주. 그냥 가는 법은 없어. 이젠 수도가 잇곡 무신 그, 질게 호수가 잇주만은 그전엔 없거든. '어디 불이여' 허민 우선 바가수에 물 들렁 가는 거. 또 장사 낮젠 허민 바농 실 췡경 가는 거. 또 잔치엔 허민 칼 도마 들렁가는 거. 그계 일이엇지 뉘.

@ 예예. 가서 도와주는?

# 도와주는 거계. 도우멍 사는 거.

@ 게민 그렇게 해서 이제 상복을 이제 허곡. 그 다음에 호상. 호상은 미리 만들어 놔두는 거잖아예? 보통 언제 만든덴 헤마쌌?



# 그게 막 돌아가실 때. 옛날은 여유가 이시민 나 아까 안 곁아서. 장계갈 때 시집갈 때 옷을 다 해주거든.

#### 4. 호상옷(수익)과 부속물

@ 옷을. 호상도예?

# 호상이 아니고. 지금 장계가는 옷이 호상이고, 시집가는 옷이 호상이거든. 알아들었서?



[사진 2] 제보자 오양수가  
시집갈 때 어머니가  
해주셨다는 장옷.

@ 예예.

# 그러민 그 호상을 역불로 허는 게 아니고 다 그 질쌘허고 무시 거 허민 아덜 장계가젠 허민 도폭을 다 헤여. 옛날은 도폭허고 옷 혼 불허고 다 헤서 그냥 그대로 이젠 장계 보내고. 또 며느리도 다 헤 주고, 딸도 해주민 그걸로 딸도 시집가젠허민 장옷허고 다 옷을 헤야하거든. 그렇게 해주면은 그 옷을 다 놔두는 거라. 시집가고 장계갈 때 옷은 놔두민 지금은 대림포니 뭐 그런 게 여유가 여러 가지 남주마는. 옛날은 다 그게 집에서 입는 결혼할 때 입는 옷이라. 지금 수익가. 그러민 그 옷을 다 강직행 놔두민 그렇게 필요허게 호상할 게 없거든. 그걸로 다 쓰니까.

@ 예예.

# 경 허곡 또 만일 양반의 집은, 또 향교에 입영 가는 옷이 지금의 호상이라. 그러니까 그 특별히 호상을 만들져, 행 놔두져 그게 없었어. 그게 없는 사름은 춤 이제 멘들 수도 있고 이제 허는디 대부분 즈끔 그 모양허는 집이나 조끔 근본 있는 집은 그게 다 있거든. 다 장계갈 때 다 그런. 시집갈 때 옷을.

@ 그러면 호상을예. 어땀든 맨 아래에 옷부터 여자 것부터예. 호상이나 아니 시집, 혼례복이나 똑 같덴 허민?

# 꼭같아.

@ 맨 안에부터 입는 옷 이름 한 번 곁아줘 봅서? 우리가 옷 입을 거.

# 저 거시기 허는 디 다 잇는디.

@ 예전에는 결혼할 때 허는 옷을 다 입은 거구나예?

# 다 있어. 호상옷. 지금 한라병원 원장 부인도 결혼할 때 옷으로 지금 놔뒀는디 이디 오랑 다른 거 다 채와도.( 물건 찾는 중). 이게 수의 혼 불 다 입는 그 츠레라.

@ 예예.

# 이게. 입는 츠렌디. 이게라 수정이. 다 전부. 우리가 가정나가는 게.

@ 예. 게문 맨 처음에 이제 살마다. 살마다는 뭐우과? 살마다는.

# 속. 이를테면 소곶에 입는 팬투게.

@ 팬티예? 옛날도 살마다렌 불러나수가?

# 응. 살마데벳긔 엇주게. 속살마다.

@ 속살마다예. 살마다 입으면?

# 그 우에 런닝구. 그 우에 런닝구.

@ 살마다를 입으면 그 우에 런닝구를 입는 거라예?

# 그 다음 중의.

@ 그 다음에 중의?

# 적삼.

@ 그다음에. 중의는 그 바지?

# 바지 소곶에.

@ 속바지가 중의지예? 중의. 그 다음에?

# 적삼.

@ 우에는 적삼을 입지는 거우다예. 그 다음에 바지?

# 바지.

@ 바지가 중의는 헝곰 짚은 거우광?

# 아니. 중의도 바지영 그트게 입어.

@ 바지. 바지 입으면 이제 허리띠. 옛날도 허리띠엔 불러수가?

# 응. 허리띠. 허리띠.

@ 허리띠 현 다음에 그다음에 저고리를 입는 거라예. 저고리를 입고. 저고리 다음에 보선을 신어 마씨?

# 응.

@ 아, 저고리 입으면 보선을 신는 순서 경협니까? 보선 신고. 그 다음에 다님.

# 다님.

@ 다님 입으면. 이제 보선 현 다음에 바지.

# 바지 다님을 이렇게 무껴야 허거든.

@ 예. 다님을 무끄곡. 그 다음에.

# 요까지 가서?

@ 왁수. 왁수는?

# 아니, 아니. 왁수는 손에 이렇게 끼우는 거. 이견 그 이견 장계갈 때 것이 아니고 수의 전체라. 수의 전체. 왁수 손에 끼왕.

@ 예예. 그 다음에.

# 이견 왁수지? 또 이젠 이레.

@ 창옷.

# 창옷 입혀.

@ 왁수 끼운 다음에 창옷 입집니까?

# 또 전부 이제 런닝구로 혼 불 입고, 바지저고리로 혼 불 입곡 버선 신고 하니까 손에 악수끼면 다 손이 감치게 되어 있거든.

@ 계난 버선까지 신으니까예?

# 응. 옷옷만 입히면 되는 거야.

@ 창옷 입히곡 그 다음 도폭. 도폭 입히곡. 이 띠는.

# 이 띠는, 도폭 입지만 이 띠를 무껴야 허거든.

@ 이 허리띠는 바지에 허고?

# 바지에 허리띠.

@ 띠를 허곡. 그 다음에는 동심줄?

# 이디. 어느 게 중간에 촌레로 안 된 게 있어. ㄱ만 잇어봐. ㄱ만 잇어. 창옷, 도폭 이거 무시저라?

@ 동심줄?

# 응. 동심줄은 말자의 놔도 되는 건디 그냥 올려도 돼어. 동심줄. 동심줄.

@ 그 다음에는?

# 주머니.

@ 주머니는 무슨 용도우팍?

# 주머니는 다섯 껌 놓민 그 사람이 죽으면 손톱, 발톱 ㄱ아 놓고, 머리 끊어 놓고, 또 이제 담배 놓고, 또 노잣돈 놓고 그러는 게 다섯 개가 들어가.

@ 아, 주머니가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예?

# 지금도 다섯 개 들어가. 다섯 개가 들어간다. 주머니 다섯 개.

@ 그 주머니 이름은 따로 엇어마쌌?

# 엇어.

@ 옛날부터 주멍기?

# 주멍기. 주멍기.

@ 주멍기. 우리 제주도말로는예. 그 다음에?

# 요건 행경.

@ 행경?

# 행경은 다 입힌 다음에 이거 행경을, 이 보선이영 신은 우에 이렇게 행경을 끼는 거.

@ 예예. 상복혈 때도 그 행경허는 거처럼예. 행경?

# 응. 이제 또 베개 낱 배우는 거. 이거 무시거니?

@ 설명주렌 써젯수다.

# 설명주는 이게 그 베개 다음에 올라갈 건디. 이 동(洞)에서 쓰는 걸 잘못 쓰난. 설명주는 이 톱 바트는 거. 흔들카부덴.

@ 아 톱을 바쳐예?

# 바쳐. 고망 막는 거. 사람이 죽으면 코로 영 물이 출출 흘르민 물이 아니고 피라. 그러니까 설명주로 꼭꼭 고냥 막곡 톱 흔들카부덴 바치곡. 그제 설명주.

@ 설명주는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헤마씨? 이거는.

# 두 장 석 장. 장수로 잇어.

@ 아. 그 다음에 요거는?

# 엄도. 그 엄도 이렇게 이렇게 다 고냥 막곡 톱 바황은에 엄도로 머리를 싸는 거. 요 거 엄도. 그 다음에 검은호상을 머리에 톱 씌우는 거.

@ 예. 검은호상을 씌우는 거라예?

# 예. 이게 수정이 멧 가지라?

@ 요까지 스무 개. 저기 신발도 이신게예?

# 이젠 일로 헤갈 거.

@ 신발?

# 신발. 대림포.

@ 대림포는 뭐우과?

# 대림포는 마지막 이렇게 낱 영 놓고 저영 낱 싸는 거. 다.

@ 옷 다 입힌 다음에?

# 예, 예.

@ 경 해도 대림포는 되게 크겏다예?

# 예예. 멍지 거자 흔 필 드는 거. 지금 우리가 허는 거.

@ 멍지 흔 필 드는 거라예?

# 아니. 서른 자.

@ 서른 자? 아아.

# 응.

@ 그 다음에 이제 베?

# 베개?

@ 베엔 씨젯수다. 베렌?

# ㄱ만 서봐. 대림포 다음에 무끄는 거.

@ 아 무끄는 걸로 허는 거우다예?

# 무끄는 거. 베로, 베.

@ 그럼 베는 어느 정도 헤마심?

# 흔 빌.

@ 응. 흔 빌 허곡?

# 스물석 자짜리 흔 빌.

@ 스물석 자짜리 흔 빌. 그 다음에?

# 이거 무시 거엔 써서? 그 다음은 어느 거라? 아 이거.

@ 지금.

# 지금은 관 소곶에 천 깎는 요.

@ 요?

# 요. 천금. 천금은 마지막 더끄는 거.

@ 이불예?

# 이불.

@ 관포렌 뉘수다.

# 관포는 이젠 그거 다 헨 입형 요 끌고 이불 더깁 관에 들어놨거든. 들여놓난 관포는 이젠 관 무꺼근에 이제 그 관 무끌 계난 관 우의 이렇게 포를 관 우에 이리 더껴야 관 무끌 거거든.

@ 아, 관 우에 더뜨는 걸?

# 관 우에 더뜨는 걸 관포라고 허거든. 관포. 그 다음은 관띠. 띠로 무끄는 거.

@ 관을 무끄는 거라예?

# 그 다음은 멩전 들렁 나가는 거.

@ 그러면은 이 관포는 수의에 포함이 안 되고 천금까지 들어가는 거겠다예.

# 예예예예. 관포는 다 헌 다음에 이렇게 이게 관이니까 이렇게 포 더껴서 이제 관 무껍 들렁 나갈 거계.

@ 그러면은 이게 이거는 남자거다예?

# 응 남자 거.

@ 그러면 여자 거는 어땡?

# 여자 거는 그 치마 저고리만 딱로 들고, 소중의 들고, 이디 멧 가지만 딱로 들주. 수의는 거즘 ㄱ타.

@ 그러면 여자 거 입을 때는 살마다 입힌 다음에.

# 아니.

@ 여주는 살마다는 안 입읍니까?

# 소중의.

@ 아, 소중의?

# 불러봐.

@ 예.

# 란닝구 입고.

@ 예. 소중의 입영 란닝구 입곡

# 으. 그 다음 중의, 적삼.

@ 중의, 적삼을 입곡.

# 이젠 바질 치메로 봐. 치메.

@ 아 치메 입어예?

# 치메. 치멜 두 개.



@ 아 바지를, 바지 대신 치메를 두 개 입어예? 속치메허곡.

# 아니, 아니. 응. 속치메허곡, 것치메.

@ 것치메 허곡 두 개 입고예?

# ㄴ만서. 바지로 해도 뉘주만은 치메가 엇어부난. 또 이진 무시 거라. 허리띠 아니허 곡 저고리 어느 거지?

@ 이거 저고리.

# 저고리, 적삼. 치메 두 개, 저고리, 적삼.

@ 치메 두 개 입곡 적삼 입영 저고리 입는 거우팍? 저고리 입영 적삼 입는 거라예?

# 아니. 아니 저구리, 적삼. 란닝구 입은 다음에 적삼 입영 저고리.

@ 아, 예. 그 다음에 저고리 입곡.

# 저고리 적삼. 계민 치메 두 개 입었지이?

@ 예.

# 치메 두 개 ㄴ치 허리 돌아. 치메 두 개 ㄴ치 허리 돌아 입영 이제 저고리, 적삼 입었지이? 계난 이제 바질 헐 거라이. 바지, 중의.

@ 아, 여즈들도 바지 중의를 입어예?

# 응. 바지, 중의.

@ 그러면 바지 중의는 치메 안으로 입는 거잖아예. 치메 입은 다음에 또 바지 중의를 입어?

# 아니, 아니, 아니. 먼저 이게 바파전. 지금 해부난. 바질 이거, 바지 중의로 해도 된다. 이거. 계난 이걸 거꾸로 곤젠 허난 이걸 바지 중의로 해부러. 바지 중의. 또 허리띠 말고 저구리? 어느 거 저구리?

@ 저고린 여기 이수다.

# 저구리 적삼.

@ 저고리 적삼.

# 응. 바지, 중의, 저고리, 적삼. 이제 경 허민 치메 둘.

@ 치메 둘.

# 게믄 이제. 게민 이제.

@ 저고리 먼저 입었은에 치메를 입는 것광? 치메를 먼저 입었 저고릴 입는 것광?

# 치메 먼저 입었.

@ 치메부터 먼저 입었?

# 남자 걸로 허젠 허난.

@ 예예.

# 히어뜨헝. 게민 이게 보선도 그튼 거 다넘은 안 들어가는 거.

@ 예. 왁수?

# 왁수도 들어갈 거. 창옷 안 들었 도폭 또 안 들었 장옷 들어갈 거.

@ 아, 장옷예. 젤 위에 입는 거 여자 옷 장옷.

# 응. 장옷. 이것도 들어가는 거. 이것도.

@ 동심줄은 뭐에 들어가는 거우과?

# 동심줄은 흰맹지, 저 노랑맹지 석자, 붉은맹지 석 자헤영 딱로딱로 이렇게 개영 그 우에다가 개여 놓고 그 우에 다가 오색실 행으네 동심줄을 못양, 못양은에 지금은 우리가 다 만들양 허나로 허는디 못양은에 그 노랑맹지에 검은맹지에 동심줄 이렇게 딱 그치 놔근예. 관 우에 놓는 거.

@ 아 그러면 예전에는 맹지를 세 가지 이렇게?

# 두 가지. 검은맹지, 노랑맹지.

@ 검은멧지 노란멧지에 놓고 그 위에 오색실로 헤갓고 놓고 다 동심줄을 못앙 놓는 거라예?

# 못앙 낡 경 허는디 지금은 다 기냥 영 해근에 몬 못앙으네 합청 우린 풀주.

@ 예전에는 따로 행 뇌난 거예? 동심줄 놓는 이유는 뭐 마씨?

# 그걸 뇌야 저승을 간다 허니 걸 모르주. 그걸 뇌야.

@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저기 수의 다 입형은에 위에 놓는 거?

# 아니, 아니. 관 우의 놓을 거라.

@ 관 위에 놓는 거. 동심줄은?

# 관 우의 놓는 거. 게민 이걸 동심줄 들어가는 거. 주머니도 들어가는 거. 행경은 안 들어가는 거. 베개 들어가는 거. 설맹지도 들어가는 거. 엄도도 들어가는 거. 검은호상도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건데. 멧 가지만 바짜.

@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 바지, 저고리, 중의, 적삼도 ㄱ트는 거. 바지, 저고리도 이제 바지만 치메로 바꾸는 거. 또 살마다만 소중의로 바꾸는 거. 또 도폭만 장옷으로 바꾸는 거. 그렇게 되는 거. 다른 건 다 ㄱ치 들어.

@ 예전에는 그 결혼 할 때 입었던 거 고대로 하게 되면 장옷도 옛날에는 색깔 있는 장옷이었잖아예?

# 그 색깔 있는 장옷이, 옛날은 그게 입는 거니까 보기도 좋곡 색깔 잇는 걸로 했는데, 그 색깔 잇는 게 그게 원칙적이었는디 지금은 색깔 잇는 게 호상에다가 묻엇다가 이젠 천리, 이모헬 보니까 물색이 범벅지니까 이게 안 좋다 해서 흰 걸로 바꾼 거.

@ 아아.

# 그래서 그자 깨끗허게 다 흰 걸로 헤분 거.

@ 옛날 같은 경우는 남자 창옷이나 도폭 같은 경우도 물 들었으네 헛잖아예?

# 옥색.

@ 예. 옥색예.

# 건 이쁘게. 이쁘게.

@ 원래는 그걸 고대로 입혀 갖고 했는데.

# 예. 켄디 그게 원칙은 아니었어. 이묘 행 보니까 물에, 다 물이 다 합쳐졌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이젠 신식으로 바꾼 거주. 흰 걸로만 깨끗하게.

@ 이거는 신식으로 바꾼 거예?

# 바꾼 거.

@ 우리는 검은호상 같은 경우는, 무사 검은호상을 현 덴헤마심? 그 색깔도 틀리잖아예?

# 검은호상은이 나 아까 나 안 곱았어. 그 요 설명주가 잊지이.

@ 예.

# 사람이 돌아가민 이 고양이 난 디가 이제 멧 곤데니? 으섯 곤데라. 눈긱지. 일곱이지.

@ 코 들.

# 눈 들, 귀 들.

@ 예. 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 일곱이거든이. 일곱 곤데가 문딱 글로 그 물이 흘러 나와. 물이 나오민 이제 그 물 나오는 게 물이 아니고 피라. 피민 그게 보기가 얼마나 안 좋아. 허민 설명주르다가 그 피를, 설명주는 아주 진짜 그 거시기거든. 그러니 그걸로 똑똑 이딜 다 막아. 막아근에 그 엄도 어디레 가시니? 엄도는 양 쪽 풀을 이렇게 허고 으섯 가지가 으섯 가지가 고 비쳐져.

@ 여섯 가지?

# 예. 그거 고비쳐지민 두껍거든. 그 놈을 엄도로 으섯 가지를 고비청 얼굴을 막은 다음에 검은호상을 딱 씌우민. 검은호상은 안은 붉은 거 우는 검은 거니까게 그게 다 감 추와 지거든. 감좌지고 가리워지곡 그게 그냥 몸에다, 옷에다 호상을 피고 허민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 그레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검은호상이라. 그래서 검은호상 씩왕 딱히게 봉해 불민 깨끗하게 그대로.

## 5. 속담과 금기어

@ 옛날에는 이 호상옷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헛잖아예?

# 그렇주.

@ 그래서 어디 좀 인 것도 안 허고 뭐 종이 꿰와분 것도 안 하고?

# 그럼. 뒷바농질도 안 허곡. 뜰어고찌지도 안 허곡. 날 봐서 톨곡. 지금도 그러지.

@ 뒷바농질도 안 허곡?

# 응. 그래서 지금도 옛날은 결혼식 옷 허젠 허민 사람 좋아야 허고, 날 봐야 허곡. 꼭 그 식이라.

@ 어느 날이 제일 좋덴 험니까?

# 결혼식은. 아니 그 사람 본명일 아녀곡. 므날이나 소날이나. 그런 날에 무신 줌날이나 무신 쥐날이나 그런 날은 쓸아불거든. 베염날이나. 그런 날은 안 헤여. 사일이라고 해서.

@ 사일이라고 해서?

# 그래서 베염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난 날 아니민 재 단허는 거. 우리 다 재단, 다 그렇게 헛거든.

@ 아까 줌날은 무슨, 어느 날을 줌날엔 어느 날?

# 그거 줌 쏘으는 날이 이시메. 우리 달력에 보민.

@ 아 헤치허고 상관 어시 줌날이렌 허는 거마썸?

# 그 쥐날 ㄹ튼 것이 다 그 줌에 들어가지.

@ 아. 쓸아부는 거예? 게민 그처럼 쓴 거 허면은 뭐 자손들 안 좋다?

# 아니. 줌도 일고 야튼 그자 철저하게 글림으로 영 허는 거.

@ 거난 쪽꿈이라도 고망 나민 안 입힌덴 이제도?

# 고망 나민 즈손에 고망 나는 그것이 헌덴 행으네 줌이 많이 쓰으민 안 입히주. 스라불도 안 허주. 저승가민 정 텡기젠 허민 귀찮은덴. 본인 산 때라도 본인 산 때 스라도. 스라부나 경 안 허민 어디 쓰레기통에 놔부나 헤사뉘.

@ 아 원래?

# 죽어 분 후에 슬민 저승에 아정가는 게 되거든. 망인 죽어분 후제에 슬민.

@ 슬지 안 허는 거우광?

# 응. 망인이 산 때 스는 건 뉘는디 망인 죽어분 후젠 안 슬아.

@ 만일 그러면 그때 좀 찻다 허면은 그걸 슬지도 안 헌다는 거라예. 그냥 강으네 버려부는 거라예?

# 아니. 수의가 여기 뗏 가지렌 씨전 이시냐?

@ 명정까지는 스물 여덟 가지우다.

# 그거라. 이제 이게 수의 혼 불. 우리 이거 강의허주게.

@ 예예.

# 이, 저 들들에 두 번씩. 계난 이게 잇어사 흑생들 ㄱ르치젠 허민.

@ 거난 뒷바농질도 안 허고. 뒷바농질허민 뭐 안 좋덴 험니까?

# 아니. 정성으로게. 정성으로. 정성으로. 정성이 지극허덴 헤영. 정성으로.

@ 거난 수의 만들젠 헤도 다 이제 그 돌르고 뭐 다 영 하잖아예? 옛날엔 요즘은 뭐 본도 나오고 허주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행으네 손으로만 다 헌 거 아니라예?

# 그렇주게.

@ 수의 만들젠 허면 무슨, 필요한 도구는 어떤 거 필요헤마씨?

# 그 옛날이야 지금은 미싱이 이렇게 잇주만은 다 손으로 헛주.

@ 손바농질.

# 손바농질. 옛날이야 그 중간엔 등피불이 잇어서? 이제 그 등피불도 중간에서 나온 거주. 등잔불. 요렇게 등잔불 놔그네, 손으로 다 보선 수늑 새기곡. 그걸 손바농질 헛주. 옛날은. 손으로.

## 6. ‘호상옷’(수의) 부분 명칭

@ 그 옷도 허게 뒤면 이름들이 다 잇잖아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 이름 잇주.

@ 저고리허면 어디에 무슨 이름 이런 거 다 잇지예?

# 저고리 하나예. 그럼. 진동, 잇몸, 질스미, 압섭, 동전, 짓, 섭 다 잇주게.

@ 진동은 어디우짜?

# 진동은. 요렇게 영.

@ 아, 여기가 진동이라예?

# 응. 여기가 이거 진동. 이건 스밋 기장, 또 울로 꾀 놓는 거는 질스미.

@ 질스미. 여기 꾀 놓는 거를?

# 이건 스미, 질스미, 요디 부찌는 거를 밧압섭, 요디 부찌는 거는 안앞섭, 요건 짓, 또 바위 붙이는 건 동전, 요건 긴곰, 요건 짝른곰, 소곰에 붙이는 건 젓곰.

@ 소곰에 건 젓곰이렌 헛니까?

# 그 이름 다 잇고 말구. 이름 다.

@ 여기 옷 앞이 거는?

# 그건 그냥 큰곰.

@ 곰 말고 이 몸에?

# 이건 잇몸계. 잇몸. 전체 몸.

@ 건 잇몸이런 헤마쌌? 잇몸. 뒤에 것도.

# 건 그튼 거거든 하나로서, 목고대만 트나. 이것그라 목고대렌 허거든.

@ 목고대?

# 목고대만 틀리는 거.

@ 그러면 옛날에는 저고리허면 이렇게 영 허는 게 아까, 아까 뭐렌마쌌?

# 진동. 아, 질스미. 지금도 질스미.

@ 질스미렌 했잖아예?

# 스미 이으는 거.

@ 이렇게 색동 넣는 것도 다 질스미렌 허는 구나예.

# 응. 질스미.

@ 그러면 요런 건 질스미이고. 여기는 아까 없던데. 손 요렇게 막는 한삼?

# 그거는 호상에 한삼.

@ 거는 호상에만 허는 거마씨? 아 그건 한삼 허는 거고. 질스미. 이거는 저고리만 허는 거고?

# 옛날은 도폭에다가 그 새각시덜 혼삼을 놓주. 길게 도폭에. 도폭에 놔서 이렇게 영 손을 가리우기 위해서 혼삼을 부찌는디 지금은 그 호상에는 적삼에 부찌. 여즈 손 가리기 위해서. 지금도 또 도폭에도 부칠 수 있는디 거창허니까. 옛날은 그 신부덜, 옛날은 그 신부덜 영 절허곡 영 허젠 허민 이게 그 질게 한삼이 꼭 그 혼 너비로 도포, 장옷에 부떠야 가리와졌주.



@ 그런 식으로 예곡. 옷을 이렇게 허면 이런 데, 이런 데도 이름 잇수과?

# 그건 단. 단.

@ 그냥 단이런 예마심? 저고리나 치마나.

# 예.

@ 게민 아까는 저고리잡아예. 게민 속적삼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니? 다 이름들은예?

# 또 속적삼은 또 더 부트는 게 잇어.

@ 건 뭐우과?

# 짓바데. 짓바데가 이 옛날에 옷을 입으면 뚝이 짹짹 나민 일로 옷이 먼저 끊어지거든. 그러면 이런 군 걸 짓바데라고 놔 놓고. 젓쟁이도 뚝이 나민 빨리 끊어지거든. 젓강바데도 딱루 놔.

@ 젓강바데렌 험니까?

# 젓강바데. 그렇게 해 놓는디 이제는 수의 같은 것도 끊어나 그런 염려는 없는디 옛날 고전식으로 조끔이라도 짓바데, 젓강바데 다 놔요. 낡 만들어.

@ 원칙으로?

# 응. 원칙으로, 원칙으로. 옛날은 크게 낡 끊어져볼카부덴 막 이중으로 그렇게 헛는디 그 식으로 지금도 그 중의, 적삼에는 그런 걸 다 놓주.

@ 바데 들어가는 데, 옷에 바데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게 적삼에.

# 창옷.

@ 창옷에도 다 들어갑니까?

# 창옷에도 바데 들어가. 창옷에도 짓바데, 젓강바데.

@ 짓바데, 젓강바데 두 군데예? 아래옷 같은 경우도?

# 아래옷은 없어. 바데가. 겐디 중의는 알로 찢어질까부다고 중의에 강알바데 조끔 놔.

@ 아, 중의에는 강알바데렌 헤마쌌?

# 강알바데 짝꿈 놔.

@ 그 이름들이 게문 이제는 저고리렌 헛잖아예? 치마엔 이름은 또 어떤 식으로. 치마에 이름?

# 치마 이름은 치마주. 것치마, 속치마.

@ 것치마, 속치마 허는데, 이 위에 부분은 또 이름이 이실 거 아니우과?

# 허리. 허리곰.

@ 이권 허리. 허리 영 무끄는 거는 허리곰. 그 다음에는.

# 아렌 단.

@ 아래는 단. 이 옆에는.

# 옆단.

@ 아, 이거는 옆단이렌 곶아마쌌?

# 응. 옆단.

@ 이권 알단. 이거는 치마를 영 곱청으네 잇잖아예. 이렇게 주름도 놓지에?

# 주름.

@ 그건 주름이렌 곶아. 그냥?

# 주름.

@ 그 치마에는 색깔을 따로 허진 안 험니까? 아까 질스미 얘기헛잖아예?

# 아, 엇어.

@ 아, 치마는 엇어예. 거민 치마는 어떤 식으로?

# 그 무당털은 무시 거, 어땡 어땡헌 덴. 발강 치메 으답 폭에, 으답 폭에 행 어땡 감

을, 뭐 인정을 놓는 덴 허는디 보통 기냥 사람덜은 아무 것도 없어. 무당덜은 그런 말 헤여. 소꿉에 치마가 어땡고, 행 가당 흔 폭씩 어디레 찢어불곡 보내곡 헌텐 허는 디 일반 사름은 그런 거 없어.

@ 보통 우리 결혼할 때는 치마, 붉은 치마 행 입지 안 예수강예?

# 그 색깔은, 색깔은 다 자유라.

@ 아, 색깔은 자유라나수광?

# 꼭 붉은 치메만 입으라고, 푸른 치메만 입으라고 그런 건 없어.

@ 아아.

# 색깔은 자유. 그 능력 있는 대로.

@ 결혼할 때도?

# 응. 능력 있는 대로.

@ 저고리도 마찬가지로예?

# 예. 능력 있는 대로. 옛날은 모든 게 귀하니까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었어. 옛날에 멩지 난 것도 아주 스몏, 그 중간에 스몏 춤 여간 우리 시집갈 때까지 난 게 멩주허고 인주법단이엔 헨에 그거밖에 안 나서. 계난 인주법단 치메저고릴 입으난 막 걸 고급이엔 헤낫주.

@ 멩지가 더 좋은 데도?

# 계난 없어서 그랬고, 이불도 그런 그 멩주 이불도 없었어. 검은 청목, 흰 광목 그런 안 행 이불 행 갖추. 뜯, 다른 게 없어. 검은 광목을 옛날에는 검은 청목이렌 헤낫어.

@ 청목?

# 그런 거 헤영 거적허곡 짓허곡 헤영. 붉은 건 짓허곡. 그 광목 나는 것도 미녕. 미녕은 집에서들 만들양 질쌌헤영 미녕, 베.

@ 선생님도 미녕 짜 뵈수가?

# 아니. 난 짜보지 아년.

@ 그렇게 하면 남자 옷 이름도 있지예?

# 잇주게.

@ 아까는 여자 옷. 저고리 하면 남자 옷 위에 저고리도 이름이.

# 그것도 ㄱ타.

@ 바지 이름은 어떻게 식으로 웹니까?

# 바지는 허리허곡. 바지주. 바지도 그 돌르는 쪽에 상복.

@ 상복은 어느 쪽?

# 곧은 거는 영. 만일.

@ 바지 이렇게 허게 뒀면?

# 이렇게 이렇게 부트민 곧은 복으로 이렇게 허는 거는 상복.

@ 그 다음 중간으로 영 허는 거는.

# 또 중간으로 영 허는 거는 이제 큰셋복, 죽은셋복.

@ 큰셋복, 죽은셋복.

# 죽은셋복을, 큰셋복은 크게 달라근에 죽은셋복을 큰셋복에 앓당 부찌야 상복에 부  
쨍 바지를 맞게 접는 거. 허리. 거뿐.

@ 허리에?

# 큰셋복, 죽은셋복, 상복, 허리.

@ 남자는 허리띠 이서부난 별 이름이 엇이켜예?

# 예. 예.

@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바지단?

# 예. 단 아녀. 바지는 안에 거적에 어울리기 때문에. 저 중의는 영 꺼쨍 단을 허니까

단이라고 허는디 바지는 안팓을 같이 어울려 부치는 때문에 단이 없어.

@ 바지는 단이 없어. 한복 남자 거에?

# 없어.

@ 밑에 데님허는 디는.

# 데님.

@ 데님이 필요한 거 짚아예?

# 응, 데님. 바지에는 데님.

@ 아까 셋복?

# 큰셋복, 작은셋복.

@ 그 다음에 상복. 경 허민 바지 이름이 되는 거라예? 그 다음에 두루마기 이름은 또 어떻게 됩니까?

# 두루마기는 안압섭, 밧압섭, 잇몸, 진동.

@ 창옷 이런 거?

# 안압섭, 밧압섭, 잇몸, 진동, 짓, 잇몸, 동전. 거 뿐.

@ 똑 같으네. 저고리허고.

# 두루마기도 젓강바데, 짓바데 있어요.

@ 아 젓강바데, 짓바데?

# 예, 젓강바데, 짓바데, 또 다 큰곰, 젓곰 잇고.

@ 큰곰, 젓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젓곰. 그건 속으로 허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단추 다 고름으로 하지 않고 단추.

# 단추도 잇주.

@ 단추 잊지예?

# 고름이 없으니까.

@ 그건 무슨 단추렌.

# 막작단추.

@ 막작단추예?

# 막작으로 이렇게 못쳐져 해서 하나까.

@ 우리 소중의 같은 거 할 때?

# 그거 막작단추.

@ 막작단추렌 허지예. 그 소중의에도 보니까 이름들이 막 으라 가지 있던데. 거기 우에 잇고 밑에 잇고.

# 그거는 소중의는, 중간에 제주도예 해녀들이 입젠 허니까 해녀덜이 젓을 가리워서 이덜 넓게 헤가지고 앞을 가리워서 해녀덜이 입게 됴민 메친.

@ 메친?

# 메친 메어가지고, 이 허리 넓게 해서 젓을 가리왓지. 겐디 일반에 그 가정주부들 입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저 양반의 집은 해널 못허게 헛거든.

@ 그렇지예?

# 우리도 일절 하르버지가 해녀를, 바다예 못 가게 헤. 옷 벗으민 쌍놈이라고. 소중의 입는 것도 쌍놈이라고. 그 해녀덜이민 그 소중의 입는 게 허리 행은예 톡 요디만 감추왕 입는 거주게.

@ 아, 예전에는 우예 거는?

# 우예 거는 없엇주. 해녀덜이.

@ 새로 만들어진 거구나예?

# 예, 그건 중간에 해녀덜이 입젠허니까 그 몸을 감추게 되니까 이디 메친 메고 이덜

넓게 준둥 알로 그렇게 헨 거여. 헤너덜.

@ 원래 게문 알로 입었던 걸 응용형 만든 거구나예?

# 게서 소중의 허리가 너무 넓어도 이디가 꼬구라지거든게. 넓게 안 해서. 요디만 특감게.

@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다.

# 헤너덜 나부난. 중간에 난 거. 헤너덜 또 허곡 바다에서나 허는디 양반의 집은 헤너 허는 거를 반대를 헛주게. 헤너허는 메누리 허도 안 헛어.

@ 예, 예, 예. 맞아, 바지 입었으네 밖에 나가는 것도?

# 아니 댜여. 아니 댜여. 지금도 바지 입었 못 나가주게. 지금도.

@ 꼭 저기를 헛덴 헛디다.

# 예. 지금도 그냥 바지 입었 못 나가. 지금도 기냥 이런 바지는 입주만은 옛날 바지 입었은 못 나가. 실례가 댜영.

@ 옛날 그거 굴중이렌 헤나수가? 굴중이는 뭐우과?

# 굴중이는 그 일을 허젠 허민 이제 지금은 이런 몸빼엔 헨 게 나왔주만은 그때는 없거든. 기냥 그 바지 중의 그런 호상허는 식으로 나민 이제 그 일헨 때 굿이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내려와야 대소변을 보게 되거든. 그러니 굴중이엔 헨 건 이딜 막 널르게 해서 그냥 그대로 단을 널르게 해부러. 경 허민 일헨 때는 이 놈을 이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일로 다남을 쳐서 영 누리민 그냥 입고, 또로 오줌을 눌 때는 이 다남 클러블민 이딜 이렇게 둘러다가 널르니까 이렇게 해서 오줌을 뉘지거든. 대소변을 그렇게 받으니까 굴중이라고 해서 알을 이만큼 널르게 해여. 이딜 영 벗어지게. 그렇게 해서 그게 굴중이렌 헨디 중간에 호상허는 사름덜이 이걸 단속곳이렌 행으네 이것이라 단속곳이렌 허는디 그게 그 소곱에 꼭 이것을 입었 이걸 걷곡 그게 안 댜. 안 댜거든. 그래서 소곱에 중의허곡 바지허곡 딱 강알 터서 만들고 이 굴중이식은 없어. 이게 굴중이가 사실은 이 노동복이었주.

@ 아 굴중이가 노동복예?

# 이게 그 옛날은 단속곳이엔 행으네 이걸 우리 결혼헨 때도 입었는디. 그 단속곳 식

으로 노동복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젠 이거 고무줄 뽕 누리곡 대소변을 본디 옛날은 그런 식이 없이 그 알만 터서 소변을 보고 이 일로 허니까 그대로 나가도 못 허곡 허니까 굴중이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디 단을 이렇게 넓게 영 놓곡 이 알을 널르게 허민 영 궁둥이 다 허영 소변 뽕 그냥도 땡기곡. 만일 일헐 때 이디가 널르민 굿주게. 불편하거든. 그러면 이 놈을 즈글즈글해서 일로 해서 단을 쳐.

@ 그러면 평상시에는 밑에 다님을 안 창?

# 다님을 안 창 그대로 다년.

@ 그러면 치마추룩 뒹켜예?

# 그대로 지금 우리 중간에 이제 반바지도 이렇게 줄어정 딱 부청 입는데 작년까지도 우리도 그런 바지가 많이 있어. 이디 널르지 아녀게.

@ 치마바지추룩.

# 치메바지추룩 강알 막양 반바지덜 헤영, 질직허게 행 그 식으로 그게 굴중이.

@ 아,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일 헐 때?

# 일헐 때는 이 놈을 쓱 올려가지고 이레 영 요렇게 줍양 다님 채우고.

@ 몸빼 식으로 된 게 아니고예?

# 응응. 그렇게 된 거.

@ 굴중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 갖고.

# 그게 굴중이야. 굴로 이렇게 걷어당 소변, 대변 보는 거.

@ 굴?

# 굴, 굴게. 이게게.

@ 그게 굴이렌 험니까?

# 응. 굴. 굴.



@ 아, 이런 들어가는 것을 굴이렌 헤갓고 굴중이.

# 널른 거, 널른 거, 굴.

@ 널른 거?

# 응. 알로 널르게. 굴이거든.

@ 아, 그래서 굴중이.

# 응. 그래서 굴로 이렇게 들러당 소변 보는 거. 그게 굴중이.

@ 무사 굴중이. 굴중이. 게난 아까 단속곳 현 거는?

# 단속곳은.

@ 한 겹으로만 되니까 단속곳. 속에만?

# 아니, 아니. 단속곳이라고 처음에 이 단속곳이 실은 결혼할 때도 단속곳이 잇었어. 바지, 중의 입곡. 속곳 입곡 중의 입고 바지 입곡 거 단속곳이라고 또 이렇게 입어서 옛날은 보통 속치메가 엇었어. 게민 그 단속곳 입고 그디 치마 입고 그렇게 했는디 그 게 이제 중간에는 단속곳은 없고 속치메, 치메 둘로 뻬거든.

@ 단속곳이 속치메 대신에 헛구나예?

# 예, 예. 그렇게 헛는디 또 막상 그 옷이 노동복으로 헤보니까 좋거든. 그러니 이게 노동복이 되어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노동할 때 전부 부인털이 걸 입영 검질도 메고 다 그렇게 입었지.

@ 게난 나가 다른 데 조사허당 보면 굴중이 차림으로 못 나가게 헤갓고 꼭 치마를 입어야만이 할 아버지나 그 막 경헛텐 허멍 허더라고예?

# 그거 굴중이. 그게 굴중이.

## 7. 적이영 떡이영(적이랑 떡이랑)

@ 아까 허당 잊어분 거 나도 잊어분 거 이수다. 그 성복혈 때, 성복혈 때, 성복혈 때 제물들을 차린덴 허잖아예? 떡 같은 거. 성복 제물을 그거를 안 물어봐졌수다.

# 성복혈 때 올리지 않은 제물을 삼년상에 못 올려났주. 성복혈 때 그러니까 삼년에 혈 걸 죽고 하고 떠나서 성복혈 때 다 올리는 거.

@ 게난 그때 뭐 뭐 혜수가? 성복혈 때?

# 다 그렇주게. 성복혈 때 허는 거게. 적갈게. 돼지고기, 쇠고기, 바릇궤기 또 생성 구워 놓고 오색채. 채소 혜놓곡.

@ 오색채 하면 보통 무슨 채 무슨 채 혜난마썸?

# 고사리, 콩나물, 호박. 또 무시 거 그디 이시메. 채소 혈 게. 그래서 오색 못 허민 삼색.

@ 오색 안 허민 삼색?

# 예. 오색 아녀민. 호박, 고사리, 콩나물게. 아니민 거기 곁들여 놓을 게 있어. 무슨 다른 것들. 겨난 이젠 그래서 오색채 혜 놓고. 아까 적갈, 생성 허곡 또 그 외로 허는 것 위로 적갈 삼중 허곡, 생성 구워 놓고. 또 떡은 친떡, 또 절벤, 솔벤, 중궤, 약궤. 또 로 우지시엔 행으네 지금 지름떡이주. 우지시. 그리고 그 위로 들어가는 건 제물이곡. 또 그런 거 무신 다과 ㄱ튼 거 들어가는 건 제물이곡.

@ 제물이렌 혜마썸?

# 예. 제물 들어가는 거. 그건 위로 올리는 거고 정식으로 그디 차리는 거. 또 차리는 거는 그렇고. 또 과일, 과일은 삼중 아니면 오중. 오중 아니민 칠중 그렇게 올리지.

@ 그 다음에 적도 있지 았우과예?

# 적게.

@ 적?

# 목적.

@ 목적?

# 목적, 두부적. 두부적은 중간이고 옛날은 목적이주.

@ 목은 무슨 걸로? 목적은?

# 옛날은이 목, 목은 모물로 해서. 지금은 다 짜가지고 다 청목을 허지. 모물을 해서 모물꺾을 다 썰. 모멸꺾루를 쭈엉 양반의 집인 요렇게, 요렇게 썰엉, 썰엉으네 나비적 이라고 영 베스베스 늑적은에 썰면 나비적이라고 요렇게 썰엉 요렇게 즐라불곡. 요렇게 즐라불민 양 편으로 나비적이 뒤여.

@ 나비적?

# 응. 그렇게 해서 아주 양반의 집인 그런 적을 허고, 호반인 집인 이렇게 네귀방장허 게 썰엉 이렇게 곧장허게 허곡. 그 적도 두 가지라나서.

@ 게민 아까 나비적은 모양이 어떻 뒤마심? 이렇게?

# 저 워 흐나하고 접시허고 칼 아정와.

@ 예.

(워랑 칼 찾음)

@ 나비적이런 현 거는 처음 들어반예.

# 양반의 집은, 호반의 집은 곧짜 허고. 양반의 집은 나비적.

@ 요즘은 다 뭤로 허잡아예?

# 요즘은 청목으로 허는다.

@ 네모나게 하잡아예? 요즘은예?

# 네모나게 다 허는다 옛날은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꺤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꺤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쪽 꺤영으네 다섯 점 아니민 일곱. 그렇게 해서 보통 다섯 개 꺤주. 그렇게 허는다 중간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나비적을. 그땐 호반의 집도 문 처. 진짜 양반의 집은 이 적 헤나서. 우린, 우리 할아버지네 광산 김칩의 스물네 대 천 금이런 행으네 절대로 이런 적 못허게 해서. 우리 할아버님 이실 때 경 행 꼭 이렇게

나비적을 헛주.

@ 나비적이구나예?

# 응. 나비적. 이제랑 이거 먹으라.

@ 나중에 먹으쿠다. 아 양반의 집은 나비적을 행 한 거라예. 나비적. 게민 나비적을 해서 묵을 그렇게 한 거라예? 묵을 되게 두껍게 썰겟다예?

# 모물꺾를 해서 냉수에 낳으네 막 젓엉 뉘게 캥으네 그 놈을 익도록 막 풀이 빠지게 젓어. 게영 그 놈을 낭푼이나 옛날, 옛날은 도구리에 낳 도구리에 영 평으네 손에 물 적정 문 문짝허게 개영 놈두민 내중 또 그 놈을 푹푹 썰엉은에 흐곡. 이 적살 남은 거 내불지 안 헤여. 다 따루 접시에 올리거든.

@ 적살은?

# 작살은. 수왕수왕 이쁘게 썰엉. (먹어봐. 산도룩허게. 게난 그렇게 헤영.)

@ 묵적 올리곡.

# 마농적.

@ 마농적?

# 옛날은 마농적, 패마농적 행 올려나서.

@ 마농도 올린다예. 그러면 그거 마농적은 어떤 식으로 헤마쌌?

# 마농적은 패마농을. 대산인 안 쓰곡 대산인 쓰질 안 허여. 생강이나 대산인 안 쓰곡. 이제 마농을 행으네 빨리로부터, 빨리로부터 요렇게 즈양 요 놈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개영 꼬댕이를 이레 감추거든. 그래서 경 해서 요렇게 해서 영 이제 요 놈을 꺾쟁이에 콕콕 꿰거든. 꿰영으네 이제 이 놈을 이제 요것에 다 양념을 현 거라이. 마농에. 마농에 양념을 행으네 이추룩행 꿰민 이제 요놈을 이제 모물꺾를 캥 알로롱허게 행 양념을 마농에 들어간 거니까 꼭꼭 적정은에 \*\*물영 따지우명 요 놈을 구워. 적썰에 낳. 적썰에 낳 요렇게 옛날은 요렇게 적썰에 두 개에 낳. 돌화리거든. 이디 불이거든. 이디 영 적성 이디 걸침 다 구워났저. 옛날은 이렇데 다 구워났저. 불화리에.

@ 계난 마농적도 올련예?

# 응응. 마농적. 마농적이 대부분이라났지.

@ 적을 그림 멧 가지 올려난 거라마쌌?

# 적도 삼종.

@ 게믄 적은 아까?

# 아니. 소고긴 벌써 삼종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로 올리는 건 거시기고.

@ 목적.

# 목적, 두부적.

@ 아까 마농적?

# 마농적.

@ 아 삼종. 아까 올려놓는?

# 응. 엇이민 헉나만도 올리고.

@ 예예. 그렇게 허곡. 그 다음에 떡 다섯 가지. 중궤, 약궤까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상에 올릴 거는 다 뒀신가? 그 다음에 밥, 국. 메하고 이제.

# 과질 ㄹ튼 건 옛날에 헤나서.

@ 과질예?

# 응. 과질은 집의서 허는 거난. 푼는 건 없곡. 과질 올리곡.

@ 예, 과질 올리곡예. 중궤, 약궤는 어떻게 헉니까?

# 중궤, 약궤는 모물, 그 이젠 그걸 헤영 다 찌는디 옛날은 이제 그 쓸을 곱아다가 시루에 쪄 친떡을 쪄 그놈을 막 쪄으네 이젠 밀어. 밀어그녕 이제 중궤, 약궤를 허는디. 중간에는 그냥 고루헤다가 이제 그 이만씩 돌렐 짓어서 이제 숲으저든. 숲에 숲아 건 쪄내민 그 놈을 막 쪄. 밀어. 이제 영 손으로 쪄서 밀으으네 도마에서 이렇게 밀어서

칼로 이렇게 쪽쪽 찰르거든. 찰르민 이젠 중궤렌 현 건 요렇게 질게이, 질게 요렇게 찰르곡 또 약궤엔 현 거는 흥끔 찰르게, 찰르게 찰르고. 허민 이건 중궤. 이건 중궤. 찰르민 건 약궤. 그러곡 또 솔변허곡 절변은 그걸 터. 그걸 트는 분이 이서. 이건 네궤방장허게 찰르는 거니까 칼로 찰르는데 다른 건 못 찰라. 경 허민 이제 솔변본 행 솔변 딱 뜨고 절변본 헤영 절변은 동그랑헌 거 두개 낱 누르뜨고. 경 허민 절변이곡 또 우지시렌 현 건 이젠 그런 분이 이시난 딱 멩 지름떡으로 허는다. 그뻘 그런 게 어시난 손으로 동그랑하게 행 영 납작하게 행으네 숲으나 찌나 행 그걸 문지르민 우지시렌 행 더끄는 거.

@ 맨 위에 허는 거?

# 예.

@ 은절미는 안 헤수가?

# 은절미는 모멸로.

@ 아, 은절미는 모멸로?

# 쓸로 안 헤영. 은절미는. 그만 사름이 돌아가민 영장밭디는 옛날은 맥일 게 엇이난 제주도는 모멸 밖에 없거든게. 모멸톨레라고 해서 똑 그 모멸톨레를 반 싱만 헤민 딱 두 개 맨들아.

@ 아, 반 싱에?

# 응. 흥 뉘민 네 개 만드는 거주게. 게민 모멸떡이, 모멸떡이 이만은 허거든. 막 크민 그걸 흥눔에를 주어. 한 사름이 반씩 노놉 먹는 거주. 부잣칩의는 경 허는다.

@ 흥눔에 허면 두 개 주는 거라예?

# 응. 흥눔에 두 개 줘. 경 안 허민 부잣칩은 경 헌디 가난한 집인 조금만씩 행 흥눔에로. 또 흥 되로 열 개도 만들곡, 다섯 개도 만들곡 행 이젠 흥눔에로 행으네 두 꺄 흥 사름씩 맥이는 거라. 영장 나민.

@ 영장 나민. 영장 나민?

# 응. 그렇게 장밭디. 그렇게 해서 그 밥을 맥이는 게 아니고 그걸 맥여. 경 허민 꺄

로 요기가 뉘곡 경 허는디 이제 그 또 만두, 물떡이렌 현 게 있어. 그것도 으라 가지라. 떡이.

@ 예. 떡 종류덜 다 곱아줘 봅서?

# 그 모멸떡은 이제 돌레떡이렌 행으네 동그랑허게 행 맥이는 건 돌레떡이렌 헤.

@ 예. 돌레떡.

# 돌레떡. 또 물떡이엔 현 거는 무수를 이제 맛있게 실 헤영 무수 맛있게 쉬 헤영으네 꼭꼭 담양으네 물떡 줘는 건 또 이제 그.

@ 요즘 그런 떡도 다 엇어져부령?

# 응. 물떡 줘는 건 이렇게 행으네 이제 바위를 영 잡아불지 안 헤영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즈으민 바위가 붕글붕글 뛰어 나와. 그렇게 해서 이제 쉬도 안 무치곡 소곱에 무수만 맛있게 담양으네 허민 이건 물떡이라. 또 이제 만두떡이 있어.

@ 물떡도 있고 만두떡도 있구나.

# 그럼 만두떡은 또 이제 그보단 흐쓸 즐게 헤여. 만두떡은 흐쓸 즐게 행으네 무술 담아도 뉘곡 풋쉬를 담아도 되곡 요렇게 만두떡을 요렇게 접는다. 요렇게 접으민 만두떡은 바위로, 바위로, 바위로 이렇게 이렇게 즈양 풋 숲양 풋쉬로 미청, 풋에 툃툃 무치민 이게 맛있는 만두떡이라.

@ 아, 만두떡은 밖에 풋을 무쳐예?

# 풋을 무쳐. 무치는 게 만두떡이라. 또 세미떡이라는데 있어. 세미떡은 이 우에 올리는 거이. 중괘, 약괘 우이 올리는 거이. 또 세미떡은 또 이보다 더 즐게 헤영, 세미떡에는 이제 무수를 안 놓는 거라이. 이렇게 헤영 풋쉬를 헤영 쪼끔씩 쪼끔씩 세미떡은 즐거든. 풋을 약간씩만 놓아. 흐끔씩만 놓아. 하영 안 놔. 세미떡은 즐거든. 요만큼씩만 헤여. 세미떡은 요만큼씩. 경 행 바위로 또 세미떡을 풋쉬만 쪼끔 녁영 즈양 쉬 안 무청 숲아낸 건 세미떡이라.

@ 숲아낸 건 세미떡?

# 응. 모멸떡이 네 가지주.

@ 돌레떡 잇고.

# 돌레떡도 바깳딤 쉬 안 무청. 또 이제 그냥 돌레떡은 아무 것도 안 놓은 거. 그거는 돌레떡이고. 또 이젠 물, 물만두라고 해서 물만두는 이제 이렇게 무수만 담양 이딜 곳으로 안 줍양 안으로 이렇게 줍는 게 물만두. 물만두고.

@ 물떡?

# 물떡. 물만두.

@ 물만두가 물떡. 그 다음 삶아내는 거우꽈?

# 응. 삶아낸 거. 거는 물만두. 물만두. 이제 기냥 만두는 요레 찻쉬 놓곡 바위로 속속 줍양으네 찻쉬 아닌 무수도 좋아. 찻 무치는 거. 바깳딤 무치는 걸 만두.

@ 세미떡은 그것보다 족게 헤가지고.

# 응. 쉬 안 무청 세미떡은 쉬 안 무치는 떡이라이. 쉬 무치민 만두가 뉘부는 거. 경허난 이젠 또 소곱에 찻쉬 쪼끔 낳으네 배꺸덜로 이쁘게 줍양으네 율로 거시기 낳으네 제 때에 꺸치 꺸는 거. 세미이.

@ 세미?

# 중꺸, 약꺸 우에 꺸는 거.

@ 거는 세미떡?

# 응. 중꺸 거 꺸영으네 우에 우지시 놓는 거.

@ 우지시?

# 응. 모꺸떡 네 가지주.

@ 네 가지. 게믄 영장꺸딤 강으네 아까 돌레떡 주는 그거를 뉘 꺸역 맥인덴? 꺸역?

# 그꺸 꺸역이라. 혼숨 맥인덴.

@ 꺸역 혼숨 맥인덴 헤마심?

# 혼 번 맥인다는 거를 혼숨 맥인덴 허는 거. 다 이거지.



@ 아, 혼숨 맥인다.

# 응.

@ 피력이렌도 곱고 혼숨 맥인दार도 곱으곡.

# 응. 혼숨 맥인다.

@ 혼숨 맥인다.

# 혼숨 츠린다. 맥인다.

@ 아, 그러면 아까 떡 나오니까 떡 이름도 너무 많은데 그 친떡예. 침떡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마썸?

# 그 친떡은 설귀렌도 허곡 친떡이렌도 허는디 친떡은 방앗공장에서 그루를 곱앙 옛 날은 도귀통에서 짚어. 쓸을 그 도귀통에서 뿔앙, 뿔아가지고.

@ 도귀통에서마썸?

# 도귀통. 방애. 방애.

@ 방애를 무슨 통이렌 헤마썸?

# 도귀, 도귀. 도귀통.

@ 도귀통이렌도 헤난마썸?

# 응.

@ 아, 방애를 도귀통이렌도 헤낫구나예?

# 응. 도귀통, 도귀통. 도귀통에서 도귀보면서 이렇게 방애를 짚으면 그 쓸이 못아질 거 아니라? 물컷당 못으면 그 놈을 꺼내명 체로 치곡 또 이제 그 놈을 또 도귀통에서 뿔앙 해서 다 힘들주게. 뿔아내민 그 그루에서 이제 그 제에 쓰는 거는 쉬를 안 놔. 흰, 백시리, 백시루로 나뉘먹기 좋게 허민 영 징을 놓젠 허민 놓젠 허민 춤 설탕이 귀혈 때니깐 백지를 영 깎아서. 영 베 먹기 좋게 놓앙으네 백지를 깎앙 징을 놓주만은 제 때에 징을 쓰는 것은 그냥 통시루로 툭 담앙으네 그냥 제에 쓰곡. 나뉘 먹는 건 그레

녹두쉬나 풋쉬나 헤영 징 나뉡 쩡, 찌서 베민 나뉡 먹곡, 갈라 먹곡. 그리고 제 때에 쓰는 건 아무 것도 놓지 안 헤영 백시리로.

@ 백시리는 제 때 허는 거는 안 짤랑 뉘마심? 올리는 거.

# 짤라야주.

@ 그거는 백지 낱 하나까.

# 아니. 그 상에 큰 상에 올리는 거는 조그만헌 시리에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는디 문제에.

@ 아, 그냥도 올리는구나예?

# 통차, 통차 쪼꼬만허게 허는 거. 그렇게 해서 썰지 안 행으네 요만이헌 시리에 올리 곡. 또 만일 썰게 되믄 다른 디 올리젠 허민 이 걸 꺼내지 말곡, 만일 이걸 그런 시루로 찢다 헤도 영 베어넣 딱딱 끊어불주.

@ 아, 거는 백시리로 그냥 상에 올리는 거.

# 응. 상에는 백시루로.

@ 그자 일반 쉬 낱 허는 이름은 따로 안 불러마심?

# 설귀게.

@ 그건 설귀렌 헤마심. 탄 거로는 안 부르고.

# 응. 엇어, 엇어. 시리떡이렌도 곱으고 설귀, 설귀.

@ 그 옛날에 그 쏘이 귀헌 때니까 쏘도 놓고 좁쌀도 낱도 떡을 헤나수게?

# 그렇쥌.

@ 그거는 무슨 떡?

# 아 그거는 쏘 놓고 떡 놓은 거는 영 두 가지 낱 허는 거난에 짓도 설귀.

@ 아 것도 설귀. 떡 그거 말앙 떡도 종류 이수과?

# 글썸, 난.

@ 만들었던 거. 밀가루로 허는 건 뭐우과?

# 전기. 모물ㄱ루로는 전기떡허곡 모물ㄱ루 아까 네 가지 했지이.

@ 예.

# 빙떡. 그거허고 영 또 지지는 거허고 허민 여섯 가진가 일곱 가지

@ 묵까지 허민.

# 또 밀가루로는 옛날은 밀가루를 집어서 헤영 ㄱ레로 글민 그 집이 누룩해서 밥 헤 가지고 누룩을 영 놔두민 그놈이 시구름허거든. 계민 그 놈을 툯툯 받쳐서 그 물에다 밀가루 체로 친 거를 영 들앙 놔두민 그 놈이 부각이 부껴. 그놈이 부각이 부끄민 이제 그놈을 이제 그 찹통에 다가 찹통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비뚜루 베영, 베영. 청은에 낭웨라고.

@ 낭웨?

# 낭웨. 그거 낭웨라고 질쩍질쩍이 행으네 솟지름에 맞추왕 이렇게 이렇게 궤민 침떡 ㄱ치 낭웨. 낭웨가 뉘곡. 또 동글랑허게 행으네 영 놓민 빵이 뉘는 거.

@ 그 빵은 그냥 빵이렌만 험니까?

# 빵.

@ 아, 낭웨허곡 빵.

# 낭웨는 질게 헤그네 끓은 것이 낭웨라. 낭웨, 낭웨로 행 그렇게 치민 질게 그렇게 허는디 지금도 실 거라. 서와리 우리 동세 그거 헤오는다. 경 허곡 동글락허게 영 놓민 봉글락허게 부글부글 뿌그주. 거 벳괴 모르키여.

@ 그 상웨떡이 그거우과?

# 응. 켄디 내중은 웨밀ㄱ르 진빵이여 무신 빵이여 막 놔왔주게. 호빵, 쥌빵이여 이름 이 오죽 하게. 빵에도 호빵이여 무신. 오죽. 하주게.

@ 옛날에 이렇게 한 거를 낭웨?

# 옛날 빵은 그것 뿐이라. 낭웨 허곡 빵.

@ 빵 허곡에?

# 지금은 뭐 소보루니 무시거 뭐 호떡이니 오죽 하서게. 지금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 것밖에 엇어낫주.

@ 게른 옛날에 큰일 헐 때도 집에서 떡 허영 헤시켜예? 그런 거.

# 옛날엔게 콩 글앙 두부도 허곡, 이제 그런 낭웨 ㄱ튼 거 칠 때 치곡 그것뿐이엇주게.

@ 아이고, 고맙수다. 오늘 말 많이 시켰네예.

## 8. 바느질 배우기

@ 오늘은예. 그 삼촌 바느질 배운 게 언제부터 배완마씨?

# 그 바느질이 역불 이거 배우젠 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집안에서 커가면서 그 하르버지가 저 행교엔 허민 제주도에 행교가 세 곤데라.

@ 예.

# 제주시 지금 여기 있는 행교, 대정고을 행교, 정의고을 행교, 그래서 그 이제 행교가 세 군덴디 양반덜이 그 일허는 지금 서울 ㄱ트민 종합청사 같은 그런 중요한 일 허는 디가 행교거든. 옛날은. 그래 그 쌍놈덜은 들어가지 못허고 양반덜만 들어가서 그 모든 행사를 허는 디가 행곤디. 그 행교에가 그 직책이 훈장, 장의, 그것이 제일 높은 직책이라.

@ 예.

# 행교에는.

@ 예.

# 그 다음은 그 문 직책이 잇거든. 이시난 하르버지가 그 행교에 다니니까 어머니가

하르버지 심바람을 허니까, 결혼허기 전이 이제 그 하르버지 옷을 같이 거들었거든. 이제 그때는 공부를 이제 아니 할 땐디. 이 여즈도 그 한문서당이엔 해근에 한문이나 쪼금 배우지 학교에는 못 다니는디 아버지가 어린 때 웨국에서 쭉 사니까, 이제 웨국에서 오라서 여자도 베와야 웬덴 학교엘 부찌니까, 하도 하르버지가 반대를 헛어. 반덜 허난 그땐 사학년 졸업이 잇고 육학년 졸업이 잇었어. 그땐 갓다오민 율로 요만이헌 몽탕이 있어. 몽탕.

@ 예. 몽탕.

# 응. 몽탕. 몽탕. 몽탕에다가 딱 오른쪽 다리를 올려놔그네 통설대가 이거 허나 반만은 허주. 옛날 하르버지덜 통설대가. 이렇게 물민. 경 허민 그 통설대로 때리지 아녀민 회초리 가정오렌 헤그네 때려. 막 이디가 북물어. 경 허민 막 난 울고 어머니는 “나 딸 학교에 다니지 말라. 다니지 말라.” 해서, 그 초등학교를 다 못 마쳐서 사학년 초등학교벧과 못 헛거든. 저 이제 일급 일기 초등학교를 제우 므창 이젠 걸 설렀는디 그제 아홉 술에 그땐 들어갔어.

@ 예.

# 만 아홉 술이민 열 술이지.

@ 예.

# 겨른 열으섯 술 뉘사 그땐 그 보통학교라고 헛지.

@ 예.

# 보통학교. 보통학교 졸업을 허는디. 이젠 그 하르버지가 흑골 못허게 헐라고 시집이라도 제게 보내야 뉘겿다고 허는디 마춤 우리 씨아버님네 우리집의 아방이 같이 학교에를 다녔거든. 날보다 하나 우이니까. 그래서 우리 씨집인 아덜이 다섯인디 큰아덜은 어평 허연 메누리가 므음에 안 맞앙 못허니까 일본으로 도망가불고. 아덜 다섯에 하나토 못 \*\*이니까 어려도 메누리 소리 들으켄 날 중진을 왓어. 이젠 흘 수 엇이 열으섯에 결혼을 허게 뉘거든. 결혼을 허게 뉘난 이제 아빠는 그때 공부할 때고. 그래서 그 씨집일 가난 또 씨아버지가, 행교에 다니는 씨아버지 옷을 허게 뉘주. 그래서 베운 거지. 아무 것도 뉘 영업으로나 바농질을 뉘 그런 거는 없었어. 그래서 어디 그 결혼 때에 그, 가정이 풍부헌 집인 도폭도 만들고 장옷도 만들고 집에서 만들어서 결혼을 헛거든. 그런데 그런 디서 초대허민 강 만들어 드리는 것벧과 돈 받아서는 영업을 안 허고. 그래서 허니까 아마 흘 열세 술 때부터 이제 뉘 겨주.

@ 열세 슬 때부터 바농질을 베운 거라예?

# 베운 거라. 그.

@ 어머니 허는 거.

# 어머니 허는 거 같이 손도움을 헛고. 헛거든. 어머니는 가정에 바쁘고 하르버지덜 뒷바라지허젠 허민 헛는디 열으섯에 시집을 가니까 또 이건 본격적으로 씨아버지 뒷바라지를 헛 거여. 그렇게 해서 베운 거여.

@ 그러면은 그때는 도복이니 장옷이니 이런 것들 만들고 그다음에 저고리 바지 치마 다 만든 거 아니라예?

# 예. 예. 그래서 그 그거는 그 하르버지광 씨아버지 입는 행교의 옷인데, 또 하르버지네가 우리보단 먼저 돌아가시지 안 허여게. 돌아가니까 염허는 것이 이제 다른 옷은 아니허고 당신네 헤 온 옷에 따른 게 지금의 그거여. 지금 딸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젠 그 다른 옷을 허니까 이제 이것도 다 배우게 뵈 거라. 그래서 그 하르버지네 염허는 거를 다 콧추니까 이게 호상 분간을 알게 뵈 거야.

@ 겨난 하르버지 돌아가실 때 갖추는 것을 본 거라예?

# 예. 갖추는 걸 그 내가 옷을 헛 줄 아니까 그걸 날 만들라고 헤여. 그 허는 선생이. 그 행교에 그 전부 염허는 선생이. 이제 이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거는 그 옷을 쪽 헛 줄 아니까 이것을 다 만들라. 그래서 만드는 게 그게 기초랏주.

@ 아. 그러면 씨아버지 돌아가실 때 옷을 다 만든 거네예?

# 예. 예. 다 그래서 부모네 돌아가도 이녁냥으로 다 만들아서 헛거든.

@ 아, 그러섯구나예?

# 그래서 헛 거주. 늬한테 배우고 무신 걸 얻곡 그런 거는 없고.

@ 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결혼식 헛 때 입었던 옷하고 그 다음에 부속 이런?

# 행교에 입는 옷.

@ 예.

# 행교 강 결혼식 헛 때 그 옷을 다 입거든.

@ 예.

# 그러니 그 행교에 입는 옷이 결혼식 할 때 그게 다 그 켈 큰 예복이니까 그거하고, 또 하르버지네 돌아가니까 그 옛날 분털은 다 츠레로 얌 허곡 다 그 나가젠 허민 만스.

@ 예.

# 만스라고 짝 들르민 신작로에 딱 동관 행 나가민 만스가 멧 장이민 요 집인 무신 생활을 했다, 요분은 어떤 직책에 잇다 다 알거든.

@ 만스만 봐도?

# 만스만 봐도. 만스만 보민 알아. 만스 보민 초레로 쭉 허게 허민 직장도 만스만 보민 알고, 또 그 가정도 알고, 또 그 분이 뵈을 헤낫다 현 것도. 그 양반의. 옛날은 양반, 호반 그게 으라 가지라. 양반 다음에도 이시니까. 그게 다 나타나. 만스로 나가는 거 보민. 장지 나가는 거 보민. 예 그런 거.

@ 그추룩 헤근에 이제 호상옷 허기 시작현 거 아니라예?

# 그래서 그르후제는 이제 결혼해서 념편네 공부가 스물셋까지 마쳤거든. 그래서 대동아전장 때부터 이제 피난 땡기명 공무원 생활을 했어. 공무원 생활을 허단 대동아전장 때에 아덜 성제 딸 허나에 삼 남매 일르고, 피난 땡기면서. 그제 제주도예 법이 원 잇엇거든. 일본놈 시절이니까. 법이 원 잇이니까 그 제주도예 이젠 그 일본놈 손 들른 다음에 법을 세울라고 허니까 제주도 공무원털은 다 매 맞고 다 도망갓어. 없엇어. 그냥 어찌 어찌 허난. 그래도 우리는 표선리서 호적계장광 그 처음은 그 공무원털 공출가는 게, 그때는 공출을 뽑앗어. 그기에 잇다가 그르후젠 호적만 쭉 말앗거든. 호적계에 호적원으로 잇엇는디 우리는 그디서 그 헤방이 딱 뵈니까 그 표선면사무소 앞이 큰 폭낭광 거리가 잇엇어. 스거리. 거기서 백성털이 요 부영봉 씨라근에 잘 뵈라 현 손바닥을 받았어. 우리가 그 박수를 받았는디. 그 제주도예 법이 없으니까 법을 세와야 현다는디 그때 법 세우는 게 저 묵은성 김영호 씨라고 그 분이 검살 허고 김태준 씨라고 잇엇어. 그 분이 판술 했어. 그러니 수사 볼 사름이 없어. 그 분을 그렇게 택헷는디 수사 볼 사름을 우리를 택 현 거라. 남군예. 그러니 이젠 아방은 어쩔 수 잇이 일로 오고 나는 피난을 땡기면서 그 아이털 다 일러부난 아파불고. 따신 이젠 어디 안 갈 걸로 헤연 표선리 잇는디 그 표선면에서 일로 산으로 오는 게 어디 봉개로 멩도암으로 막 산길로 와. 게민 씨어머님네가 소예 아덜 먹을 걸 신겨 아정 산으로 이덜, 제주실 나들 었어. 게난 하도 씨어머님 씨아버지네가 “가야 허주, 느가 아니 가문 안 된다.”고 쪼끔 나상허난 이덜 오난 사슴사건이 터졌어. 오는 헤예.

@ 예.

# 그래서 그 우린 옛날에 그 식도원 검찰청 관사라고, 석송여관이라고 그 일본놈 제일 높은 놈 살던 디가 있어. 저 칠성통.

@ 옛날 식도원 헤난 그 쪽에에?

#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식도원이 검찰청 법원 관사로 돼는디, 식도원이 이착 이층 건물은 이층인디 검찰청 관사가 돼고. 또 저쪽 남쪽에 단층은 법원 관사가 돼고. 이렇게 쪽허게 이렇게 이제 영 곱은자로 지어진 집인디, 이거는 검찰청 관사, 이거는 이렇게 해서 법원 관사 이 가운데 전부 공간 나무고. 이디는 다 나무고. 여긴 들어가는 마당이 있어. 그래서 그 식도원에서 우리가 춤 이제 우리가 생활을 쪽 허다가 말제엔 가인으로 불하 받았는디. 그렇게 해서 그디서 살고. 뭐 다 쫓아? 살아난 걸 다 쫓아야 돼나?

@ 예. 지난번에 살아난 것들도 얘기를 헤췄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아버지 옷 하면서 쪽 호상하고 인연을 맺은 거잖아에?

# 예. 예.

@ 쟁은에 호상옷 그추룩허다가, 지금, 지금 시청하고 해서?

# 그래도 그 부득헌 딴 이녁이 영업으론 아니 허는디 특별히 그 가정에, 아덜을 풀젠 허나 딸을 풀젠 허민 꼭 초청을 헤여. 그래서 이젠 바느질을 허는 집인 재단을 해서 요렇게 허라 해주곡, 또 그렇지 안 허면 내가 가서 쪼끔 도와주고 그랬지. 영업으로는 아니허곡 부득헌 자리에.

@ 바느질을 잘 하니까에?

# 예. 그래서 그거를 아니까. 그 옛날 거를 아니까. 그런 거.

@ 게른 옛날 바느질 헐 때 예, 옛날은 다 손바느질 헐잖아에?

# 예. 예.



## 9. 호상옷 짓기



[사진 3] 자로 호상의 치수를 재고 있는  
김경생

@ 손바놓질, 그 재단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행 게문 말로 옷을 한번 지어 봅주. 여자 저고리하고 치마 만드는 거에?

# 예.

@ 그거 한번 골아줍서. 말로.

# 말로?

@ 예. 저고리허젠 허면은 뭐 재단부터 시작해근에?

# 그래 요즘은, 옛날은, 지금은 전깃불이고 등핏불이 잇는다, 옛날은 요렇게, 요렇게 그 등잔 받침이엔 행 세왕 요디 등잔을 놔. 동글랑현 거.

@ 예.

# 게민 이걸 반양 바놓질을 해여. 옛날은, 게민 낮이는 옛날은 바쁘니까 그 우리 씨아 버님네도 농스를 많이 지니까 그래도 그 신바람허지, 그 낮에 앓앙 한걸히 바놓질 헐 틈이 없거든. 밤이 등잔불에.

@ 예.

# 등잔불에 앓아서 현 옷도 좁곡 그런 걸 허는다. 치마는, 이제 처음은 이젠 무신 옷을 먼저 만드느냐 허면 우선에 이제 여자로부터은 치메저고리 만들거든.

@ 예.

# 치마는 이제 지러기는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지러기. 키가 크면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작으면 자 아홉 치를 놓고. 또 이제 복 수를 짝그르게 헐다고 해서 일곱 폭. 일곱 폭으로 치마를 허여서. 이제 치마허고, 또 속치메는 이제 으섯 폭으로 해서 이제 혼 치반을 쪽르게 놔요.

@ 예.

# 것치메보단. 짜르게 놓고. 그래서 허리는 두 자를 놓지. 허리는 두 자. 곱은 기자 이

흔 쪽은 두 자, 흔 쪽은 흔 자. 곱 양착을. 한쪽 곱은 길게 이렇게 감는 거는 두 자 지러길 놓고 흔쪽은 흔 자 허민 이렇게 흔 불 감아다가 줄라메는 거. 그러면 치메는 저 포로 다 웨로 박고 단 박고 허리에 주름을 쯤쨌쨌 줍아서 이제 흔 아마 삼 센치쯤 주름을 줍아요.

@ 아. 허리에예?

# 허리에. 그 흔나 줍는 게. 그렇게 줍아가지고 그 일곱 폭을 두 자 하바로 만들어요. 허리를 줍으민.

@ 예.

# 그 놈을 삼 센치 줍으민 두 자 하바로 만들민 허리는 두 자로 드는 거야.

@ 응, 허리는 두 자구나예?

# 예. 허리는 두 자로 돌아요. 그래서 이제 치메를 입다가. 이제 치메 트리가 두 개가 돼니까 불편허거든. 그러니 어느 정도에 멧 십년이 흘르니까, 치메에 우라를 낚어.

@ 아.

# 치메로 안으로.

@ 안.

# 속치메를 안 허고. 안을 놔가지고 이제는 허리는 ㄱ치 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입기도 허였고.

@ 아, 맨 옛날에는 속치메 입영 것치마를 헛는데.

# 예. 예.

@ 이제는 두 개를 부쳐분 거구나예?

# 예. 예. 그렇게 허고. 또 저고리는 이제 중간에 죽았다 컷다 허는디 옛날은 저고릴 크게 입었어. 이제 기러기는 보통 이제 여덟 치 반을 놓고, 또 이제 품은 보통으로 흔 자를 놔. 그래 스밋 지러기도 흔 잘 놔. 하바는, 스밋 지러기도 하바도 흔 자를 놓아. 하바도 흔 자, 기장도 흔 자. 그래서 해서 저고리를 허는디.

@ 하바는 일로부터 일로까지를.

# 예. 예. 이거 하바. 기장은 지러기.

@ 지러기에?

#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허는디 그 옛날은 낫동을 다 낫어.

@ 아, 낫동은?

# 물색으로. 물색으로 낫동 놓고, 짓도 물색으로 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옷도 그렇고.

@ 아.

# 이제 그런디 이제 그렇게 저고리를 해여서, 옛날은 이디 그 저 뭐냐? 저고리는 동전을 들고 적삼은 동전을 안 들었어. 그렇게 해서 헌디 적삼은 헐 때 꼭, 저고리 보듬 여덟 치민 적삼은 일곱 치 다 푼을 놓아요. 저고리 소곱에 항상 감춰져야 뉘니까.

@ 일곱치 닷 푼.

# 예.

@ 예.

# 그래서 만들민 적삼은 여기가 찢어질까봐 훌 거니까 젓강바데.

@ 예.

# 이 뒤도 푼 나민 이디가 문저 허니까 짓바데.

@ 짓바데.

# 적삼에는 짓바데, 젓강바데 놓고 곱 잡아가지고 동근술 허고.

@ 아까 무시거 마쌌?

# 동근술.

@ 동근술은 뭐우광?

# 동근술이렌 현 건 이렇게 베껏 딜로 호아서 또 이렇게 또 두 불 놔서 또 이렇게 해서 베껏딜로 박는 거. 세 번을 박는 거.

@ 아, 그거를 동근술이렌 험니까?

# 동근술이라고 해.

@ 동그렇게 말양으네 박으니까 그런 거 답다예?

# 예. 세 번을 박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 불 짝 박아. 이렇게 흔 불 짝 박아. 이젠 베껏딜로 뒤집어서 이렇게 베껏딜로 쪽 박으면 이게 동근술이거든.

@ 아아.

# 그래서 적삼은 그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저구리, 치마 만들었거든.

@ 예.

#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단속곳이라고 잇었어. 옛날은. 단속곳은 어떤 단속곳이나 허면 그 여즈딜이 자꾸 옷을 느라서 소변을 보기가 뭐 허니까, 이제 그 일을 헐라면 아주 이 알을 널르게, 이 알을 널르게 허민 이렇게 걷어다가 알로 영 궁둥이를 들러서 소변 보게.

@ 아.

# 그래서 알을, 그 치메가 만일, 치메 하바가[타바가] 일곱 폭이민 그 놈으로 반을 찼라가지고 알로 단을 놔서 그러면 아주 널르거든. 그계.

@ 예. 예.

# 널르민 이제 그렇게 해서 단속곳을 입는다, 그 단속곳이 팽상시 나들이 때만 입는 게 아니고 그계 일 헐 때도 입젠 허니까 붕탕해서 굿거든.

@ 예.

# 그러니 그 놈을 길게 해서 알로 쯤불쯤불쯤불 그 놈을 일 헐 때는 이렇게 췌아서 일로 다님을 쳐요.

@ 예.

# 그래서 그게 단속곳이라. 단속곳이라고 그 것을 쪽 만들곡. 그 다음에 바지, 중의는 이제 치메보다 쪽르게 기장을 언매 치 놓으냐 허믄 이제 자 여털 치를 놔요. 두 자를 안 놔.

@ 바지나 중의나 다예?

# 응. 아니 중의는 자 일곱 치를 놓고, 혼 치 차이로. 향시 혼 치 차이로. 그렇게 해서 그 놈은 물라가지고 밋을 영 가달을 터요. 알을 터서 굴른 밋을 밋정 우이 입어둬서도 이렇게 베르쌍 앓앙 오줍을 싸도 손으로 영 돌리게끔. 그렇게 해서 허곡. 그 우이 단속곳을 입어보니까 이게 불편허거든. 불편허니 그르후젠 이젠 단속곳은 이제 떼여서 노동복으로 허고. 바지, 중의는 호상으로 헛어.

@ 아아.

# 그래서 그러고, 또 소중의는 그 젤 소곱에 입는 소중의가 잇지 아녀.

@ 예.

# 그것이 웃웃이고, 소중의는 전부가 일곱 자를 놔요. 일곱 자 지러기민 녁 자는 이몸으로 해서 딱 고비쳐서 녁 자허고, 또 반 자는 이디 놓는 게 잇어요. 소중의바데라고.

@ 예예.

# 그 놈 놓고, 두 자는 허리 허고 해서 딱 일곱 자로만 하나를 멘들어야 되는 거야. 큰 사람은 쪼끔 그디서 줄이고, 작은 사람은 해서. 이제 중간에는 헤너덜이 입젠 허니까 젓을 막고 소중의 곱을 막 크게 헤영 헛는디 양반의 집은 그걸 안 입엇어. 중간엔 영업헐라니까 옷 벗어서 소중의 입으면 양반이 안 웬다고 해서 우린 물질을 못 베왔거든. 이젠 물질을 쌍사람이 돈 벌라고 허는 거라고 허민 소중의 허리도 족게 해서 요디만 톡 갈라가지고 몸뚱이만 갈마서 요디 톡허게시리 이제 단추나 그 곱이나 들앙 허는디. 그 물질을 허는 디는 그 허리를 넓게 해서 젓꺄지 다 싸거든. 젓꺄지 다 싸거든. 이디도 벌막작을. 막아지게 세 개씩을 들야. 켜디 양반덜이 입는 거는 딱 이디 하나만 들고.

@ 이디는 이름이 뭐우과?

# 옆이게. 윗. 윗. 윗.

@ 옆.

# 응. 옆. 요디는 영 끼우는 거고, 여기는 튼 거거든. 트니까 갈무리허는 거. 옆갈무리. 이제 그렇게 해서 소중의 허리도 우선 이 몸만, 배만 감추는 걸로 그렇게 해서 소중의는 그러든 딱 우리가 양반덜이 입는 건 일곱 자민 넉넉허거든. 큰 사름이 입는 거는. 일곱 자민 작은 사름은 조금 줄이면서 그것에서 허곡. 그래서 소중의는 다 똬 거고. 또 우에는 그 적삼. 중의, 적삼, 치매, 저고리허민, 저구리를 이제 그 두 겹 해요. 여자는 저고리 둘을 해요. 둘 해서 속저고리, 겹저고리 해서 꿇동 놓고 짓 들고 허민 이제 옷은 다 똬거든. 헌디 이, 이거는 죽어서 입는 게 아니고 과도라고.

@ 예. 과도.

# 치마 입고 허리띠지. 이렇다면, 치매 입고 저고리 입은디 옛날은 동굴라져. 이디가, 치매를 우트레 안 입거든. 저고리.

@ 안 입으니까.

# 젓 우이 안 입으니까 알로 입으니까 동굴라지민 허리띠를, 또 만일 멩지민 두 폭 해서 두 자 두 치를 놔. 영 톱 가두와지게.

@ 예.

# 그래서 허민 넉 자 가웃이 똬든 딱 안팎 곱집어근에 허리띠를 해서 딱 이디를 메여. 딱 중그민 허리띠 메는 거 허고. 이제 허리띠 메여서. 이제 그 우의 장옷이 들어가거든. 장옷 하나만. 장옷은 멩 치를 놓는냐 허면은 두 자, 큰 사름 표준으로 두 자 두 치 닷푼 기장을. 경 허민 이제 넉 자 가웃이민 혼번을 고비치고 해서 안팎 곱집어. 이제 또 스미도 이제 자 세 치를 놔요. 또 알도 이제 혼 자를 놔요. 혼 자가 아니주. 영 고비치민 이제 자 여덜 치가 똬주. 아홉 치씩 놓민. 게민 막 영 굴트 거든. 그러면 여기는 한숨이라고. 장옷에다가 똬 걸 돌아요. 그 꿇동이 아니고 한숨을 똬 기지로. 색 다른 걸로 한숨 들고. 그 짓도 똬 걸로 물색으로 짓도 허고 이제 곱도 그래서 이딘 한숨을 들민 이렇게 입으면 풀이 가려와져서 손이 안 보이거든. 안 보이고. 옛날은 양반덜이 어디 나가젠 허민 장옷을 써요. 머리에.

@ 예예.

# 장옷을 쓰고, 호반덜은 치마, 치마나 적삼을 이렇게 쓰고, 막 늦인 사름은 아무 것도 못 쓰거든. 쓸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거 옷 입은 것과 쓴 걸 보민 양반, 호반을 아

는다, 그래서 그 이렇게 장옷 띠를, 그 혼섬을 들민 이게 너울 행 써도 홀트고 또 이렇게 놔도, 그래서 장옷에 한숨을 드는다. 그게 이 보통 결혼하고 혈 때 입는 건디. 수의는 것에 보충이 뵈이 뵈느냐 허면, 그것은 다 아까 내가 다 곁은 것이 다 수의에 들어가는 건디, 수의는 사람이 돌아가면 이 모든 귀, 코, 입이 일로 나오는 물이 잇어요. 속에 물이 다 글로 나와요. 돌아가면, 그게 일반은 물인디, 사람이 목숨이 엇이민 이게 다 피라. 피가 막 쏘아지민 그 옷이 아무 걸 곤 걸 입어도 범벅이 뵈서 안 뵈거든. 그러니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선 돌아가민 모욕 시켜서 옷 입히고, 이거를 다 설맹지로 막아요. 고망을 꼭꼭 설맹지로. 설맹지로 막아가지고 엄도라 현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엄도를 이렇게 놓민 양펜이 이렇게 이제 영 풀을 둔정 이게 네 곱씩을 다 잡아. 영 허민 머리를 이렇게 놔서 요거를 이렇게 더끄고 이렇게 더끄민 불써 네 곱을 뵈는 거 거든.

@ 예예.

# 이거 두 곱짜리 허민 으섯 곱이 뵈거든. 얼굴에, 얼굴에 영허민 이게 다 그 설맹지로 고망 막아서 이 알턱 설맹지로 툭 받아가지고 이제 설맹지 머리에 툭 감양 검은호상을 툭 썩와불민 이젠 검은호상으로 얼굴 가리우는 거라. 뜯 게 아니고, 가리와불민 그 피도 뵈겏디레 피지 앓고 이게 가두와지는 거라. 경 허민 깨끗허게 얼굴만 검은호상이 뵈는 거지 몸에 그게 피지 앓거든. 경해서 그걸 허기 위해서 이젠 검은호상은 허는 거고.

@ 으음.

# 또 그 가운데 무끄는 거는, 사람이 돌아가민 뼈가 문 깃들깃들 오그라져요.

@ 예예.

# 그러면 사름을 꼭꼭 폐우기 위해서 초수렴을 혈 때 이렇게 꼭꼭꼭꼭 그 사름이 목숨이 떨어지민 다 이렇게 췌여서 곧짜허게 발도 곧짜허게 놓곡 헤영 그 알룬 \*\*으로나 툭툭 졸라메요. 멧 군데. 졸라메민 뼈가 못 오그라지거든. 이제 경 아녀민 관에 들여놓젠 허민 막 바득바득 뼈가 뼈짜헤불영 안 뵈요. 겨난 경허기 위해서 이제 그 초수렴을 그렇게 행 낫당. 대수렴은 또 이젠 초수렴엔 그 옷을 안 입정 그 거꾸로 곁앓네. 그건 대소렴이고, 사람이 목숨이 툭 떨어지민 우선 그 목숨이 떨어져간다 혈 땀 뵈완에라도 입원허민 그 옷은 뵈겨두고 초수렴에 입지는 옷이 잇어.

@ 아.

# 건 아무 옷이나. 깨끗한 거 이녀 입던 거. 깨끗한 거 이녀 입던 거 특히게 입정 아까 식으로 네 방(\*)으로 톡 졸라맹 놔두면, 또 대렴을 허젠 허민 날을 받거든. 날 받았 대렴을 헐 땀 그 옷을 초수렴에 헤난 건 옛날은 다 어려우니까 그 옷은 빨앙 애기덜이 입어. 초수렴에 입정 낭. 이젠 다 슬아부는다. 이제 애기덜이 입는 디 그 옷을 다 뱃겨두고 모욕 다 상물 숲앙 이제 애기덜이 모욕 싹 행 그 아까 소중한. 이제 춤 그 알이라도 브릴까봐 이제 소중한 딱 입지만, 그 다음엔 염허는 사름이 이제 전부 그 옷 입고 아까 그 헌 호상을 다 입혀서. 호상을 입혀가지고 이제 지금은 대림포라고 다 큰 걸 써서. 옛날은 그게 없었어. 그냥 베로. 베로 이렇게 질베 영 허영 농곡 읍으로 이제 베 으섯 개를 딱 사름 하나민 으섯 겹 놔. 베. 으섯 겹 낱 그 놈을 으섯 개를 열두 개에 찢어.

@ 예.

# 찢어가지고 으섯 개를 다 찢이민 그게 열둘이 뉘민 열두 메계를 무껴요. 사름이 혼 사름 무끄는디 열두 메계라.

@ 아 열두 메계에?

# 응. 열두 메계. 딱 열두 무게 이상도 안 무끄꼭 덜도 안 무끄고 베 낱 질베 놓고 허민 그게 다 사름이 가리왕 싸져.

@ 게난 무사 열두 메계를 무끄는 건고예?

# 그게 옛날부터 사름 하나에 열두 무게를 무껴야만이 그 베에 온 몸이 다 감춰지게 뻬거든. 그러니까 온몸에 더 해도 너무 좇아도 안 뉘고, 드물어도 안 뉘고 사름 몸에 맞게끔 허는 게 열두 메계로 지정이 뉘 거라. 지정이 뉘니까 그 열두 메계에엔 헌 거는 아주 옛날부터 이게 고정적이라.

@ 예.

# 이제까지 무끄는 식이. 경 허니 그거를 이제 열두 메겔 무껴서 이제, 관은 다 그 무껴 논 것에 재여서 관을 짜거든. 짜민 걸 관에 들여 놓민. 그 관이 흔들흔들허민 사람이 이레 자우라지민 관이 자우라지민 이레 미끄러져 저레 미끄러지지 아녀. 그러면 옛날은 옷이 잇는 분은 옷으로 보공을 놓고, 경 아녀민 산디찍을 독독독 쳐서. 그 이젠 기냥 놔도 던드렁에서 독독독 두드려. 복삭허게. 두드려서 그 놈을 창호지에나 백지에나 뵤뵤 싸가지고 옆이 다 꼭꼭 쥘허. 그 몸을 흔들지 아녀게. 흔들지 아녀게 쥘형 누저왕 이제 그 우이는 그 이젠, 관을 이젠 열었으네 메겔 다 클러. 애기덜이.



@ 아아.

# 열두 무게 묶은 걸 다 클러붙어야 펜안철 거 아니라. 문 열두 무게 무껴서 딱 맞게 이 관에 펜안허게 놓기 위해 무끄는 거주 저승을 무껍 가질 안 허거든. 무껴붙민 안 뉘난. 그젠 애기덜이 큰 상제로부터 우로 즈근즈근 알까지 다 풀민 이제는 사름이 한 거허게 이젠 매장만 뉘 거 아니라게. 옆이 다 이젠 무끈 걸 옆에는 베는 읍디레 놔뉘 무끄민 이제 그 옆에는 산디쪽으로 옆에 꼭꼭 막아서. 그 우에는 춤 예를 들영 요새는 다라니주만 옛날은 입던 옷이라도 깨끗헌 거 이시믄 그 우의 놓고 애기덜이 손수건 하나씩을 다 해서 그 우의 놔요.

@ 아아.

# 손수건을. 요새 다라니가 잇엇주만 옛날 다라니 없는 때는 지전 들랑. 그 종이 지전 들랑 또 흐끔씩 놓고 이제 손수건 하나씩을 가면서 씌셴허민. 가당으네 영가가 어떻허는지는 몰라도. 어디 또 누게가 이제 가는 길을 막으민 이 손수건이라도 하나 쉼 쓰라고 돈 흐끔허곡 행 줘뉘 선사허렌. 그래서 애기덜이 다 손수건 놓고 이제 그 돈 다라니 지전 들랑. 이젠 다 다라니지. 이젠 다라니 흐 권씩 다 놓는다. 가면서 그 춤 영 친헌 사름이라도 봐지믄 요거 흐나라도 줄 수도 잇고 또 땀도 다끄렌 경 행 놓는 식이라. 경 행 이젠 그 놈을 다 낱 이젠 마지막 개판을 더끌 댐 애기덜 다 보렌 헤그네 개판 더끄거든. 개판 덧껍 그 관이 물러날까봐 그 관을 무껴. 무끄민 지금은 꼭 그 관포를 장의사에서 허지만 옛날은 더프던 이불. 이불이나 아니라시믄 깨끗헌 거 그 우로 더퍼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갈 때는 이제 멩전허고 베 석 자 헤영 멩전에 딱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갈 댐 원미 쑤영. 이제 그 군줄덜이라도 흐 그릇씩 영 먹으렌. 이제 만일 예를 들영 우리가 장스밧디 나갈 때민 수건 하나씩이라도 주민 좋아허지 아녀게. 나가는다. 그런 식이야 원미 쑤영으네 다 흐직씩 다 캐우려두고. 또 지전 행 쫓끔씩 흘리멍 옛날은 이제 가근에 이제 장스허고 그자 그런 식이주. 그래서 옛날은 산에 가서. 이제 그 우선 가민 영가 앞이 잔 올령 제 지나곡.

@ 예.

# 또 하관 헌젠 허민 하관제엔 행은에 또 제 지나곡. 또 다허민 이제 초우제엔 행으네 마지막 제 지나고 것만 허민 집이 오랑 뒷날 아척 제 지나고 또 뒷날 제 지나고 삼우제까지 사흘을 제 지나요. 사흘 지낭 초흐루허고 보름허고 이제 일년허고 삼년허고. 그 옛날은 다 묘 앞이 묘 짓어서, 그 집 짓어서 삼년 뵈을 헤낫지만은 그런 거는 우리 후에는 없어지고.

@ 없어지고.

# 예. 없어지고. 그 일 안 허건지가 거자 백년 뒤실 거여. 그러면 그렇게 뒤고. 이제 그 옛날, 그 아주 뭇헌 집덜은 사당을 짓어요.

@ 예예.

# 이녁 초상덜 모이는다. 전부 사당 짓어가지고 옛 조상으로부터 차례차례로 그디 앉져서 무슨 일을 허젠 허나 괴로운 일이 시나 의논할 일이 시민 사당에 강 절허곡. 축원허곡 허는디 그 사당이 우리나라에 없어진 것도 아마 한 백년 가차암실 거여.

@ 예예.

# 그렇게 해서 그르후젠 이제 츠츠 헤가니 이제 삼년 허어나건 디도 이거 흥 삼년상 헌 디도 삼십 년뻘어. 삼십년 전까지도 삼년을 헛는다. 우리집의 어른이 돌아가건디 이게 삼십일년인디, 그때도 상식허고 삼년 허는 디가 잇엇어.

@ 예예.

# 게도 우리도 쪽 방 허나에서 상식 거려 놓고 이제 삼년상을 헛는다. 츠침츠침 그르후젠 일년이라. 아 이젠 일년 허당 스십구제에 탈상이 뒤감서. 그러니 앞으로는, 춤 어떤 시국이 뵈지 모르주만은 이젠 세상이 다 바파지니까, 뭇 이런 게 다 묵어지고, 옛날 것이 뒤고 경 허나마 기록이엔 헌 것은 원 없어지민 안 뵈는 거주.

@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 예.

@ 기록형 뉘두면. 예전에는 이랬구나 허는 거구나.

# 예. 옛날은 복옷도 쪽 그 아덜 상제는 건대 쓰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민 아버진 뭇 음이 크다고 해서 수리대. 그 대.

@ 왕대.

# 왕대. 왕대로 지팽일 허고. 어머니는 슬망슬망 막 즌셈이 많앗다고 해서 머귀냥으로 이제 허고. 북시미 허곡 허민. 아덜이 다섯이민 방장대도 다섯 개, 북시미도 다섯 개. 또 다 그 이룬디 부찌는 옷이고, 무시거고 다 틀렸지. 겐디 이젠 기자 보통이여 다. 옛

날은 그 남주 상제는 소단으로 해서 이덜 좁게 허고, 사위나 손지는 떡을 반양 놓을 디가 엇이니 떡 받는 거라고 해서 우머닐 들렸어. 겐디 이젠 아덜이고 사위고 손지고 다 우머니라. 그리고 또 이제 여즈도, 여즈 상젠 꼭 그날부터 흰머리창을 들고, 손지는 씨을 들었어. 손지덜은.

@ 아, 손지는 씨을 들고.

# 며느리와 딸은 머리창을 들고. 그렇게 해서 꼭 그 머리창 빵 놔뒤근에, 또 이제 날마다 곶양 새 머리창 들이꼭. 그거는 잘 곱게 낫다가 이제 믱칠 때에는 슬고 그랬는디. 지금은 씨이 어디 잇고 머리창도 그자 그때나 졸라멤신가 몰라. 그러니 세상이 다 바파지고. 옛날이야 춤 복친덜토 다 이제 그 차례가 잇어. 이제 손지덜도 다. 그, 쥬 이제 그 장손은 상복을 아덜 대신 해주고.

@ 예에.

# 또 아덜이 없었은에 사위가 엇이나 죽어불어도 그 대신에 대릴 놔서 옷을 해주고. 또 이제 형제간덜토 다 이제 치마로 허고. 또 손지라근에, 손지가 념영 스춘이 넘어가민 또 그자 간단허게 이게 무시 거 복을 주는디. 이젠 그자 뉘는냥 그냥 밋밋 혼 도름. 치메고 몸빼고. 옷음. 다 슬아불꼭.

@ 옛날에는 그런 상복 가져갖고 입고 하고 했는디.

# 빌어당 입엇다고. 상복도 헤나민 그 집이 헤 낭 상복이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민, 어머니 돌아가민 입젠 놔두민 똥 디션 상복이 없거든. 빌어당도 입엇다고. 상복을.

@ 겐디 이제는 뭐예?

# 아이고. 당추. 빌어당도 입엇다고. 상복을 슬 수가 없주. 우리도 옛날에 그 상복 문 딱 헤영 빨앙 그 놉 다 세경 평풍집도 다 멘들고 젯상 싸는 것도 멘들고. 이젠 그런 거 다 던져부러.

@ 우리도 이제 상복헤난 거 베, 요 우에 더끄는 거예. 이런 거 어머니도 만들어주고 헤나신디.

# 예. 겐디 이제는 그런게 다 바파져부난. 옛날식이라는 게 원 없주게. 엇어.

## 10. 호상옷 부분 명칭(2)

@ 경 해도 이제 아까 그렇게 옷들을 만들었잖아. 옷 만들어도 그 부분 부분 이름들이 있지. 만약에 저고리가 이렇게 헤그네 저고리가 있으면 여기는 뭐여, 이름들?

# 이름 잇주.

@ 예. 이렇게 허민 소미, 아까 꿏동 이렇게 단덴 헛잡아예?

# 응. 꿏동. 또.

@ 이거는 뭐우광? 여기 저고리 헛 때 이런. 여기 앞에 허고 뒤에. 그림이 워낙 잘 그려.

# 아, 이게 저구리지?

@ 예.

# 요게 저구리니까 요디 압섭이지. 압섭. 밧압섭. 요건 밧압섭.

@ 요기는 밧압섭.

# 요기는 안압섭.

@ 이건 안압섭.

# 밧압섭, 안압섭. 밧압섭은 헛쉴 넓게 허고 안압섭은 족게 허곡. 또 이젠 이젠 짓이 주. 짓 영 헤영 요건 짓.

@ 짓.

# 짓. 또 이다음엔 곶이지. 곶. 요거.

@ 여기는 영형으네 곶예?

# 응. 곶.

@ 이건 곶.

# 응.

@ 여기는 뭘우강? 옆에.

# 진동.

@ 여기가 진동이우가?

# 응. 진동.

@ 진동이 있고. 여기는?

# 아니, 아니. 두 개가 아니주. 하나주. 저고린.

@ 이거는 이렇게 뒤패아예.

# 요건 진동. 요거 요거.

@ 여기는 진동예?

# 이견 스미.

@ 이견 스미.

# 질스미.

@ 이 끝이 질스미렌 험니까?

# 응. 이 끝에 부리.

@ 아, 부리를 질스미렌 허는 거우과?

# 응. 질스미.

@ 질스미.

# 질스미.

@ 질스미.

# 이거는 일로 이 사이는 스미.

@ 여기는 스미.

# 요건 짓.

@ 이건 짓.

# 밧압섭.

@ 여기는 안압섭.

# 안압섭.

@ 안압섭.

# 요거는 밧압섭.

@ 여기는 밧압섭 안압섭예?

# 웃고름.

@ 웃고름예?

# 응. 또 이 소곰에 짓곰.

@ 짓곰이 또 잇는 거예? 안에 건예?

# 응.

@ 짓곰. 짓곰은 옷 속으로.

# 그러면 다 뉘는 거.

@ 이 짓곰은 압섭 안으로 잇는 거우과?

# 예. 예. 압섭.

@ 압섭 안으로 짓곰 잇는 거고. 질스미 마랑 여기 물색으로 영 헛덴.

# 그게 질스미주.

@ 아.

# 콧등.

@ 콧등. 콧등이 질스미 같은 말이우과?

# 응. 콧등이엔 해도 뉘고. 질스미렌 해도 뉘 거. 질스미렌 해도 뉘고.

@ 아 여기가 콧등이구나.

# 응. 콧등.

@ 게문 이건 저고리고 그다음에 치마 이렇게 뉘잖아예? 이렇게 하면 여기.

# 여기 허리.

@ 여기는 허리 뉘는 거잖아예?

# 응. 허리.

@ 그 다음에 이, 여기는 뉘우과? 밑에는.

# 단.

@ 이거는 단이지예?

# 응.

@ 이 옆에는?

# 옆의는 실밥.

@ 그냥 실밥이렌만?

# 응. 실밥. 영 박는 거니까 실밥.

@ 아, 실밥으로 행 박고.

# 실밥으로 행 박는 거.

@ 여기는?

# 것도 다 양쪽 박는 거. 실밥.

@ 양쪽 다.

# 실밥.

@ 여기는 뭐런 헝니까?

# 그딤 아무 것도 아닌 치마폭.

@ 이건 치마폭.

# 응.

@ 이건 치마폭이고.

# 곱만 그레 부찌민 뵈 거.

@ 곱은 어디 부칠 거우과?

# 곱은 영 돌아오랑 한 쪽에.

@ 여기 가예?

# 응. 질게 헝 두 개.

@ 두 개?

# 응.

@ 이거는 무슨 곱이렌 헝니까?

# 이거 긴곱, 이건 짝른곱. 요 곱으로 둘러당으네 요디 낱 요곱 영 고비청 졸라메는 거.

@ 아 이건 짝른곱 진곱예?

# 응.



@ 여기는 허리. 이거는 허리렌 허고. 여기 영 주름 앓졌지예?

# 주름. 주름.

@ 주름예. 이거는 그냥 주름이렌 헤 마쌌?

# 예. 예. 주름.

@ 아까 주름허는 거고. 이 여기는 무슨 허리곰 이런 말은 안 험니까? 치마예?

# 허리, 허리. 이거 허리.

@ 허리고.

# 허리는 요 곰으로 둘러당, 두으로 둘러당 요디 오랑 요 곰 이렇게 고비청 즐라메는 거.

@ 아, 게문 우리 저고리에도 곰 두 개 아니라예?

# 예, 예.

@ 그것도 진곰, 찻른곰이렌 헤마쌌?

# 예. 예. 진곰, 찻른곰.

@ 진곰, 찻른곰 이렇게 뉘고.

# 예.

@ 남자 저고리도 이름이 똑 ㄱ릅니까?

# 그렇지. 남자 저고리에는 꾀동이 없어.

@ 게민 질스미가 어신 거?

# 아니. 질스민 잇는데.

@ 질스미 꾀을 질소미렌 허고.

# 아니. 스미가 쪼르면 이거 잇는 거는 질스미고, 또 물색으로 놓는 거는 꾀동이고.

@ 아아 즐랑으네 더.

# 잇는 건 질소미고.

@ 질소미고예?

# 지러기로 잇는 건 질소미고. 물색으로 놓는 거는 곳동이고.

@ 곳동이고. 남자 것도 마찬가지로겄다예? 한 쪽으로 요렇게 가지는 안 허니까예?

# 응.

@ 이몸은 어디우과?

# 이몸은 이거, 이거. 전체가 이몸이거든. 전체가.

@ 아, 아 여기가 이몸이구나예?

# 예.

@ 뒤에도 마찬가지로?

# 예.

@ 품. 우리 품 말하는 게 이몸이다예?

# 예. 예. 예.

@ 그러면 남자는 곳동만 없고 이름은 똑 ㄱ타예?

# 예. 질스미는 잇고.

@ 질스미는 잇고예?

# 응. 질스미는 엇이민 안 뉘주게.

@ 응. 응. 질스미는 잇고. 그 다음에 바지가 어디가 족은 바진가?

# 이건 여자 거라, 남자 거라?

@ 여자 바지하고 이건 여자 바지렌 허게예. 여자 거허고도 틀립니까?

# 그렇주. 아주.

@ 그림을 틀리게 그려부니까.

# 틀리고 말고.

@ 여자 바지는 어떻 험니까?

# 여즈 바지는 음.

@ 그림이 틀렸지예? 선생님이 잘 그려줍서?

# 여즈 바지는. ㄱ만시라 보저.

@ 일로 새로?

# 이게 여즈 바진디.

@ 예.

# 올로다 밋을 놔요. 여즈 바지에다가 요레. 요것이 밋이라.

@ 이견 밋예?

# 응. 밋. 이게 양 쪽이라. 양 쪽으로 밋을 이렇게 놔.

@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 예.

@ 밋이 두 개다예?

# 예. 밋이 두 개라.

@ 밋이 두 개예.

# 예. 밋이 두 개니까 이 밋을 요렇게 꼬비쳐서 이렇게 바지는 알은 벌겨지고 이던 쪼라지게 입는 거라.

@ 게믄 일로부터 이까지는 다 쥐마쌈? 밋은?

# 밋이 이렇다믄 예, 이렇게 넓게 두 꺄 허거든.

@ 예예.

# 경 허민 요디 혼착 부치고 이제 요렇게 혼착 부찌고 해서 이딘 터부는 거라. 이건 터불고.

@ 아아 터불고.

# 요거 허민 요것에 두 개가 합쳐지는 거라. 요 밋 두 개가 아주 이딜 터불민, 텅 밋 두 개가 이몸에 부찌는 거거든.

@ 예.

# 이몸에 부찌민 이게 톡 시꾸아져서 요거 두 개가 시꾸아져야 이 강알이 톡 시꾸아지는 거. 게믄 올로 요디는 시꾸와지고 요디는 터지는 거.

@ 요디는 터지는 거라예?

# 예. 예.

@ 게믄 이거는 이몸예?

# 예. 예. 이몸.

@ 양쪽에 이건 이몸.

# 이몸. 요건, 요건 밋.

@ 이건 밋. 게믄 요기는?

# 안밋, 밋밋.

@ 이쪽이 안밋마쌈?

# 예. 예.

@ 안맞.

# 영 꼬불르는 거니까.

@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 예.

@ 이거는 밧밧예?

# 밧밧.

@ 여기는 밑에는?

# 밑에는 단.

@ 그냥 단이렌허고예. 이거는?

# 허리.

@ 이거는 허리렌 헤예?

# 응. 곱. 이것도 치메에 곱과 ㄱ트는 거.

@ 아, 여기도 곱 두 개 담니까?

# 예. 두 개. 혼 자 두 자.

@ 아, 이거는 곱예? 이거는 여자 바지. 게은 남자바지는 그림이 어떻 웹니까? 남자바지.

# 여자 거 다 ㄱ차 불라. 무신, 무시거 ㄱ차시니?

@ 여자는 치마허고 저고리하고 이거 저 뭐 바지.

# 소중의는 어떻헤시니?

@ 소중의는 아직 엇우다.

# 여자 걸 다 ㄱ차불라.

@ 예. 소중의는 나가 그림을 못 그릴 거 님은디.

# 나도 몰르켜. 이거. 요렇게 너 자를 해서 요렇게 요렇게 꼬블루라. 요렇게. 어, 헛저.

@ 이렇게 어떻 될 건가마씸?

# ㄱ만, ㄱ만 시라. 느가 잘 알암신게. 이렇게 이디 단을 놓는 거.

@ 아, 예예.

# 네 개로 꼬블라서이. 경 허민 또 요디는.

@ 터지는 거예?

# 영 터지민 올로 요걸 영 거깁 단 헤영 올로 끈 두 개만 드는 거 영.

@ 여기를 영 끈 두 개 돌아예?

# 응. 응. 들곡.

@ 사진 찍은 거 이실 거우다.

# 요디는 허리.

@ 여기가 허리.

# 응. 허리.

@ 허리가 이렇게 그 물질허는 거는 이렇게 크게 허리는 대충 헌덴 헛잡아예?

# 응. 족계.

@ 예. 이거는 족계해서 허리하고. 여기는 뭘우과? 단.

# 단. 아니야. 단 아니야.

@ 뭘우과?

# 그거는 베에 부지는 거 잇몸.

@ 잇몸.

# 응. 이것에 딱 른 잇몸.

@ 아, 잇몸예. 잇몸. 잇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면 단이 들어가는 데잖아예?

# 그건 단. 단.

@ 이건 단이고. 앞에 허고 뒤에.

#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 이거 뭐런 험니까? 이름이?

# 그게 다 잇몸이라. 이것이 다 잇몸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 이것이 다 잇몸에 들어가는 거고.

# 예. 예.

@ 여기에 바데도 놓지 안험니까? 이 밋에 우리.

# 아니, 아니. 이, 이.

@ 강알예.

# 옛날에는 그 바덴디 이건 벌써 네 곱을 들어갓거든. 이게 그래서 그 소중의를 줍는 게 이렇게 해서 불썸 이렇게 허고 이렇게 허니까 네 곱이 딱 좁아져부는 거야. 바데가. 들어가는 거. 이거 혈 중 몰르민 이거 뺄스로 허민 바데가 뉘는디 이건 벌써 네 곱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바데 없어.

@ 바데 없는 거구나예?

# 예. 이거, 이거. 이것만 들어가.

@ 잇몸예?

# 예.

@ 여기는.

# 단. 옆단.

@ 이거는 옆단예?

# 응. 옆단.

@ 옆 단행 이거는 고름을 헤서예?

# 고름은 요디 들앙.

@ 아, 여기에?

# 응. 그건 끈. 옆끈. 끈.

@ 옆끈.

# 옆끈. 곶은 여기.

@ 여기 곶예?

# 두 개.

@ 곶은 두 개?

# 응.

@ 이렇게 헤서 곶은, 곶은 허리 영 무끄는 거지예?

# 응. 계난 이디 곶 두 갠디 이것도 긴곶은 자 일곶 치 즈른곶은 으섯 치.

@ 아아.

# 아니, 아니 흔 자. 흔 자.

@ 흔 자.

# 응.



@ 진공은 흔 자?

# 응. 진공은 자 으덜 치 해서 획 둘러당 감아.

@ 허리를 한 번 돌루는 구나예.

# 둘러다가 감아서 이견 소중의.

@ 여기 소중의 헐 때 예전에 아까 별므작은 안 됩니까?

# 별므작은 옛날 그 해녀덜이 그걸 든든이 벨라지카부덴 별므작을 허는 거주. 호상엔 끊어부러.

@ 아아.

# 계도 간편헌 거 들앙 좋아. 간편헌 거.

@ 아, 이렇게예. 이견 소중의하고.

# 이제는 또 엄도 ㄱ튼 거는 아니 만들 거가?

@ 예. 예. 엄도는 어떻게 웹니까? 계믄.

# 열십 자로 딱 곳어부러. 지러기랑 질게 허곡 열십 자로.

@ 이렇게? 이렇게 길게.

# 으으. 계믄 이것에서 멩지 흔 너비로. 이것은 잇몸.

@ 이것은 잇몸.

# 응. 잇몸. 이것은 양쪽 스미.

@ 아, 이것은 스미렌 험니까?

# 응. 더프는 거.

@ 예. 예.

# 영 이거 더프고 이거 더프고 이거 영 갖다 더프고 이걸 알러레 갖다 더프는 거.

@ 예. 예. 이거는 잇몸 전체가 잇몸.

# 전체가 잇몸인디 이걸 둘에 밋에 건 흐끔 질게 혀고 벳갓디 건 즐르게 혀곡.

@ 아, 경 형 이걸로 하고 이걸로 싸는 거라예?

# 예. 예. 엄도.

@ 엄도는 그 머리 싸는 거지예?

# 예. 예.

@ 검은호상허기 전에예?

# 예. 예. 딱로 과도.

@ 과도는 허리띠? 어떻게.

# 허리띠. 허리띠라고 질게 헤불라. 허리.

@ 이렇게예.

# 응.

@ 과도?

# 과도. 과도는 이렇게 꼬비청으네 요디 끈 하나 하나 두 개 들앙 혀는 거.

@ 여기 끈 형. 이름은 뭐렌 헤마쌌?

# 과도. 과도.

@ 그냥 과도렌만 하고.

# 응. 허리띠엔도 써불라. 모르니까.

@ 예예. 허리띠.

# 이디 저 여성회관에 바농질혀는 이가 수일 베왕 혀는디 자꾸자꾸 물어. 전화로. “어

느 건 어떻습니까? 어느 건 어떻 험니까?” 오랑 베와 갖는디도 멘들젠 허난. 게난 과도가 허리띠라 현 걸 알기 쉽게 허리띠.

@ 예. 허리띠. 게문 여기는 끈 두 개 들곡.

# 이디도 끈 두 개.

@ 끈 두 개 들고예?

# 이디는 영 고비쳐서 마주 돌아볼민 키가, 슬친 사름은 이게 딱 벨라지고. 또 허리가 좁은 사름은 이게 포씩와정 곰 메기가 굿이니까 요 놈은 흥곰 질게 헤영 요렇게 곰을 영 안들이민 키 큰 사름, 저 슬친 사름은 요 끈을 늦추왕 메고 또 허리가 좁은 사름은 이거 톡 고비청 메고 허기 좋게 끈을 요만이.

@ 이렇게 행으네 끈을 다는 구나예?

# 예.예. 그렇게 달아요.

@ 두 개씩. 끈 두 개씩예?

# 이레 막 부찌불지 말앙 요디만 들앙.

@ 예. 예. 게문 과도 잇고. 그 다음에 또?

# 장옷만 허민 다 웬 거 닻다.

@ 예. 장옷은 이제 이렇게.

# 장옷은 먼저 찍어간 거 실 걸.

@ 예.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뒤잡아예?

# 예.

@ 여기 아까 이름은 톡꺾어예?

# 예. 한숨만 그래요. 스미에 한숨.

@ 한습예?

# 응.

@ 한습만 여기에.

# 허고 띠.

@ 띠. 띠는 띠. 띠는 어디에 답니까?

# 다 입은 다음에 영 무끄는 거.

@ 아, 띠는 별도로 이수광?

# 별도로. 별도.

@ 아, 이렇게 헤가지고 띠로예. 띠는 무슨 색깔 보통 헛수과? 옛날에.

# 옛날은 물색으로 헛주.

@ 물색으로?

# 견디 지금은 흰 걸로 헤여.

@ 아, 한습 입은 다음에 띠 우리 허리띠 허듯이 위로 메엿구나예?

# 응.

@ 두루마기는 안 메는 거예?

# 안 메지. 장옷에 입는 건 띠지.

@ 아, 장옷엔 띠 잇구나예. 게민 여기도 아까 진곰, 짝른곰 형으네 이름 똑ㄱ찌예?

# 응. 한습허고. 한습만 별도로 부찌는 거.

@ 여기도 그냥 질스미렌 허고. 꾀동. 여기는.

# 한습.

@ 한숨. 여기에는 콧등이 엷수가?

# 콧등이신디 한숨, 한숨.

@ 아.

# 한숨을 이레 부찌는 거.

@ 아, 게믄 장옷에는 콧등이 없이 한숨을 부찌는 거구나예?

# 응. 응. 그냥 기장만 맞으민. 기장만 맞으민. 기장이 안 맞으민 질스미 놓고. 한숨은 뜯 길로 부찌는 거.

@ 아, 그렇구나예. 그러면 여기는 콧등을 헐 필요가 없네예?

# 응. 응. 콧등 헐 필요 엷이 한숨.

@ 게믄 콧등 헐 필요 엷이 한숨허는 거고.

# 예. 예. 이제 게믄 여자 거는.

@ 다 콧난 거지에. 콧난 거지에?

# 응. 응.

@ 그 다음에.

# 보선, 신발은 다 ㄹ트는 거.

@ 이름 같은 거고예?

# 응. 남자 거는 하나도 안 헷지?

@ 예. 그 저 뭐는 아까 저고리는 똑 ㄹ트덴 허니까 저고리는 하고. 저고리는 하고. 이제 바지.

# 남즌 저고리 기장만 길면 뉘는 거.

@ 예. 그 다음에 바지를. 남자 거는 뭐 셋복이니 뭐니 헷 거 잇지예?

# 상복이 잇주. 상복은.

@ 아, 상복. 이렇게 허리 있고.

# 상복을.

@ 이렇게 허면 이쪽이 길 거우과? 이렇게 되는가? 거꾸로우파?

# 응. 아니, 아니여. 그러니까 요 상복을 요만이 영 끊어불라. 영 다.

@ 이까지?

# 이까지.

@ 이까지예?

# 이쪽도 상복을 끊으라.

@ 이렇게 끊어예?

# 응.

@ 게은 어느 게 상복이우과?

# 요레 영 이거 끊어불라.

@ 요까지?

# 게은 요거는 상복이여. 따로 돌르는 거. 상복 두 개 다.

@ 아, 이건 상복예?

# 이건 큰셋복.

@ 이거는 큰셋복.

# 작은셋복.

@ 작은셋복.

# 그래서 이거를 이 상복은 꺾칭허게 두 개만 돌르민 되는 거고. 요거는 큰셋복을 돌

를 때다가 요걸로 잘 제여서 죽은셋복에 맞추왕 이거를 재단허면 되는 거고. 게서 요거를 요레 부찌. 죽은셋복을 부짱 이젠 또 큰 상복을 이렇게 부짱 이렇게 바지를 허면 되는 거.

@ 아아. 하나로 므는 거는 상복예?

# 상복. 구짜 흥나 우알 ㅋ칭허게 므는 거는 상복.

@ 예.

# 또 요 흥쪽은 큰셋복 흥쪽은 죽은셋복.

@ 큰셋복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리 다리로 갈 때.

# 아, 그건 아무 딜로 가도 뉘여.

@ 그건 상관이 없어.

# 상관이 없어.

@ 상관이 없어?

# 요런 식으로만 들랑으네 꼭 맞게 이레 부찌민 뉘여.

@ 아, 오른쪽 가도 왼쪽 가도 상관 없구나예?

# 예.

@ 게민 그거는 허고. 여기는 허리.

# 허리.

@ 그다음에 남자바지는 여기 다님을 치잖아예?

# 응.

@ 여기는 그냥 단이렌 험니까?

# 단.

@ 단. 여기 다님 치는 데는 어디마쌌?

# 다님 치는디 요디 요렇게.

@ 요렇게 해서 다님치고예?

# 응.

@ 다님

# 다님.

@ 여기도 다님. 그러면 남자 바지도.

# 남자 바지도 뒤는 거. 또 중의는 꼭 중의도 이대로 해서 동근술만 허민 뒤는 거.

@ 동근술은 아까 어디로 단덴 헤수가?

# 그 실밥허는 거계.

@ 실밥예. 그 세 가지. 실밥 허는?

# 동근술은 이 상복에는 동근술은 아니 헤요. 상복은 이거 다 곤은 복이니까. 요거. 요거 동근술허고 요거 요렇게 동근술 허고.

@ 아, 큰셋복허고.

# 중의. 중의.

@ 중의는.

# 바지는 동근술이 없고. 안팎 허는 거니까.

@ 예. 예. 중의에는 아까 큰셋복허는데 하고 작은셋복허는 디가 동근술이 이신 거라예?

# 응. 알. 알단허고. 알. 강알.

@ 강알허고.

# 강알허고. 그것도 동근술.



@ 강알에도 동근술하고예?

# 여기는 단. 꺼짱 단허고.

@ 단 여기 단허곡?

# 단은 거짱, 꺼짱 놔서 그냥 박기만 허민 뉘는 거.

@ 아, 동근술은.

# 동근술은 요거허고 요거는 동근술.

@ 한번 꺼끄고 또 두 번 꺼끄는 거를.

# 아니, 아니. 응. 응. 거는 단이고. 단이고. 이거는 세 번 박는 건 동근술이고.

@ 게난 동근술허는 거는 중의예?

# 응.

@ 중의.

# 중의, 적삼.

@ 중의 적삼예?

# 응. 적삼.

@ 중의, 적삼에도 동근술허고예?

# 동근술. 바지 저고린 고대로 안만 부찌는 거.

@ 예.

# 또 적삼에는 깃바데, 젓강바데. 써서?

@ 예. 예. 예. 건 남자 거나 여자 거나 똑 마찬가지로?

# 응. 마찬가지로.

@ 젓강바데허고.

# 짓바데.

@ 짓바데예? 짓바데는 여기 뒤에 말하는 거지예?

# 예. 예. 경 허민 남즈 바지저고리 하고.

@ 남자 바지허고.

# 살마다.

@ 살마다는 그림이 어떻 됩니까? 남자 거는.

# 보통 요새에 허는 거.

@ 그냥.

# 예. 예.

@ 그냥 이렇게 형은에 헤마쌌?

# 예. 허리띠 안 들양 단만 허는 거.

@ 허리 안형으네 단으로.

# 단으로 이디 흐끔 터서.

@ 여긴 영 트고예?

# 예. 예. 경 트고 그자 요디는 줄 놓고 멩지줄 놓고 그 호상허는 기지로 단 놓고 허민.

@ 단 놓고 허민.

# 예. 이진 살마다고.

@ 여기는 이름은 또 따로 허여마쌌? 그런 건 없고?

# 저 이게 살마다가 뺨수는, 팬티는 미국말이고, 뺨수는 일본말이고, 이 살마다가 아  
마 우리 한국말 닳아 베여.

@ 살마다도 일본말마씨.

# 일본말인가?

@ 예.

# 경 허민.

@ 옛날에는 뭐렌 헤신고예? 남자덜.

# 나 모르크라. 이거.

@ 속곳이렌 헤신가마쌌?

# 속곳. 속곳은 여즈고.

@ 예.

# 여자는 속곳이렌 현디 남자는 나도 몰르켜게. 겨난 속중의라고 해야 쥬 건가. 속중 인 또 잇거든. 중의가. 게난 살마다로 헤불쥬. 흘 수가 엇어.

@ 예. 예. 그자 중의 입는 단속곳.

# 단속곳은 아니고. 건 여자 거.

@ 여자 거. 단속곳은 여자 거예?

# 예. 여자 거 여자 거라부난.

@ 예. 남자 저기.

# 속중의. 속중의로 헤불까?

@ 예. 속중의예?

# 속중의.

@ 속중의 입은 다음에 중의를 입는 거지예? 남자 거예?

# 응. 응. 속중의. 이거 속중의라고 헤불어.

@ 예. 예. 속중의허민 웰 거 같애마썸.

# 속중의에 그 다음 중의, 바지. 계민 웰 거 같아.

@ 속중의 다음에 중의 입고 바지 입는 거지예?

# 응. 응.

@ 세 개 입는 거니까.

# 응. 남주는 우에 그 적삼 소곶에 난닝구가 있어. 난닝구.

@ 그 난닝구도 우리말 아니거든예. 옛날에는 속적삼 헤신가마썸?

# 속적삼으로 것도 써부러.

@ 예. 속적삼하고 그 다음에 적삼 입고.

# 저구리 입고.

@ 저구리 입고. 그 다음에 저고리 다음에 도복 입었수가?

# 창옷.

@ 아, 창옷예. 창옷. 창옷 입는 거지예?

# 창옷 다음에 도복.

@ 두루마기는 안 입어마썸?

# 두루막은 입는디 입는 질이 달라. 창옷도 아무 것도 안 입영 허나만 입는 땀 두루막 입영 스미 길게 아녕 스미 소단으로 헤영 안 낳으네 현 건 두루마기고. 그걸 입으면 도폭을 못 입어. 게 도폭을 입영 큰옷을 입게 댜민 창옷 도폭 받침이라고 해서 창옷을 입어야 도폭을 입는 거주. 그러니까 두루막은 그거 하나만 입을 때.

@ 예예.

# 그건 두루막은 중간에 난 거거든. 옛날은 다 창옷에다가 도폭만 입고 또 그자 사름은 창옷 보통으로 입고. 안 논 두루막은 벨로 안 입는디 중간에 두루마기 나왔어.

@ 그랬구나예. 옛날식은 창옷을 입은 거구나예?

# 예. 치메에 안 놓앙 안 놓앙 입을 때 두루막도 안 놓앙. 안 놓앙으네 두루막을 입게 됐었어. 중간에.

@ 그렇구나. 그러면 남자 창옷하게 되면 창옷도 이제 두루막허고 비슷하게 홀으로 쉰.

# 응. 홀으로만 쉰 쉰.

@ 뉘지예?

# 창옷에도 짓바데, 젓강바데 놔야.

@ 창옷에도예?

# 응. 짓바데. 젓강바데 놓고. 또.

@ 짓바데 놓고, 젓강바데 놓고.

# 옆이는 동근술허고.

@ 아.

# 실밥마다 다 창옷은 동근술을 해야 쉰디, 호상에는 이런 옆에는 다 동근술 해야돼.

@ 아, 동근술하고예?

# 예.

@ 그 다음에 도복은마씨?

# 도복은 먼저 기린 게 있지 아녀?

@ 여기는 이거는 여자 거. 장옷. 남자 도복은 안 그렸수다. 남자 도복도 그 저 뭐랑 비슷하게 쉰 니까?

# 우선 잇몸을 그려봐.

@ 게른 소매 이렇게 뉘잡아예. 잇몸 이렇게 길게 쉰 거 아니예. 도복도예. 소매 잇고. 여기도 이

제 그 동전 달지예?

# 경헌디 ㄱ만 이시라보져. 아이고.

@ 뭐 드리코마썸?

# 저 안경. 이게 도폭이민. 이제 요걸랑 짓으로 허곡 소민 이디 질게 보는 걸로 이게 소밀 허지이. 이렇게 영 소미 해 불민. 이젠 이게 잇몸이라.

@ 예.

# 영 허는디 요건 짓 들기 전에 이렇게 짓바테가 잇어. 이디 짓바테가이.

@ 예예.

# 짓바테에 이디 어불복이라고. 흔 쪽을 둘에 갈라서. 요건 등실밥인디, 어불복을 이 딜 썬여가지고 박지 안 해서 이 어불복이라이. 어불복인디. 어불복을 뒤에만 부찌는 거 라이. 어불복을 어디다가 부찌는가 허민 요건 짓이난 짓바테에 부찌는 거이. 짓바테에 이. 짓바테 우이 짓이고 이디 부찌는디. 이제 어불복을 두 개 다 부찌서 이젠 요게 어 불복이민, 어불복에다가 이렇게 또 이것도 어불복으로 느려와. 이 짓바테ㄱ지 안 강. 일로, 일로 가민 이제 요게 큰셋복. \*\* 큰셋복 아주 이디 크게 부찌는 거. 영허민 또 어불복이니까 요 어불복ㄱ지 이건 부찌니 어불복 안으로, 안으로 이젠 또 작은셋복을 요렇게 부찌요. 어불복 안으로. 안으로 부찌민 이 큰셋복에 작은셋복에 ㄱ찌 이렇게 실밥 을 허게 뒤. 요건 작은셋복은 앞이 부찌는 거고. 이건 큰셋복은 이 어불복에다 뒤에 부 찌는 거.

@ 아, 이 뒤로예?

# 예. 계민 이젠.

@ 옆에 이렇게 뒤는 구나예.

# 겨민 이게 압섭이, 밧압섭이 이젠 요건 안압섭이라이. 계민 밧압섭이 이렇게 넓게 오랑 이레 딱 더꺼져야 이제 이 미가 이렇게 뒤고 요거 두 개는 어불복이니까 이 본 건물 요것에서 복은 박고, 어불복은 안 박거든. 계민 본 거 두 갠 박아지고 어불복은 안에 뒤민 이제 그 뒷복이 퍼딱 놀라가민 안에 어불복 두 갠 이렇게 가리워지는 거.

@ 밖으로 이렇게예?

# 밖으로, 밖으로는 요것과 체얌 그 잇몸 복이니까. 이거는 박는 거거든.

@ 박아진 거. 일로 이거는 박을 거 아니라예?

# 예. 이견 박으민 이 안에 어불복은 두 개 거든이. 이게 아니. 이견 안 박는 거라이. 겐디 요거를 이렇게 딱루 부찌지 말고 영 ㄱ찌 부찌이. 요것에. 어울렁. 어울렁. 어울렁 이것에 부찌민 요 두 복이 이렇게 어울려지민 요 벳긱디 박은 복은 피딱허민 가릿가릿 현 냥 잇어.

@ 예. 예. 예.

# 그러민 이젠 큰 이 셋복이 요디 붙은 것에 큰셋복을 이 저 짓바데에 큰셋복은 부찌 곡 죽은셋복은 요 짓쟁이 알로 부찌는 거라.

@ 예.

# 요 짓쟁이 스미 안으로이. 안으로 부찌민 이 큰셋복이 이레 더퍼져서 옴로 ㅋ칭허 게 부짱 요 죽은셋복에다 단을 허는 거.

@ 이거는 큰셋복예?

# 응.

@ 이거는 죽은셋복.

# 요거는 어불복.

@ 요거 두 개는 어불복.

# 예.

@ 어불복예?

# 어불복.

@ 그리고 이제 안에 거는 이거는 죽은셋복.

# 예. 요건 큰셋복.

@ 큰셋복.

# 또 이젠 압섭은 엇어이. 요다이.

@ 예. 요디는 잇몸에 뒤에 거잡아예?

# 압섭은.

@ 앞에 이렇게 올 거 아니라예?

# 아썩 거는 족은셋복은 앞에 부짚 거라이. 이제랑 지냥으로 영 기령 잘 기령으네 이제 뜬 것에 기려보라.

@ 영 허면 족은셋복 뒤는 거잡아예? 앞에 이 뒤에 이건 큰셋복.

# 응. 게민 요 셋복이 요디 부뜰 거라이. ㄱ썩.

@ 예. 이렇게 옆에예?

# 응.

@ 여기 영허면 이건 족은셋복.

# 겐디 요기 기리라 보저. 짓바델.

@ 짓바데 뒤에 들어가는 거잡아예?

# 응. 이거는.

@ 이게 짓바데 아까예?

# 응. 응.

@ 이거는 뭐우까?

# 그건 짓.

@ 이건 짓. 이렇게 우에는.



# 계란 이거는 이 긴셋복은 짓바데에 ㄱ치 부찌. 어불복히고 영 혼 선으로 부찌는 거고. 죽은셋복은 이디 소밀 기리라.

@ 소미는 이렇게

# 계란 소미 알로 죽은셋복은 허는 거라. 긴셋복은 요ㄱ지 저.

@ 일로부터예?

# 아니, 아니. 요것가게 거시기난.

@ 짓바데.

# 응. 짓바데로부터 진 셋복을 부찌는 거. 짓바데에 어불복에 ㄱ튼 등실밥에 혼 나라비에 부찌는 거. 죽은셋복은 이 젓쟁이 알로 부찌는 거.

@ 죽은셋복은 젓쟁이 알로예?

# 응. 젓쟁이 알.

@ 이 저기 이게 창웃이었지예? 아까예.

# 응.

@ 창웃 이 앞에는 그 뭐 안 됩니까?

# 아니. 이 도폭.

@ 계란 도폭. 도폭은 뭐 우에는 뭐 안 돌아마쌈? 앞에 이런 동전 같은 거는?

# 짓이여 동전이여 다 돌아야 허주.

@ 그러니 여기는 동전 뒤는 거잖아예?

# 응.

@ 짓 잇고 동전.

# 동전.

@ 이 뒤에가 짓이잡아예?

# 응. 이 이런.

@ 이렇게 거꿀 거 잡아예?

# 응. 견디 저 창옷에는 짓바데가 없이 그대로 잇몸에다가 셋복을 양퓌이 부찌는 거.

@ 아아.

# 잇몸에다가.

@ 이 도복에예?

# 아니, 아니.

@ 창옷에는?

# 창옷에는 이 짓갱이 알로만 셋복을 다 부찌는 거.

@ 아아.

# 도복은, 도복은 큰 거는 이 짓바데에 부찌고 작은 거는 짓갱이 알로 부찌는 거.

@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창옷에 짓강바데 놓넨 현 게 그거구냐예?

# 응. 응. 짓강바데, 짓바데 놓는 거.

@ 아, 이거 도복이니까 이렇게 하고. 예. 도복하고 창옷은 그림은 거의 비슷한데 그 바데 놓는 게 이제.

# 그리고 어불복이 있어야 돼고.

@ 어불복 잇는 게 도복.

# 또 스미도 큰 셋, 장옷은 흔 잘 놓아야 되는 거고 하발. 죽은셋복에는 다섯 치 반만

놓민 뒤는 거라. 꼬비청 자 혼 치 놓민 뒤여.

@ 예예.

# 도폭은. 아니, 아니 창웃은. 또 창웃은 꼬비청 두 자를 뉘야 뒤여.

@ 그러면 선생님 창웃이 소미가 더 긴 거?

# 아니, 아니. 창웃은 기장은 혼 자고, 이 하바는 자 혼 치를 낱 딱 꼬블르민 다섯 치 닷 푼씩이 뒤는 거라.

@ 아아.

# 알암서?

@ 예. 예.

# 겨고 또 도폭은 이렇게 두 잘 놓으민 딱 꼬비치민 혼 자가 뒤는 거예요.

@ 예. 예. 예.

# 또 기장은 이제 자 네 치, 기장은 도폭에 기장은 이제 또 일곱 치, 자 두 치, 자 세 치 뉘야 헤.

@ 이 스미 기장을예?

# 예. 기장을.

@ 아, 이런 식으로?

# 아주 틀려. 이게.

@ 예. 게난 이런 셋복 들어가는 거는 하나로 몰르지 못 허니까는 다른 천 들어가는 거를 셋복이라고 허는 구나예?

# 뒤?

@ 셋복, 셋복. 큰셋복, 족은셋복 허는 거. 바지에도 굴른 천으로 헤서 이렇게 부치는 거.

# 음.

@ 여기도 마찬가지로.

# 딱 잡았으네 물르민 딱로딱로 기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민 그게 다 그 흔 폭에서 나오게 됐주. 다. 딱로딱로.

@ 예. 예.

# 재단힐 때.

@ 경 행 재단힐 때 천을 여러 개 부청은에 허니까.

# 다. 다.

@ 큰 거는 큰셋복, 작은 건 작은셋복이런.

# 그렇게 허게 됐지.

@ 이렇게 도복까지 허게 됴민 거의 현 거 같은 데예?

# 저 행경.

@ 행경. 행경은?

# 도복띠.

@ 아, 도복띠를 헤야 힐 거구나.

# 도복띠.

@ 도복띠. 도복띠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 예. 또.

@ 그냥 띠 이렇게?

# 아니, 아니. 네 치 낱 꼬불랑.

@ 네 치 낱 꼬불랑.

# 녀 자.

@ 예. 녀 자 헤갓고.

# 응. 게민 뉘여.

@ 이걸 이런 식으로만 만들지예? 도복 띠는예?

# 응.

@ 그 다음에 행경은?

# 행경은.

@ 이런 식으로 뉘잡아예?

# 으.

@ 영 행으네 돌르는 거지예?

# 응.

@ 다리에 허는 거니까?

# 응. 요디, 요디 쪼금 터. 요만으로 터. 일로 터그네 요갓지만 이레 박아그네 이디 단 헤영으네 일로 단 내영 솔로 끈 득는 거. 이렇게 요 끈 득는 거.

@ 여기는 터진 거. 여기만 박는 거예?

# 응.

@ 박는 거고예? 끈은 어디 돌아마쌌?

# 끈은 요기 양편이 돌아서 이 튼 딜로 양편이 들민 행경이 뉘는 거지.

@ 아, 경 행으네에 이쪽은 이쪽으로 영 허면 뉘갓네. 안, 안으로예?

# 응. 게 남자는 호상에 과도가 없고 엄도는 꼭 같으고.

@ 예.

# 또 여즈는 저고릴 둘 허니까 속저고리가 잇으니까 난링구 안해서 속적삼 대신 쓰고 남자는 난링구허고. 또.

@ 과도는 여자한테만 잇는 거구나예. 허리띠예?

# 남자한테는 없는 거고. 엄도는 다 잇는 거고.

@ 이 행경은 이제?

# 행경은 남자가 도폭 입는 디만 잇는 거고. 그디 보선 다 따로.

@ 예. 보선은 똑같이.

# 보선, 신 다 따로. 크게만 허는 거고. 경 허민 이제 그 대림포만 안 들어갓어.

@ 예. 대림포는 그냥 저기 뭘로 베로 허는 거지예?

# 베도 뉘고 멩지도 뉘고. 멩지는 안팎 곱지고 베는 홀 걸로 허고. 견디 대림포 기장은 이제 긴 거는 열대 자, 멩지로는 안팎. 베로는 홀 걸로. 기장은 진 기장은 열대 자 또 옆이 거는 석자씩 여자 양 옆의 돌리는 거. 그거 많이 들어.

@ 경 형으네 대림포가 많이 드는 거구나예?

# 예. 예.

@ 게민 대림포 다 싸면 끝나는 거고. 그 동심줄?

# 으. 동심줄은 예 노랑멩지 석 자, 검은멩지 석 자 헤영 몰아 놓고 오색실로 못아. 못아근에 그레 딱 같이 부쳐 놔.

@ 동심줄은 경 헤그네 허는 거고예? 이거 이추룩 행 옷을 다 만들잖아예? 그 바느질 험 때 이 맨 천 가정 허는 거를 무름질이렌 헤마썸? 물론덴 헤?

#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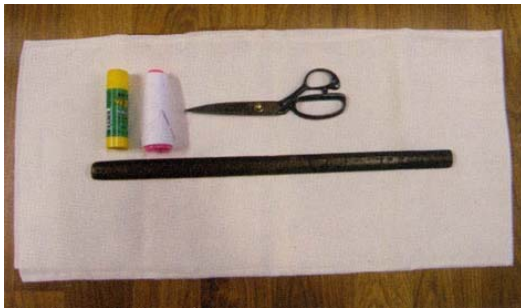
@ 재단하는 거를.

# 그 모르는 거. 재단은 신식말이고 옛날은 모르는 거.

@ 예. 그거 몰람저 영 허지예?

# 모르는 거.

## 11. 바느질법과 도구



[사진 4] 바느질 도구. 자, 가위, 실과 바늘, 풀.

@ 모르는 거 하고. 바느질은 어떤 바느질하고 어떤 바느질 헐니까? 바느질도 뭐 박는 것도 이실 거고.

# 땡침이엔 현 건 뒷바느질로. 이제는 미싱에서 허니까 허는디 옛날은 그 뒷바느질로 땡침이엔 헤영 지금 그 미싱에서 박듯이 든든히 허젠 허민 땡침 바느질을 허는 거고. 또 기냥 흡는 바느질이 있고.

@ 예. 흡는 거.

# 흡는 건 그대로 영영영영 헤영 해서 쪽 동기민 그건 흡는 거고. 또 뒷바느질로 영 허영 박아당 또 허는 거 땡침 바느질이고. 또 이제 그 땡고.

@ 단 허는 거는 뭘로 헐니까?

# 단은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신식으로 땡는디, 옛날은 단 허는 거 감쳐.

@ 감치지에. 감치는 바느질 있고.

# 응. 감치는 거 허고. 것벳긔 몰르켜.

@ 세 가지예? 게난 땡침은 이렇게 이렇게 행은에 이어지는 거잖아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예?

# 응.

@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흡 허는 거는 이렇게 허는 거고.

# 응.

@ 감치는 건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 응. 잘 알았저.

@ 예. 그거 말고 딱은 바농질은 엷수가?

# 엷어. 엷어.

@ 이렇게 바농질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바농질 허젠 허면 도구, 뭐 뭐 이시민 웰 겨우과?

# 아이고, 거 몰르켜. 바농귀 끼는 거.

@ 예.

# 또 그 손에 무시 거 것그라 무시거렌 곤느니? 우리집이 손지 막 끼엿 텡겸선계.

@ 골미?

# 골미. 골미. 골미 께사 이디 무시거 아녕. 그거 뿐이주게.

@ 게난 바농허고 바농 잇어사 웰 거고.

# 바농허고 썰허고 또 바농귀 께는 거 허고.

@ 바농귀 께는 것도 따로 이수가? 옛날도 이서나수가?

# 잘 안 보이민 바농귀 께는 거 헤사주.

@ 아, 옛날에도 그런 거로 헤서예?

# 비추는 거. 또 경 허곡 또 손 찢러불카부덴 골미 썸.

@ 골미 찢우고예. 바농귀 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겨수가?

# 하 이젠 것도 몰르켜게. 뭐 무시거 영 비추는 거. 그 영 들러근에 바농을 바농질 영  
헐 때 영 비추는 거. 영 바농귀 께젠 허민 비추와그네 무신 이 안경.



@ 돋보기 식으로.

# 안경 닦은 거주게. 아 돋베기 식으로.

@ 아, 그런 게 잇었수가?

# 응. 이션. 손에 들렁 비추는 거.

@ 아, 그 이름은 뭘렌 헨 곶아마쌈?

# 몰르크라. 웃음.

@ 아, 그런 게 잇었구나예?

# 응. 돋베기 식으로 들렁 끼우는 거. 돋베기도 그땐 어섯주게.

@ 예. 예.

# 엇이난 영 손에 들렁 비추와그네 꺾는 게 잇었어.

@ 아, 잇었구나. 그 다음에 이런.

# 가위.

@ 예. ㄴ세.

# ㄴ세.

@ ㄴ세도 잇어야 텔 거고.

# 자.

@ 자도 잇어야 텔 거고.

# 짓뿐이주.

@ 그 다음에 옷 만들면.

# 썸. 윤디, 윤디.

@ 윤디도 있어야지에.

# 다리미치고 윤디. 윤디. 윤디로만 누르뻗주.

@ 옛날에는 예?

# 응. 윤디.

@ 다리미는 영 큰 거 치마 같은 거 다릴 때는.

# 숯불 살랑, 숯불 살랑 그레 낡 다리워.

@ 다리워.

# 다리워렌. 지금은 다리미엔 허는디.

@ 옛날에는 다리워렌 헛지에?

# 다리워.

@ 요 정도 허는.

# 다리워, 윤디 그것뿐.

@ 그 다음에 다리젠 허면 뭐 뭐에서 다려수가?

# 그 무시겨 영 기지 고비청.

@ 아, 아무.

# 낭 헤그네 기지로 쌍.

@ 예.

# 나무 영 질게 헤영으네 요만히 허게 헤영 이제도 잇주. 기지로 쌍으네 그디 쪼끔 뚜꺼운 솜이나 뭐 벵허게 감앙 광목으로 싸근에 바놓으로 줍앙 호앙은에 경 행 그것에.

@ 그 이름은 따로 엇어마씸?

# 엇언. 윤디판.

@ 아, 윤디판.

# 윤디판.

@ 윤디판예? 맞아예.

# 윤디판.

@ 윤디판에서 옷 다리고 끈막 현 거 아니라예? 옛날에는.

# 응. 경 허곡 이제 그 다리위로 다리는 거. 그자 못 다리민 마주 심영, 마주 심영 이렇게 불 피왕 다렸주.

@ 아 심영예?

# 숯불 피왕 다리위 낱 이젠 그 놈을 마주 영 심어근에 영 영 다려. 아아. 웃음. 옛날에 얼마나 어려와시?

@ 경 헨 다련.

# 경 행 다련.

@ 바농질은 그거 이시민 뉘고, 그거 윤디허젠 허면은 화리?

# 화리. 화리에 불 살랑. 화리에 불 살라그네 재로 꼭꼭 묻어 둬서 오래허젠 허민 영 윤디 그레 썩 질렀다근에 다까뉘.

@ 그럼 물에.

# 아니 물에 아녀.

@ 물에 안하고 그냥 다까뉘은예.

# 응. 그자 윤디 그자 재로 물 젖은 거 놔그네 속 다까뉘은예 물에 헤불민 식어부러.

@ 예. 다끄기만 헤그네.

# 예. 예.

@ 경 해도 추접 안 헌 거 보믄 참 희한해.

# 겨곡 옛날이사 미녕옷이난 그 이런 옷이나 허젠 허민 윤덜 쓰주. 보통 그자 미녕옷  
ㄱ튼 건 기냥 허곡. 기냥 허곡.

@ 어쨌든 이거는 돈, 이 손, 손 저 손만 저 허면 뉘는 거구나예?

# 예. 경 허곡 또 옛날은 베옷이난 손다듬이. 그 베 ㄱ튼 건 손으로 잘 그걸 풀허영  
다듬이 허민 외레 윤디질 허는 것보다 손다듬이가 나삿주. 푸답이렌 헛주. 옛날은 오죽  
신경을 써계.

@ 푸답예?

# 응. 푸답. 푸답.

@ 이런 그 옷 같은 거 멩지 옷 허는 거 안 허잖아예? 푸답을 안 허는 거지예?

# 그 멩지 시절이 어려왔주. 우리 시절에, 우리가 한 열 술 쯤 뉘 때ㄱ지도 멩지가 엇  
엇어. 게서 한 열다섯쯤 나가난에 법단.

@ 예.

# 인주법단이엔 해근에 법단이 나오란 우리 시집갈 때도 그제 엇언. 그, 이제 그 법단  
그걸 막 큰 걸로 헛주. 웨국에서 들어오란.

@ 예예.

# 겨난 우리 지, 지금 제주에서 난 거는 토멩지. 그 멘네 강알 그거허곡. 저 이 베. 베  
도 그 저 이디서 삼베 갈아근에 그거 문딱 헤영 손으로 문 썬 내영 잇영 그레 이디서  
토멩지허곡 딱로 그 이제 베허고 헤영 그거 이디서 찢주게. 그제 막 어려왔주. 경 허민  
거 멘네 갈곡 그제 막 헤영 허민 그제 어려왕 그걸로 스뭇 벨허게 그걸 허는 걸 허고  
웨국서 법단이 처음으로 들어오란. 경 허난 그제 이제 광목이여, 무시거여, 그거 헛주.  
이디선 엇엇주. 미녕.

@ 미녕.

# 응. 미녕. 미녕 허곡 그 이디서 나는 거 미녕 허곡 베 허곡 멘네도 중간에사 중간에 서 웨국서 멘네 씨 들어오란 갈안 그 멘네 헤영 그 멩질 빠보앗주. 어려와서. 계난 우리 씨집갈 ㄱ리에도 청목. 그런 것덜 무시거 광목도 어려왕 청목이엔 헤영 검은 거 하 바 죽은 거 있어났저. 그런 걸로 세상을 살안. 이불, 이불 요 행가민 막 잘 출렛전 현 디. 요 아니 행 이불만 행 가나시네. 옛날은. 우리 요까지 하나 행 가난 스몯 너미 잘 출렛젠 헤났저. 요가 잇어어. 이불 요가. 경 그추룩 어려왔주.

@ 경 행 그추룩 어려운 세상 살아신디. 요즘은 너무. (웃음).

# 게 요즘은 너무 요즘은 너무 하간게 다 베부르난. 이제 요즘은 없덴 허나 잇덴 허 나 난 없는 사름으로 안 보이메. 그자 각각각각 그자 혼이 없는 거라. 맡아 먹는 건.

@ 예.

# 으. 한이 없는 거라. 지금 어디 암만 영세민이엔 헤도 어디 베고픈 사름이 시냐. 너 미 베 불어. 너미 베 불러. 당추. 경 허난 그 어려운 옛날 생활을 생각허민 춤 어려왔 주. 아이고, 언마나 어려왔다고.

@ 그래도 이추룩 이제 오래 살당 보난 좋은 세상도 보고.

# 게메게. 아니고 무사 영 오래살아점시니게.

@ 아직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오래 사십서.

# 계난 이젠 그자 준비 다 험주. 현디 올히도 이걸 설러불젠 헛는디 이제 그 올히가 윤들인 땀 이 수의가 많이 들어와. 경 허민 물건 값이 올라불민 택이 안 맞아. 난 헐허 게 해주곡 허는 따문에. 경 현디 아 물건을 들이난 옛날만이 반 밖에 안 나간게. 올힌 게. 물건이. 경 허난 재고가 멩지가 많이 남아. 남아부난 이걸 또 어디 풀젠 헤도 또 우린 그 전부 그 수의에 들른 건 신발이고 동심줄이고 다 검은호상이고 다 채와 놓거 든. 땀 디 못가게. 채우난 그게 오깍 남으난 풀젠 헤도 똥 값 똥고 이제 경 허난 그자 내년이나 한 헤 어드레 수강생덜 인술 허나 어떻허코 헤영 현디 또 시청에서 집을 짓 영 또 갑세허고 허난 그자 경 허주. 이제사 정릴 헤사주.

@ 고맙습니다.

# 나가 고맙다게.

## 제4장 조사된 어휘

### 1. ‘호상옷’(수의)

‘호상옷’은 입관하기 전 대렴할 때 입히는 옷으로, ‘저승옷’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곁 혼할 때 입었던 옷을 잘 간수했다가 입히거나 환갑 때 마련한 옷을 입히기도 하였다. 혼 인할 때 입었던 옷과 같이 하는데 남자는 사모관대 대신 이승에서 가장 ‘큰옷’인 도포를 입혔다.

‘호상옷’은 ‘멩지’(명주)를 최고로 친다. 명주 대신 삼베를 이용해 만들기도 한다. 곁옷은 ‘물색 명주’를 많이 사용하였고, 속옷은 흰 명주를 사용했다. 그러나 요즘은 ‘호상옷’ 대부분을 흰 명주로 짓는다. 무명이나 모시, 화학섬유로는 ‘호상옷’을 짓지 않는다. “모시로 호상옷 행 입지민 자손들 머리가 헤영헤 분다.”는 속설이 있고, 무명은 시신이 썩을 때 새까맣게 되기 때문이다. 화학섬유는 잡다한 이물질이 섞여 있어 잘 썩지 않아서다.

또 제주에서는 “살앙 호사 혼 번 죽영 호사 혼 번.”(살아서 호사 한 번, 죽어서 혼사 한 번.), “좁 친 옷 입으면 손지 대에 좁 친다.”(좁이 쓴 옷 입으면 손자 대에 좁 쓴다.), “헝이 쓴 호상옷 입지민 도둑질하는 자손 난다.”(쥐가 쓴 수의 입히면 도둑질하는 자손 나온다.)는 속설이 전하는 것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호상옷’에 많은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간직했다가 부속물만 따로 장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흰 명주로 ‘호상옷’을 새로 지어 사용한다. ‘호상옷’을 미리 지을 때는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한다. 뱀날이나 쥐날, 본명일에는 옷을 짓지 않고, 므날(말날)이나 소날이 좋다고 한다.

- ⇒ 지금 장계가는 옷이 {호상이고}, 시집가는 옷이 {호상이거든}.
- ⇒ 양반의 집은 또 향교에 입영 가는 옷이 지금의 {호상이라}.
- ⇒ 그 멩인 그 돌아가신 어른 몸을 다까서 {호상옷}을 입져. 저승 가는 옷을. 지금 우리 수의.

### 2. ‘호상옷’ 종류

‘호상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가지(속옷, 바지,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 장옷,

도복, 보선, 허리띠 따위)와 부속품(이불, 검은호상, 엄두, 신발, 멩전 따위) 등으로 구성된다. 남자 옷과 여자 옷, 그리고 남녀 공통 부속품과 기타로 나눠 ‘호상옷’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1. 남자 옷

### 2.1.1. 속중의



[사진 5] 속중의

‘속중의’는 ‘맨 안에 끼입는 남자의 옷’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점벙이, 정벙이, 속곳’이라고 말한다.

⇒ {속중의에} 그 다음 중의, 바지.

### 2.1.2. 점벙이(잠방이)

‘점벙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훌바지.’를 말한다. 여름철 남자들의 입는 훌바지로, 여기서는 남자 ‘호상옷’ 가운데 맨 안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정벙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 호상옷 속옷으로부터. 속옷은 적삼 아랫도리 {점벙이}. 정벙이. 옛날엔 팬티 대신 점벙이라나서.

### 2.1.3. 중의

‘중의’는 ‘남자의 훌바지’를 말한다. ‘속중의’ 다음에 입은 후 그 위에 바지를 덧입는다. 훌바지여서 옷감을 붙인 곳은 단을 세 번 쥐는 방식으로 바느질을 하는데, 이를 ‘동근술’이라고 한다. 중의의 살 부문에는 바대를 붙이는데, 이를 ‘강알바데’라고 한다.

⇒ 팬티가 벗어난 속곳 이만이 허리 돌아근에 요만이 입곡 그 다음엔 바지 입곡 그 다음엔 또(중의). {중의엔}현 거 펄락현 중의. 바지 우의 입곡.

### 2.1.4. 바지

‘바지’는 ‘남자가 아랫도리에 입는 겉옷’을 말한다. 아랫도리는 ‘속중의→중의→바지’ 순으로 옷을 입는다.

⇒ {바지도} 그 물르는 폭에 상복. 곧은 거는 영. 만일. 이렇게 부트민 곧은 복으로 이렇게 허는 거는 상복.



[사진 6] 남자 바지

- ⇒ 바지에는 {데님}.
- ⇒ 바지 {다님을} 이렇게 무껴야 허거든.

### 2.1.5. 다님(대님)

‘다님’은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매는 끈’을 말한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 ‘데님’이라고 말하는데, 표준어 ‘대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2.1.6. 행경(행진)



[사진 7] 행경

‘행경’은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이다. 반듯한 형겼으로 소맷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끈을 두 개 달아서 돌려매게 되어 있다.’ 표준어 ‘행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행경은} 일로 터그네 요??지만 이레 박아그네 이디 단 헤영으네 일로 단 내영 올로 끈 두는 거.

### 2.1.7. 적삼



[사진 8] 남자 적삼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으로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길이와 품을 저고리보다 약간 작게 만든다. ‘적삼’은 홑옷이어서 ‘짓바데’와 ‘젓강바데’를 댄다. ‘짓바데’는 ‘깃에 덧대는 형겼 조각’을 말하고, ‘젓강바데’는 ‘겨드랑이에 덧대는 형겼 조각’을 말한다. 천과 천을 이은 자리는 ‘동근술’로 처리한다.

- ⇒ 적삼에는 짓바데, 젓강바데 놓고 곱 잡아가지고 동근술 허고.

### 2.1.8. 저구리

‘저구리’는 표준어 ‘저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남자의 윗옷의 한 가지로 창옷 안에 입는다. ‘저구리’는 저고리의 옛말(小襖子 {저구리} 옷《역해 상:45》)이다.

- ⇒ 요게 {저구리니까} 요디 압삽이지.





[사진 9] 남자 저구리



[사진 10] 창옷



[사진 11] 도복

### 2.1.9. 창옷

‘창옷’은 ‘예전에, 도포 밑에 입던 윗옷의 하나.’로 홀으로 만든다. 홀으로 만들기 때문에 적삼과 마찬가지로 ‘짓바데’와 ‘젓강바데’를 붙이고, 천을 이은 부분은 ‘동근술’로 처리한다. ‘창옷’은 ‘도포’ 안에 입는 옷으로, 표준어 ‘소창옷’의 준말이다.

- ⇒ 그 다음은 옷도리. 적삼 저구리. 또 그 다음은 {창옷} 입저근에 경 무끄는 거.
- ⇒ 실밥마다 다 {창옷은} 동근술을 해야 돼는디, 호상에는 이런 옆에는 다 동근술 해야돼.

### 2.1.10. 도복(도포)

‘도복’은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을 말한다. ‘도폭’, ‘큰옷’이라고도 말하는데, 표준어 ‘도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도복’은 소매가 넓고 등 뒤에 판 폭을 댈다. 등 뒤에 대는 판 폭을 ‘어불복’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옥색을 많이 입었으나 지금은 흰 명주로 만들어 입힌다. ‘도복’ 가슴 위로 띠를 맨다.

- ⇒ 여잔 장옷 남잔 {도복}.
- ⇒ {도폭} 입지민 이 띠를 무껴야 허거든.
- ⇒ 도복 {큰옷엔} 허주.

## 2.2. 여자 옷

### 2.2.1. 소중의(속곳)

‘소중의’는 ‘여자의 맨 속에 입는 속옷.’을 말한다. 물질할 때 입는 옷이 어깨에 끈이 달리고 허리가 넓게 되었다면, 평소에 여성들이 입는 ‘소중의’는 어깨 끈이 달려 있지 않고 허리 부분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표준어 ‘속곳’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소중의’ 위에는 ‘고장중의’(고쟁이)를 입고, 그 위에 단속곳을 입는다.



[사진 12] 소중의



[사진 13] 적삼. 소매 끝에 달린 것은 한삼이다.

⇒ 여자 거는 그 치마저고리만 따로 들고, {소중의} 들고, 이디 멧 가지만 따로 들주.

### 2.2.2. 속적삼

‘속적삼’은 ‘저고리나 적삼 속에 끼입는 적삼.’을 말한다. 여자의 윗옷 가운데 가장 맨 안에 입는 옷이다. 흘웃이기 때문에 ‘젓바데’와 ‘젓강바데’가 붙는다.

⇒ 또 {속적삼은} 또 더 부트는 게 있어. 젓바데.

### 2.2.3. 적삼

‘적삼’은 ‘여자가 저고리 안에 입는 적삼.’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속적삼을 가리킨다. ‘적삼’에는 시신의 손을 가리기 위해서 ‘한삼’(한삼)을 단다. 결혼할 때는 예복으로 입는 장옷 소매에 한삼을 달아서 입었다.

⇒ 호상옷 속옷으로부터. 속옷은 {적삼} 아랫도리 점뱅이. 정뱅이. 옛날엔 팬티 대신 점뱅이라 나서.

### 2.2.4. 속저고리

‘속저고리’는 ‘여자의 저고리 가운데 속에 입는 저고리.’를 말한다. 여자 ‘호상옷’ 가운데 저고리는 ‘속저고리’와 ‘겉저고리’ 두 벌을 해서 입힌다. ‘속적삼’ 대신 입는다. ‘속저고리’에는 동전을 달지 않는다.

⇒ 여자는 저고리 둘을 헤요. 둘 해서 {속저고리} 겉저고리 해서 꾀동 놓고 짓 **돌**고 허민 이제 옷은 다 뒗거든.

### 2.2.5. 저구리(저고리)

‘저구리’는 한복 윗옷의 하나다. ‘저고리’라고 표준어 어형 그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 그 다음은 옷도리. 적삼 {저구리}. 또 그 다음은 창옷 입저근에 경 무끄는 거.

⇒ 정뱅이, 또 바지, 또 중의, 치마, 또 보선. 여잔 그거허민 아랫것은 다 뒗고이. 우원 또 적삼, {저고리}, 적삼에 한삼도 **돌**고. 손 막아진 거.



[사진 14] 저구리

### 2.2.6. 것저고리(겉저고리)

‘것저고리’는 ‘저고리를 끼 입을 때 맨 겉에 입는 저고리’를 말한다. ‘것저고리’에는 동전을 단다.

⇒ 여자는 저고리 둘을 해요. 둘 해서 속저고리 {것저고리} 해서 끈동 놓고 짓 **ढ**고 허민 이제 옷은 다 뺏거든.

### 2.2.7. 혼삼(한삼)

‘혼삼’은 ‘손을 가리기 위하여서 두루마기, 소창옷, 여자의 저고리 따위의 윗옷 소매 끝에 흰 헝겊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를 말한다. 보통 혼례 때는 장옷에 한삼을 달아서 입는데, ‘호상옷’에는 적삼에 단다.

- ⇒ 정병이, 또 바지, 또 중의, 치마, 또 보선. 여잔 그거허민 아래 것은 다 뒤편이. 우원 또 적삼, 저고리, 적삼에 {한삼도} **ढ**고. 손 막아진 거.
- ⇒ 영 손을 가리우기 위해서 {혼삼을} 부찌는디 지금은 그 호상에는 적삼에 부찌.
- ⇒ 옛날은 그 신부덜영 절허곡 영허젠 허민게 그 질게 {한삼이} 꼭 그 혼 너비로 장옷에 부떠야 가리와졌주.

### 2.2.8. 단속곳

‘단속곳’은 ‘여자 속옷의 하나.’다. 양 가랑이가 넓고 밑이 막혀 있으며 흔히 속바지 위에 덧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는다. 예전에 속치마 대신 입었는데, ‘호상옷’에는 단속곳 대신 속치마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의 제작 기능인 김경생은 입히기 쉽게 ‘속치마’와 ‘것치마’를 하나로 합쳐 만든다고 한다.

- ⇒ 실은 결혼할 때도 {단속곳이} 잇었어. 바지 중의 입곡 속곳 입곡 중의 입고 바지 입곡 거 {단속곳이라고}.



[사진 15] 치메. 것치메와 속치메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다.

### 2.2.9. 치메(치마)

‘치메’는 ‘여자의 아랫도리 겉옷.’을 말한다. 표준어 ‘치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이젠 바질 {치메로} 봐. {치메} 두 개. 속치메 허곡, 것치메.

### 2.2.10. 속치메(속치마)

‘속치메’는 ‘겉치마 밑에 받쳐서 입는 치마.’를 말한다. ‘속치메’는 ‘속치마’를 뜻하는 제주어다.

⇒ 옛날은 보통 {속치메가} 어섯어. 게민 그 단속곳 입고 그디 치마 입고 그렇게 했는디 그게 이제 중간에는 단속곳은 없고 {속치메}, 치메 둘로 뒗거든.

### 2.2.11. 겹치메(겉치마)

‘겹치메’는 ‘치마를 껴 입을 때 맨 겉에 입는 치마.’를 말한다. 표준어 ‘겉치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젠 바질 치메로 봐. 치메 두 개. 속치메 허곡, {겹치메}.

### 2.2.12. 허리띠

‘허리띠’는 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또는 ② ‘예전에, 젓가슴을 가리기 위하여 여자의 가슴에 둘러 띠던, 끈이 달린 옷’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②를 ‘과도’라고 부른다.

⇒ 바지에 {허리띠}.

### 2.2.13. 과도



[사진 16] 과도

‘과도’는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후 그 사이에 덮는 허리띠.’를 말한다. ‘과두’, ‘과디’, ‘툃허리’, ‘군허리’라고도 말하는데, 옷을 입힌 다음에 허리에 묶는 허리(배) 싸개다. 예전에는 치마 길이가 짧아서 저고리와 치마 사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위에 허리띠로 마무리해 속살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명주나 삼베로 겹으로 한다. 염할 때 시신의 배를 싸는 데 쓰는 수의다.

⇒ {과도라고} 치마 입고 허리띠지. 이렇다면, 치메 입고 저고리 입은디 옛날은 동굴라져. 이디가. 치메를 우트레 안 입거든. 젓 우이 안 입으니까 알로 입으니까 동굴라지민 허리띠를. 만일 멍지민 두 폭해서 두 자 두 치를 놔. 영 특 가두와지게.

### 2.2.14. 장옷



[사진 17] 장옷

‘장옷’은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쓰던 옷.’을 말한다. 새색시의 결혼식 예복으로 이용하다가 죽을 때 수의의 맨 마지막에 입히는 옷이다. 예전에는 시집갈 때 어머니가 초록색 물을 들인 옷감에 자주색 깃과 끝동, 고름을 단 장옷을 많이 해서 입혔는데, 그 옷을 보관했다가 죽어서도 입고 갔다. 그러나 이묘 과정에서 시신의 뼈에 옷의 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깨끗이 한다고 하얀 색 명주로 장옷을 만들어 입힌다.

- ⇒ 여잔 {장옷} 남잔 도복.
- ⇒ 시집가젠허민 {장옷허고} 다 옷을 해야하거든. 그렇게 해주면은 그 옷을 다 놔두는 거라. 시집 가고 장계갈 때 옷은 놔두민 지금은 대림포니 뭐 그런 게 여유가 여러 가지 남주마는. 옛날은 다 그계 집에서 입는 결혼할 때 입는 옷이라. 지금 수의가.

## 2.3. 부속물



[사진 18] 엄도

### 2.3.1. 엄도

‘엄도’는 ‘시신의 옷을 입힌 다음에 설명주로 눈과 코 등을 막은 후에 머리를 감싸는 물건.’이다. 하얀 명주로 열십 자 모양으로 만든다. 남녀 공용이다.

- ⇒ {엄도로} 머리를 싸는 거. 요거 엄도. 그다음에 검은호상을 머리에 툇 씌우는 거.
- ⇒ {엄도는} 양쪽 풀을 이렇게 허고 으섯 가지가 고비쳐져.



[사진 19] 검은호상

### 2.3.2. 검은호상

‘검은호상’은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명주로 만든 모자.’를 말한다. 안은 붉은 색 명주로, 겉은 검정색 명주로 해서 만든다. 지역에 따라서 ‘복감티’라고도 말한다. 남녀 공용이다.

- ⇒ 엄도로 머리를 싸는 거. 요거 엄도. 그 다음에 {검은호상} 머리에 툇 씌우는 거.
- ⇒ 엄도로 으섯 가지를 고비청 얼굴을 막은 다음에 {검은호상} 딱 씌우

민. 검은호상은 안은 붉은 거 우는 검은 거니까게 그게 다 감추와지거든.

⇒ 머리에 씌우는 호상. 검은호상. {복감티}.

### 2.3.3. 악수



[사진 20] 악수

‘악수’는 ‘시신의 손에 끼우는 장갑.’을 말한다. 남녀 공용으로 양손에 끼울 수 있게 두 개를 만든다. ‘악수, 손싸개’라고도 부른다. 김동욱·고부자(1974, 1977), 고부자(1996)에 의하면, 예전에는 ‘겉은 검정, 안은 빨강’ 명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악수는} 손에 이렇게 끼우는 거.

### 2.3.4. 지금

‘지금’은 ‘관 안에 까는 요.’를 말한다. 표준어 ‘지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예전에는 물색으로 요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흰 명주로 만든다. 고부자(1996)에 의하면, “명주로 겹으로 하며 짙은 청색이나 녹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 흰색으로 한다. 속에는 ‘설멍지’나 한지를 둔다.”고 한다. 김경생은 요즘의 ‘호상’으로는 ‘깃’을 단 천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흰색 명주로만 한다고 한다. 김순자(2007)에 의하면, 관 아래 까는 요 ‘지금’은 검은 명주로, 위의 덮는 이불, ‘천금’은 붉은 명주로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천금 {지금} 헤시난. 관 안네 소랑이 꼴아 낱 우의 할망이나 그 우의 영 더꿍 관 더꺼.



[사진 21] 천금(위) 지금(아래)/여자용

### 2.3.5. 천금

‘천금’은 ‘관 안에 있는 시신을 덮는 이불.’을 말한다. 예전에는 물색으로 했으나 지금은 흰색 명주에 남자 이불은 초록색 깃을 달고, 여자 이불은 붉은 색 깃을 달아서 남녀용을 구분한다. 김순자(2007)에 의하면, 관 아래 까는 요 ‘지금’은 검은 명주로, 위의 덮는 이불, ‘천금’은 붉은 명주로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천금은} 마지막 더끄는 거.

⇒ 이불고란 {천금} 지금. {천금이엔} 흰 건 우의 더끄는 거. 아랜 검은 거 꺾 . ≡고 우의 더끄는 건 붉은 거 더끄고.

### 2.3.6. 대림포



[사진 22] 대림포

‘대림포’는 ‘시신에게 수의를 다 입힌 후에 마지막으로 싸는 천.’을 말한다. 삼베나 명주를 이용한다. ‘대림포’는 대렴할 때 사용하는 보자기로서, 명주 한 필 정도 든다고 한다. 5~7폭으로 만들며 남녀 공용이다.

⇒ {대림포는} 마지막 이렇게 낱 영 놓고 저영 낱 싸는 거. 멍지 거자 혼 필 드는 거.

### 2.3.7. 손수건

‘손수건’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쓰는 얇고 자그마한 수건.’이다. 시신을 관 안에 들여놓을 때 자식들이 명주 손수건을 하나씩 관 안에 넣는다. 영혼이 저승에 들어가면서 땀도 닦고, 영혼도 만나면 선사품으로 쓰라는 뜻에서 넣는 보공물이다. 남녀 공용이다.

⇒ 옛날 다리니 없는 때는 지전 물랑. 그 종이 지전 물랑 또 후끔씩 놓고 이제 {손수건} 하나씩을 가면서 씌센 허민.

### 2.3.8. 주멩기

‘주멩기’는 ‘시신의 머리와 손톱 발톱 따위를 잘라서 넣는 주머니.’를 말한다. 모두 다섯 개를 만든다. 남녀 공용이다. 이 ‘주멩기’를 김영돈(1973), 고부자(1996)는 ‘소랑’, 김동욱·고부자(1974,1977)는 ‘소낭’(대낭)이라고 하였다. 또 ‘오낭, 汚囊, 小囊, 爪髮囊’이라고도 한다. ‘오낭’은 주머니가 다섯이어서 붙인 이름이다. 汚物을 담는다고 해서 ‘汚囊’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영돈(1973) 등은 “머리털과 발톱, 손톱을 깎아서 담을 명주나 창호지로 만든 주머니. 머리털 좌측 우측 좌수 우수를 넣을 주머니 5개를 만든다.” 하여 김경생의 ‘시신의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 담배, 노잣돈’을 담는 용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주멩기’는 표준어 ‘주머니’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표준어 ‘조발낭(爪髮囊)’을 의미한다. 고부자(1996)는 “격식대로 하면 검은 검정, 안은 붉은 색으로 하나 형편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흰생명주로 하거나 약식으로 창호지나 삼베도 쓴다.”고 한다.

⇒ {주멩기는} 다섯 겹 놓민 그 사람이 죽으면 손톱, 발톱 깎아 놓고, 머리 끊어 놓고, 또 이제 담배 놓고, 또 노잣돈 놓고 그러는 게 다섯 개가 들어가.



### 2.3.9. 보선(버선)



[사진 23] 보선

‘보선’은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물건.’을 말한다. 겹버선이나 솜버선으로 하는데, 안에는 명주솜이나 창호지를 넣는다. ‘보선’은 표준어 ‘버선’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남녀 공용이다.

⇒ 정뱅이, 또 바지, 또 중의, 치마, 또 {보선}. 여잔 그거허민 아래 것은 다 뒤흔고이. 우원 또 적삼, 저고리, 적삼에 한삼도 돌고. 손 막아진 거.

### 2.3.10. 신발



[사진 24] 신발

‘신발’은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말한다. ‘신’이라고도 말한다. ‘호상옷’의 부속물은 ‘저승신’으로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신는 신을 말한다. 고무신 모양이며 명주나 베 또는 한지로 만들고 양쪽 옆에 끈을 달았다. 안에 명주솜 따위를 넣는다. 남녀 공용이다.

⇒ 보선 {신발은} 다 7트는 거.

### 2.3.11. 베개



[사진 25] 베개

‘베개’는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을 말한다. 명주나 베로 만들고 겹으로 한다. 안에는 ‘설멩지’(명주솜)가 제일 좋지만 모래, 찰흙, 재, 숯가루를 넣기도 한다.

⇒ {베개} 낱 배우는 거.

### 2.3.12. 설멩지(명주솜)

‘설멩지’는 ‘명주를 원료로 한 솜.’을 말한다. 시신의 눈과 코, 귀 등 구멍을 막고 턱이나 목을 바로 고일 때 쓰는 솜이다. 베개 속이나 버선 속에 넣는 데도 쓰인다. ‘설멩지’는 ‘설





[사진 26] 설명지

명주, ‘맹지숨’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명주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우선 돌아가민 모욕 시켜서 옷 입히고. 이거를 다 {설명지로} 막아요. 고망을 꼭꼭 {설명지로}.
- ⇒ 사람이 죽으면 코로 영 물이 **츄츄** 흐르민 물이 아니고 피라. 그러니까 {설명주로} 꼭꼭 고냥 막곡 **뚝** 흔들카부덴 바치곡.

### 2.3.13. 기타

#### 1) 동심줄



[사진 27] 동심줄

‘동심줄’은 ‘대렴을 한 시신을 관 안에 넣고 그 위에 넣는 물건. 검은명주와 노란명주 위에 놓는 오색실로 아래 사진의 모양으로 결은 물건.’을 말한다. 고부자(1996)의 의하면, “우물정자로 뒷면에는 열십자 모양으로 맺는데, 혼백상에 두었다가 하관 때에 관 위에 가슴 쪽에 두고 묻는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동심결’과는 의미가 다르다.

- ⇒ {동심줄을} **뭇**앙, **뭇**앙은에 지금은 우리가 다 만들앙 **후**나로 허는디 **뭇**앙은에 그 노란명지에 검은명지에 {동심줄} 이렇게 딱 **구**치 뇌근에. 관우에 놓는 거.

#### 2) 지전

‘지전’은 ‘돈 모양으로 오린 종이.’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저승 가는 길에 노자(路資)로 쓰라는 뜻으로 관 속에 넣는다.

- ⇒ 옛날 다리니 없는 때는 {지전} **뭇**랑. 그 종이 지전 **뭇**랑도 **후**끔씩 놓고 이제 손수건 하나씩을 가면서 **쌌**센 허민.

#### 3) 관포

‘관포’는 ‘관을 싸는 보자기.’를 말한다.

- ⇒ 관 우에 더프는 걸 {관포라고} 허거든. {관포} 그 다음은 관띠.

#### 4) 관띠

‘관띠’는 ‘관을 묶는 띠.’를 말한다. ‘관띠’는 ‘삼베’로 만든다.

⇒ 관 위에 더뜨는 걸 관포라고 허거든. 관포 그 다음은 {관띠}.

#### 5) 멩전(명정)

‘멩전’은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로, 일정한 크기의 긴 천에 보통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지낼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에 널 위에 펴 묻는다. ‘멩전’은 표준어 ‘명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멩전’을 보고 고인의 지위 등을 가늠할 수 있다.

⇒ 그 다음은 {멩전}. 들렁 나가는 거.

#### 6) 보공

‘보공’은 ‘빈 곳을 채워서 메움. 또는 그런 물건.’을 말한다. 고인의 옷을 넣기도 하고, ‘산디찍’(밭벼짚)을 ‘덩드렁마께’로 두들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창호지나 백지에 싸서 보공으로 넣기도 한다.

⇒ 옛날은 옷이 잇는 분은 옷으로 보공을 놓고, 경 아녀민 산디찍을 독독독 쳐서. 던드렁에서 독독독 두드려. 복삭허게. 두드려서 그 놈을 창호지에나 백지에나 뽕뽕 싸가지고 옆이 다 꼭꼭 접혀.

### 2.4. 부분 명칭

부분 명칭은 윗옷과 아래옷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윗옷과 아래옷에 다 포함된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만 다루었다.

#### 2.4.1. 윗옷

##### 1) 이몸

‘이몸’은 ‘저고리나 장옷 따위의 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 ‘잇몸’이라고도 말한다.

⇒ 소중의는 전부가 일곱 자를 놔요. 일곱 자 지러기민 녀자는 {이몸으로} 헤서 딱고비쳐서 녀 자 허고, 또 반자는 이디 놓는 게 잇어요.

⇒ 저고리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압섭, 동전, 짓, 섭 다 잇주게.

## 2) 진동

‘진동’은 ‘소매에서 깃과 닿는 부분의 폭이나 넓이.’를 말한다.

⇒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스미, 압섭, 동전, 짓, 섭 다 잇주게.

## 3) 스미(소매)

‘스미’는 ‘윗옷의 좌우에 있는 두 팔을 꿰는 부분.’을 말한다.

⇒ 이견 {스미}, 질스미, 요디 부찌는 거를 밧압섭, 요디 부찌는 거는 안압섭, 요건 짓, 또 바위 부치는 건 동전, 요건 긴곰, 요건 쪼른곰, 소곰에 부치는 건 젓곰.

## 4) 질스미

‘질스미’는 ‘저고리의 소매 가운데 이어 만든 부분.’을 말한다. 소매가 짧아서 천을 덧붙여 만든 소매의 한 부분을 말한다.

⇒ 저고리하나에 진동, 잇몸, {질스미}, 압섭, 동전, 짓, 섭 다 잇주게.

⇒ {질스미} 스미 이오는 거.

⇒ 스미가 쪼르면 이거 잇는 거는 {질스미고}, 또 물색으로 놓는 거는 곳동이고.

## 5) 곳동(끝동)

‘곳동’은 ‘여자의 저고리 소맷부리에 댄 다른 색의 천.’을 말한다.

⇒ 물색으로 {곳동} 놓고, 짓도 물색으로 허고.

## 6) 짓(깃)

‘짓’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을 말한다. ‘짓’은 표준어 ‘깃’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깃’의 강원, 경남, 함경방언으로만 올라 있다.

⇒ 물색으로 곳동 놓고, {짓도} 물색으로 허고.

## 7) 목고대

‘목고대’는 ‘뒷목의 깃’ 부분을 말한다.

⇒ 이것 7라 {목고대렌}허거든.

### 8) 섭(섭)

‘섭’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따위의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형겅.’을 말한다.

⇒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압섭, 동전, 짓, {섭} 다 잇주게.

### 9) 압섭(앞섭)

‘압섭’은 ‘옷의 앞자락에 대는 섭.’을 말한다.

⇒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압섭}, 동전, 짓, 섭 다 잇주게.

### 10) 안압섭(안앞섭)

‘안압섭’은 ‘옷의 앞자락에 대는 섭 가운데 속으로 여며지는 부분.’을 말한다.

⇒ 이건 수미, 질수미, 요디 부찌는 거를 밧압섭, 요디 부찌는 거는 {안앞섭}, 요건 짓, 또 바위 부치는 건 동전, 요건 긴곰, 요건 쪼른곰, 소곰에 부치는 건 젓곰.

### 11) 밧압섭(바깥앞섭)

‘밧압섭’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따위의 윗옷의 깃 아래쪽에 달린 바깥부분의 길쭉한 형겅.’을 말한다.

⇒ {밧압섭은} **후썰** 넓게 허고 안압섭은 좁게 허곡.

### 12) 곰(고름)

‘곰’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도포 따위의 옷의 깃 끝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형겅 끈.’을 말한다.

⇒ 한쪽 {곰은} 길게 이렇게 감는 거는 두자 지러길 놓고 훈쪽은 혼자허민 이렇게 훈불 감아다가 줄라메는 거.

### 13) 큰곰(긴 고름)

‘큰곰’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따위의 고름 가운데 길이가 긴 고름.’을 말한다.

⇒ 두루마기도 젓강바데, 짓바데 있어요. 또 {큰곰}, 젓곰 잇고.

## 14) 젓곰(젓 고름)

‘젓곰’은 ‘옷의 안깃을 여미어 매는 옷고름.’을 말한다. 적삼 따위의 옷깃을 여밀 때 사용하는 끈이 짧은 고름이다.

⇒ 두루마기도 젓강바데 짓바데 있어요. 또 큰곰, {젓곰} 잇고.

## 15) 진곰(긴 고름)

‘진곰’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도포 따위의 옷의 깃 끝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형겔 가운데 긴 끈.’을 말한다. ‘긴곰’이라고도 한다. ‘진곰’은 ‘긴 고름’이라는 뜻의 제주어다.

⇒ 이거 {진곰}, 이건 썩른곰. 요 곰으로 둘러당으네 요디 낱 요 곰영 고비청 졸라메는 거.

## 16) 썩른곰(짧은고름)

‘썩른곰’은 ‘고름 가운데 길이가 짧은 고름.’을 말한다. 긴 고름으로 고를 내고 짧은 고름으로 둘러서 고름을 맨다.

⇒ 이거 진곰, 이건 {썩른곰}. 요곰으로 둘러당으네 요디 낱 요곰 영 고비청 졸라메는 거.

## 17) 바데(바대)

‘바데’는 ‘홀적삼이나 고의 따위의 잘 해지는 곳에 안으로 덧대는 형겔 조각.’을 말한다.

⇒ 창옷에도 {바데} 들어가. 창옷에도 짓바데, 젓강바데.

## 18) 젓강바데(겨드랑이바대)

‘젓강바데’는 ‘적삼의 겨드랑이 부분에 덧댄 바대.’를 말한다. 적삼은 홀으로 만들어져서 ‘젓강’ 부분에 형겔을 덧대서 단단하게 했다. ‘젓강’은 표준어 ‘겨드랑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젓겅이도 땀이 나민 빨리 꿰어지거든게. {젓강바데도} 딱루 뉘.

⇒ 수의같은 것도 꿰어지나 그런 염려는 없는 디 옛날 고전식으로 썩곰이라도 짓바데, {젓강바데} 다 뉘요. 지금도 그중의 적삼에는 그런 걸 다 놓주.

## 19) 짓바데(깃바대)

‘짓바데’는 ‘홀옷의 깃고대 안쪽으로 길고 넓게 덧붙여서 등까지 대는 형겔.’을 말한다.



[사진 28] 짓바데

‘짓’은 ‘깃’의 제주어로, 깃에 덧대는 천을 말한다. 표준어 ‘등바데’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짓바데’는 ‘깃바데’를 말하는데, 등바데의 옛말이다.

⇒ 또 속적삼은 또 더 부트는 게 있어. {짓바데}. {짓바데 가} 이 옛날에 옷을 입으면 땀이 찰찰 나민 일로 옷 이 먼저 끊어지거든. 그러면 이런 군걸 짓바데라고 놔 놓고

## 20) 동전(동정)

‘동전’은 ‘한복의 저고리의 깃 위에 조붓하게 덧대어 꾸미는 하얀 헝겊오리.’를 말한다. ‘동전’은 표준어 ‘동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저고리는 {동전을} **돌**고 적삼은 {동전을} 안 **돌**았어.

## 21) 어불복

‘어불복’은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인 도복 등 뒤에 덧붙여진 폭.’을 말한다.

⇒ {어불복을} 어디다가 부찌는가 허민 요건 짓이난 짓바데에 부찌는 거어.

⇒ 짓바데에 이디 {어불복이라고}. 혼 폭을 둘에 갈라서 요건 등실밥인디, {어불복을} 이딜 찌여가 지고 박지 안 해서 “어불복이라이}.

## 2.4.2. 아래옷

### 1) 복(폭)

‘복’은 ‘하나로 연결하려고 같은 길이로 나누어 놓은 종이, 널, 천 따위의 조각.’을 말한다. 표준어 ‘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치마폭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복’은 ‘폭(幅)’의 옛말(幅 혼 {복} 복<<훈몽 중:9>>)이다.

⇒ 치마는 이제 지러기는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지러기. 키가 크면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작으면 자 아홉 치를 놓고. 또 이제 {복} 수를 짝그르게 헨다고 해서 일곱 폭. 일곱 폭으로 치마를 허 여서

### 2) 치마폭

‘치마폭’은 ‘피륙을 잇대어 만든 치마의 너비.’를 말하는데, 홀수로 한다고 한다.

⇒ 그딘 아무 것도 아닌 {치마폭}.

### 3) 지러기(길이)

‘지러기’는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지러기’는 ‘기장’이라고 한다. ‘스밋 기장’은 소매 길이를 말하고, ‘저구리 지러기’는 저고리의 길이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길이’의 강원 방언으로만 되어 있다.

⇒ 치마는 이제 {지러기는}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지러기. 키가 크면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작으면 자 아홉 치를 놓고. 또 이제 복 수를 짝그르게 헐다고 해서 일곱 폭. 일곱 폭으로 치마를 허어서

### 4) 허리

‘허리’는 ‘바지나 치마, 고의 따위의 맨 위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음의 예문은 ‘호상 옷’의 속치마와 겹치마 두 개를 함께 붙여서 허리를 단다는 말이다.

⇒ 치메 두 개 꺾치 {허리} 돌아.

### 5) 허리곰

‘허리곰’은 ‘치마의 허리에 다는 고름.’을 말한다. ‘곰’은 표준어 ‘고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치마. {허리곰}.

### 6) 단

‘단’은 ‘옷자락 끝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어붙이거나 감친 부분.’을 말한다. ‘중의’는 단을 꺾어서 박기 때문에 단이 있지만, 바지는 안팎을 같이 어울려서 붙이기 때문에 단이 없다.

⇒ 중의는 영 꺼깁 {단을} 허니까 단이라고 허는디 바지는 안팎을 같이 어울려 부치는 때문에 단이 없어.

### 7) 상복(마루폭)

‘상복’은 ‘바지나 고의 따위의 허리에 달아 사폭을 대는 긴 형깁.’을 말한다. 표준어 ‘마루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바지도 그 **뭉**르는 폭에 {상복}. 곧은 거는 영. 만일 이렇게 부트민 곧은복으로 이렇게 허는 거는{상복}.

### 8) 진셋복(큰사폭)

‘진셋복’은 ‘남자 한복바지에서 마루폭과 마루폭 사이에 댄 큰 폭.’을 말한다. ‘큰셋복’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큰사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짓바데로부터 {진셋복을} 부찌는 거.
- ⇒ 중간으로 영허는 거는 이제 {큰셋복}, 작은셋복. 크게 **뭉**라근에 작은셋복을 {큰셋복에} 앓당 부찌야 상복에 부짱 바지를 맞게 접는 거.

### 9) 작은셋복(작은사폭)

‘작은셋복’은 ‘바지나 고의 따위의 오른쪽 마루폭에 대는 형격.’을 말한다. 표준어 ‘작은사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중간으로 영허는 거는 이제 큰셋복, {작은셋복}. 크게 **뭉**라근에 {작은셋복을} 큰셋복에 앓당 부찌야 상복에 부짱 바지를 맞게 접는 거.

### 10) 소중의바데(속곳바대)

‘소중의바데’는 ‘소중의 밑에 덧댄 형격’을 말한다. 살 부분이 잘 헐기 때문에 질기게 하기 위해 형격을 덧대어서 만들었다. ‘바데’는 표준어 ‘바대’의 제주어다.

- ⇒ 소중의는 전부가 일곱 자를 놔요. 일곱 자 지러기민 녁 자는 이몸으로 해서 딱 고비쳐서 녁 자허고, 또 반자는 이디 놓는 게 잇어요. {소중의바데라고}.

### 11) 강알바데(살밑바대)

‘강알바데’는 ‘중의의 살 부문에 덧대는 형격 조각.’을 말한다. ‘강알’은 ‘살 밑’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 ⇒ 중의는 알로 찢어질까부다고 중의에 {강알바데} 조끔 놔.

### 12) ㅁ작단추(매듭단추)

‘ㅁ작단추’는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별ㅁ작’, ‘들마기’라고 하는데, 소중의 따위를 여밀 때 사용하는 형격으로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를 말한다.



- ⇒ 고름이 없으니까. {무작단추} 무작으로 이렇게 못쳐져 해서 하나까.
- ⇒ 이디도 {벌무작을}. 막아지게 세 개씩을 돌아. 겐디 양반덜이 입는 거는 딱이 하나만들고.

### 3. 재료

#### 3.1. 주재료

##### 3.1.1. 멩지(명주)

‘멩지’는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을 말한다. 표준어 ‘명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호상옷’과 부속품을 만드는 재료이다.

- ⇒ 우리 시집갈 때까지 난 게 {멩지허고} 인주법단이엔 헨에 그거밖에 안 나봐서.

##### 3.1.2. 검은멩지(검은명주)

‘검은멩지’는 ‘검은 물을 들인 명주.’를 말한다. ‘검은호상’의 재료이다.

- ⇒ 동심줄을 못앙, 못앙은에 지금은 우리가 다 만들앙 하나로 허는디 못앙은에 그 노랑멩지에 {검은멩지에} 동심줄 이렇게 딱 그치봐근에. 관우에 놓는 거.

##### 3.1.3. 노랑멩지(노랑명주)

‘노랑멩지’는 ‘노란 물을 들인 명주.’를 말한다. ‘동심줄’의 재료이다.

- ⇒ 동심줄을 못앙, 못앙은에 지금은 우리가 다 만들앙 하나로 허는디 못앙은에 그 {노랑멩지에} 검은멩지에 동심줄 이렇게 딱 그치 봐근에. 관 우에 놓는 거.

##### 3.1.4. 양단

‘양단’은 ‘은실이나 색실로 수를 놓고 겹으로 두겹게 짠 고급 비단의 하나.’이다. ‘호상옷’의 재료로 쓰인다.

- ⇒ 검은호상 검은멩지나 {양단이나}.

### 3.1.5. 베

‘베’는 ‘삼실로 짠 천.’을 말한다. 보통 ‘삼베’라고 일컫는다. ‘호상옷’의 재료로 쓰이거나 시신에게 ‘호상옷’을 입힌 다음에 명주로 시신을 짠 다음 묶을 때 사용한다. 시신을 묶을 때는 ‘열두 메께’(열두 매듭)로 묶고, 시신을 관 안에 넣은 다음에는 자식들이 모두 한 매듭 한 매듭 끄른다고 한다. 시신을 쌓는 보자기는 ‘대림포’라고 한다. ‘대림포’는 스물 석자 짜리 베 한 필이 든다고 한다.

⇒ 대림포 다음에 {베로} 무끄는 거. 스물 석자짜리 흔 빌 들어.

## 3.2. 부재료

### 3.2.1. 백지(백지)

‘백지’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흰빛의 우리나라 종이.’를 말한다. 관 안에 넣는 지전이나 보공의 재료인 ‘산디찍’(발벗짚)을 쌀 때 사용한다.

⇒ 옛날은 옷이 잇는 분은 옷으로 보공을 놓고, 경 아녀민 산디찍을 독독독 쳐서. 던드렁에서 독독독 두드려. 복삭허게. 두드려서 그 놈을 창호지에나 {백지에나} 뱅뱅 싸가지고 옆이 다 꼭꼭 짚혀.

### 3.2.2. 오색실

‘오색실’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다섯 가지 빛깔의 실.’을 말한다. 시신을 관 안에 들여 놓은 후 시신의 가슴 위에 얹어 놓는 ‘동심줄’의 재료이다.

⇒ {오색실} 행으네 동심줄을 뭏앙.

### 3.2.3. 창호지

‘창호지’는 ‘재래식 종이의 한 가지.’로 보공의 재료로 쓰인다.

⇒ 옛날은 옷이 잇는 분은 옷으로 보공을 놓고, 경 아녀민 산디찍을 독독독 쳐서. 던드렁에서 독독독 두드려. 복삭허게. 두드려서 그 놈을 {창호지에나} 백지에나 뱅뱅 싸가지고 옆이 다 꼭꼭 짚혀.

### 3.2.4. 산디찍(발벗집)

‘산디찍’은 ‘발벼의 짚.’을 말한다. 표준어 ‘발벗집’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보공의 재료로 쓰인다.

- ⇒ 옛날은 옷이 잇는 분은 옷으로 보공을 놓고, 경 아녀민 {산디찍을} 똑똑똑 쳐서. 던드렁에서 똑똑똑 두드려. 복삭허게. 두드려서 그 놈을 창호지에나 벵지에나 뱅뱅 싸가지고 옆이 다 꼭꼭 접혀.

## 4. 제작 도구

### 4.1. 재단 도구



#### 4.1.1. 자

‘자’는 ‘길이를 재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 ⇒ 허리는 두 {자들} 놓지.

#### 4.1.2. ㄱ세(가위)

[사진 29] 자와 가위(아래)  
‘ㄱ세’는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가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4.2. 바느질 도구

#### 4.2.1. 바농(바늘)

‘바농’은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을 말한다. ‘바농’은 표준어 ‘바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바느질을 잘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주에서는 ‘바농질와치’(바느질아치)라고 말한다.

- ⇒ {바농허고} 싹허고 또 바농귀 꿰는 거 허고.

#### 4.2.2. 싹(실)

‘싹’은 ‘고치, 털, 솜, 삼 따위나 화학원료를 써서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것.’으로서,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하는 데 쓴다. 표준어 ‘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바농허고 {싹허고} 또 바농귀 꿰는 거 허고.

### 4.2.3. 골미(골무)

‘골미’는 ‘바느질할 때 바늘귀를 밀기위하여 손가락에 끼는 도구.’다. 표준어 ‘골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강원, 경남, 전라, 평안, 함경 방언으로 되어 있다.

⇒ 손 찢러볼카 부덴 {골미} 찌.

## 4.3. 마무리 도구

### 4.3.1. 다리웨(다리미)



[사진 30] 다리미(왼쪽)와 다리웨, 윤디

‘다리웨’는 ‘매끄러운 밑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옷 따위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 데 쓰는, 쇠붙이로 된 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다리미’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다리웨렌}. 지금은 다리미엔 허는다.

### 4.3.2. 윤디(인두)



[사진 31] 윤디

‘윤디’는 ‘바느질할 때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예전 제주 사람들은 방안에 화로를 살라놓고 그 안에 ‘윤디’를 묻었다가 바느질 할 때 옷을 다리는 용도로 사용했다. ‘윤디’는 표준어 ‘인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윤디로만} 누르뻏주.

### 4.3.3. 윤디판(인두판)

‘윤디판’은 ‘인두질할 때, 다리는 물건을 올려놓는 기구.’로 직사각형의 널조각 위에 솜을 두고 종이나 형짚으로 싸서 만든다. 표준어 ‘인두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윤디판} 나무 영 질게 헤영으네 요만히 허게 헤영이 제도 잇주. 기지로 쌍으네 그디 찌끔 뚜꺼운 솜이나 뭐 뵁허게 감앙 광목으로 싸근에 바농으로 좃앙 호앙은에 경 행 그것에 다려.

#### 4.3.4. 화리(화로)

‘화리’는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으로,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쓴다.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화로에 불을 담아 다림질할 인두를 묻어두고 썼다. 청동으로 된 화리는 ‘정동화리’, 질흙으로 된 화로는 ‘지새화리’, 돌로 만든 화로는 ‘돌화리’라고 한다.

⇒ {화리에} 불 살라그네. 재로 꼭꼭 묻어 둬서 오래허젠 허민 영 윤디 그레 썩 질렀다근 다까똥.

### 5. 제작 과정에서 생산된 어휘

#### 5.1. 재단 과정 어휘

##### 5.1.1. 몰르다(마르다)

‘몰르다’는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다.’를 뜻으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재단허다’라고도 말한다. 표준어 ‘마르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바지도 그 {몰르는} 폭에 상복. 곧은 거는 영. 만일 이렇게 부트민 곧은복으로 이렇게 허는 거는 상복.

⇒ 호상웃은 베염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난 날 아니민 재단허는 거.

##### 5.1.2. 기치다(자르다)

‘기치다’는 ‘실, 줄, 끈, 천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하다.’는 뜻의 제주어다. 사람에 따라서 ‘그치다’라고도 말한다.

⇒ 딱 잡앙으네 몰르민 똌로똌로 {기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민 그게 다 그 훈 폭에서 나오게 똌주.

#### 5.2. 바느질법 관련 어휘

##### 5.2.1. 바농질(바느질)

‘바농질’은 ‘바늘에 실을 꿰어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일.’을 말한다. 표준어 ‘바느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바농질이} 역불 이거 배우젠 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집안에서 커가면서.

### 5.2.2. 손바농질(손바느질)

‘손바농질’은 ‘기계를 쓰지 아니하고 직접 손으로 하는 바느질.’을 말한다. 표준어 ‘손바느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등잔불 놔그네, 손으로 다 보선 수눅 새기곡. 그걸 {손바농질} 헛주.

### 5.2.3. 뒷바농질(뒷바느질)

‘뒷바농질’은 ‘박음질의 한 종류.’다. 한 팜씩 잇대어 하는 것으로, 바늘을 앞 팜의 제자리에 꽂아 박는 바느질법을 말한다.

⇒ 호상웃은 {뒷바농질도} 안 허곡. 뜰어 고찌지도 안 허곡. 날 봐서 **물**곡. 지금도 그러지.

### 5.2.4. 텅침(온박음질)

‘텅침’은 ‘박음질의 하나.’를 말한다. 한 팜씩 잇대어 하는 것으로, 바늘을 앞 팜의 제자리에 꽂아 박는다. 표준어 ‘온박음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옛날은 그 뒷바농질로 {텅침이엔} 헤영 지금 그 미싱에서 박듯이 **돈**돈히 허젠 허민 {텅침} 바농질을 허는 거고.

### 5.2.5. 감치다

‘감치다’는 ‘바느질감의 가장자리나 솔기를 실을 풀리지 않게 용수철이 감긴 모양으로 감아 꿰매다.’는 뜻이다. 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바느질법이다.

⇒ 옛날은 단허는 거 {감쳐}.

### 5.2.6. 박다

‘박다’는 ‘실을 곱걸어서 꿰매다.’는 뜻이다. 바느질을 단단히 할 때 사용한다.

⇒ 둥근술이렌 현 건 이렇게 베겏딜로 호아서 또 이렇게 또 두 불 놔서 또 이렇게 해서 베겏딜로 {박는} 거. 세 번을 {박는}거.

### 5.2.7. 시끄다(징그다)

‘시끄다’는 ‘시꾸다’라고도 말해지는데, ‘옷의 해지기 쉬운 부분이 쉽게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천을 대고 듬성듬성 꿰매다.’는 뜻이다. 마름질 한 후 바느질을 하기 전에 형태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듬성듬성 해두는 바느질법이다. 표준어 ‘징그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밧 두 개가 이몸에 부찌는 거거든. 이몸에 부찌민 이게 툇 시끄아져서 요거 두 개가 시꾸아져야 이 강알이 툇 시끄아지는 거.

### 5.2.8. 호다

‘호다’는 ‘형짚을 겹쳐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는 뜻이다.

- ⇒ 동근술이렌 현 건 이렇게 베겻딜로 {호아서} 또 이렇게 또 두볼뵈서 또 이렇게해서 베겻딜로 박는 거. 세 번을 박는 거.

### 5.2.9. 줍다(깁다)

‘줍다’는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는 뜻이다. 표준어 ‘깁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등잔불에 앉아서 헛웃도 {줍곡} 그런 걸 허는다. 치마는, 이제 처음은 이젠 무신 옷을 먼저 만드느냐 허면 우선에 이제 여자로부터은 치메저고리 만들거든.

### 5.2.10. 들다(달다)

‘들다’는 ‘물건을 일정한 곳에 붙이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동전을 들다, 믱작단추를 들다’ 따위처럼 쓰인다.

- ⇒ 저고리는 동전을 {들고} 적삼은 동전을 안 {들었어}.

### 5.2.11. 못다(맷다)

‘못다’는 ‘노, 실,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만들다.’는 뜻이다. 표준어 ‘매듭단추’에 대응하는 ‘믹작단추’ 또는 ‘별믹작’, ‘들마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어휘다. ‘동심줄’을 만들 때 도 ‘못다’라 표현한다.

- ⇒ 동심줄을 {뭏앙}, {뭏앙은에} 지금은 우리가 다 만들앙 하나로 허는디 {뭏앙은에} 그 노란멩지에 검은멩지에 동심줄 이렇게 딱 7치 놔근에. 관우에 놓는 거.

### 5.2.12. 동근술



[사진 32] 동근술

‘동근술’을 ‘옷 따위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후에 남는 시접을 하나로 감싸기 위하여 천을 세 번 감아서 동그렇게 만들어 박는 바느질.’을 말한다. 홑옷인 적삼과 창옷 따위의 두 폭을 맞대고 꿰맨 후에 남는 시접을 하나로 동그렇게 박을 때 사용하는 어휘다. ‘동근+술’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로, ‘동근’은 ‘동근-’, ‘술’은 ‘술기’를 뜻하는 ‘술’의 이형태로 보인다.

- ⇒ 적삼에는 짓바데, 짓강바데 놓고 곱잡아가지고 {동근술} 허고.
- ⇒ {동근술이렌} 헌 건 이렇게 베겏딜로 호아서 이렇게 또 두 불 놔서 또 이렇게 해서 베겏 딜로 박는 거. 세 번을 박는 거.

### 5.2.13. 수눅 새기다

‘수눅 새기다’는 ‘버선 따위의 등에 꿰매서 술기를 만들다.’는 뜻이다.

- ⇒ 등잔불 놔그네, 손으로 다 보선 {수눅 새기곡}. 그걸 손바농질 헛주.

### 5.2.14. 주름잡다(주름잡다)

‘주름잡다’는 ‘옷의 폭 같은 것에 주름이 지게하다.’는 뜻이다. 보통 치마허리에 주름을 잡을 때 사용하는 어휘다. ‘주름잡다’는 표준어 ‘주름잡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치메는 저 포로 다 워로 박고 단 박고 허리에 주름을 썩불썩불 잡아서 이제 혼 아마 삼 센치 썩 {주름을 잡아요}.

## 5.3. 마무리 과정 어휘

### 5.3.1. 다리다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는 뜻이다.



⇒ 다리워로 {다리는} 거. 그자 못 다리민 마주 심영 이렇게 불피왕 {다렸주}.

## 5.4. 기타

### 5.4.1. 고비치다(곱치다)

‘고비치다’는 ‘반으로 접어 한데 합치다.’는 뜻이다. 표준어 ‘곱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엄도로 으섯 가지를 {고비청} 얼굴을 막은 다음에 검은호상을 딱 씌우민. 검은호상은 안은 붉은 거 우는 검은 거니까게 그게 다 감추와지거든.

### 5.4.2. 꺼끄다(꺾다)

‘꺼끄다’는 ‘천 따위의 얇은 물체를 구부리거나 굽히다.’는 뜻이다. 단을 만들 때 천을 접을 때 하는 말이다.

⇒ 중의는 영 {꺼깁} 단을 허니까 단이라고 허는디 바지는 안팎을 같이 어울려 부치는 때문에 단 이 없어.

### 5.4.3. 깔 다(꺨다)

‘깔 다’는 ‘이불 따위를 바닥에 펴놓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 천금 지금 헤시난. 관 안네 소랑이 {깔 아} 방 우의 할망이나 그 우의 영 더깁 관 더껴.

### 5.4.4. 끼우다

‘끼우다’는 ‘몸에 걸려 있도록 걸치거나 꿰어주다.’는 뜻이다.

⇒ 왁수는 손에 이렇게 {끼우는} 거.

### 5.4.5. 더끄다(덮다)

‘더끄다’는 ‘물건 따위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넓은 천 따위를 얹어서 씌우다.’는 뜻이다. 표준어 ‘덮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천금은 마지막 {더끄는} 거.

#### 5.4.6. 무끄다(뭉다)

‘무끄다’는 ‘한 군데 모여 서로 붙어 있도록 새끼나 꼬나풀 따위로 동이다.’는 뜻이다.

⇒ 흔 사람 {무끄는} 디 열 두 메께라.

#### 5.4.7. 베우다(베게 하다)

‘베우다’는 ‘베게 하다.’는 뜻이다. 베개를 베게 할 때 쓰는 말이다.

⇒ {베개} 놓 베우는 거.

#### 5.4.8. 부찌다(붙이다)

‘부찌다’는 ‘서로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뜻이다. ‘부치다’라고도 발화된다. 표준어 ‘붙이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중간으로 영 허는 거는 이제 큰셋복, 작은셋복. 크게 물리근에 작은셋복을 큰셋복에 앓당 {부찌야} 상복에 {부짱} 바지를 맞게 접는 거.

⇒ 중의는 영 꺼깁 단을 허니까 단이라고 허는디 바지는 안팎을 같이 어울려 {부치는} 때문에 단이 없어.

#### 5.4.9. 입지다

‘입지다’는 ‘입게 하다.’는 뜻이다. 표준어 ‘입히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수의는 호상옷. 돌아가시민 {입지는} 옷 호상옷.

#### 5.4.10. 줄라메다(줄라매다)

‘줄라메다’는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다.’는 뜻이다. 표준어 ‘줄라매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한쪽 곱은 길게 이렇게 감는 거는 두 자 지러길 놓고 흔 쪽은 흔 자 허민 이렇게 흔 불 감아다가 {줄라메는} 거.

#### 5.4.11. 동굴라지다

‘동굴라지다’는 ‘위와 아래가 사이가 벌어져서 갈라지다’는 뜻이다. ‘동’은 마디를 뜻하고, ‘굴라지다’는 표준어 ‘갈라지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예전 치마저고리를 입었을 때 저고리와 치마 사이가 벌어질 때 하는 표현이다.

- ⇒ 과도라고 치마 입고 허리띠지. 이를테면, 치메 입고 저고리 입은디 옛날은 {동굴라져}. 이디가. 치메를 우트레 안 입거든. 젓 우이 안 입으니까 알로 입으니까 {동굴라지민} 허리띠를. 만일 멩지민 두 폭해서 두 자 두 치를 놔. 영 특 가두와지게.

#### 5.4.12. 짚불짚불(쫘불쫘불)

‘짚불짚불’은 ‘주름이 잡힌 모양이나 상태.’를 말한다.

- ⇒ 치메는 저 포로 다 워로 박고 단 박고 허리에 주름을 {쫘불쫘불} 좁아서 이제 혼 아마 삼 센치 짚 주름을 좁아요.

#### 5.4.13. 메께(매듭)

‘메께’는 표준어 ‘매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무께’라고도 말해지는데, ‘노, 실,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시신을 ‘대림포’로 싼 후 베로 묶을 때 사용하는 어휘다. 제주에는 ‘열두 메께에 묶어야 촌말 헌다’(열두 매듭에 묶어야 참말 한다)는 속담이 있다.

- ⇒ 혼 사름 무끄는 디 열두{메께라}.

## 6. 관련 어휘와 속담·금기어

### 6.1. 관련 어휘

#### 6.1.1. 염

‘염’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을 말한다.

- ⇒ 그 하르버지네 {염허는} 거를 다 굶추니까 이게 호상 분간을 알게 된 거야.

### 6.1.2. 초소렴(소렴)

‘초소렴’은 ‘초수렴’이라고도 말해지는데, ‘사람이 죽으면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펴서 시신이 굳지 않게 손 발 머리를 반듯하게 베 따위로 묶어두는 일.’을 말한다. ‘호상옷’을 입히기 전에 하는 염의 절차다. 표준어 ‘소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의원이 이분이 돌아가시다 하면 우선 상물로 모욕을 시켜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그걸 {초소렴에} 입는 옷이라거든.

### 6.1.3. 대소렴(대렴)

‘대소렴’은 사람에 따라 ‘대수렴’이라고도 말한다. ‘소렴을 한 다음 날, 송장에 옷을 거둬입히고 이불로 싸서 베로 묶는 것’을 말한다. 표준어 ‘대렴’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호상옷’을 입히는 과정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렴(大殮)과 소렴(小殮)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되어 있으나 제주에서는 대렴을 가리킨다. 소렴은 ‘초소렴’ 또는 ‘초수렴’이라고 한다.

⇒ {대소렴은} 관에 놓을 때 허는 거라.

### 6.1.4. 베염날(뱀날)

‘베염날’은 ‘지지(地支)가 사(巳)로 된 날.’을 말한다. 뱀날에는 ‘호상옷’을 만들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 호상옷은 {베염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난 날 아니민 재단허는 거.

### 6.1.5. 본명일

‘본명일’은 ‘음양가에서, 난 해에 따라 병난을 조심해야 한다는 날.’을 말한다. 난 해가 자년이면 유일, 축년이면 오일, 인년이면 미일, 묘년이면 신일, 진년이면 해일, 사년이면 술일, 오년이면 축일, 미년이면 자일, 신년이면 묘일, 유년이면 인일, 술년이면 사일, 해년이면 진일을 이른다.

### 6.1.6. 줌날

‘줌날’은 ‘지지(地支)가 자(子)로 된 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쥐가 줌처럼 물건을 잘 쓸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같다.

⇒ 호상옷은 베염날, {좀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난 날 아니민 재단허는 거.

### 6.1.7. 쥐날

‘쥐날’은 ‘지지(地支)가 자(子)로 된 날.’을 말한다. ‘쥐날’에는 ‘호상옷’을 만들지 않는 속설이 있다.

⇒ 호상옷은 베염날, 좀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난 날 아니민 재단허는 거.

## 6.2. 관련 속담 · 금기어

### 6.2.1. 호상옷 망인 죽은 후에는 솔지 아녜다.

‘수의 망인 죽은 후에는 사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호상옷’을 망인이 죽은 후에 사루면 망인이 저승에서 짐을 지고 다닌다고 해서 사루지 않는다고 한다.

⇒ 호상옷 망인 죽어분 후젠 안 솔아. 저승 가민 정 뎡기젠 허민 귀찮은덴.

### 6.2.2. 모시로 호상옷 행 입지민 자손들 머리 헤영헤분다.

‘모시로 수의를 해서 입히면 자손들 머리가 하얘진다.’는 뜻이다. 모시로 ‘호상옷’을 해 입히면 자손들 머리가 모시처럼 하얗게 된다는 속설이 있어 삼간다.

⇒ 호상옷 모시옷을 입지면 그 자손이 손지덜이 머리 헤영헤 분데. 경 헤부난 그거 안 입져.

### 6.2.3. 호상옷 좀 쏘으면 자손에 고망난다고 안 입진다.

‘수의 좀 쏘으면 자손에 구멍 난다고 안 입힌다.’는 뜻이다. 제주 사람들은 좀이 쏘아 구멍 난 옷은 망인에게 입히면 자손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에 정성을 다해 ‘호상옷’을 준비했다. ‘호상옷’은 ‘손이 없는’ 윤달이나 윤년에 많이 만들어둔다.

⇒ 호상옷 고망 나민 쯤손에 고망나는 그것이 헛 덴 헝으네 좀이 많이 쏘으면 안 입히주.

### 6.2.4. 좀 친 옷 입으면 손자 대에 좀 친다.

‘좀이 쓴 옷 입으면 손자 대에 좀 쓴다.’는 말이다. 시신에게 좀이 쓴 옷을 입히면 손자가 잘 안 된다는 속설이 있어, 제주 사람들은 예전부터 ‘호상옷’에 정성을 다했다. 좀이 쓴

옷은 ‘호상옷’으로 절대로 입히지 않았다.

**6.2.5. 호상옷 쟁이 쓸아분 거 입으면 도둑질허는 자식 난다.**

‘수의 쥐 쓰아버린 것 입으면 도둑질하는 자식 나온다.’는 뜻이다. 망인에게 입히는 옷이지만 정성을 다해 ‘호상옷’을 준비한 자식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는 속담이다. ‘쟁이’는 지역에 따라 ‘중이’라고도 말하는데, 표준어 ‘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호상옷 쟁이 쓸아분 거 입으면 도둑질허는 자식 난다.

**6.2.6. 호상옷 만들 땐 뒷바농질 안 한다.**

‘수의를 지을 때는 뒷바농질을 안 한다.’는 뜻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성을 다해 ‘호상옷’을 만들라는 경구의 의미가 담겨 있다.

⇒ 호상옷은 뒷바농질도 안 허곡. 뜰어고찌지도 안허곡. 날뵈서 뭍곡. 지금도 그러지.

**6.2.7. 호상옷은 뜰어 고치지 안 한다.**

‘수의는 뜰어서 고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성을 다해 ‘호상옷’을 만들라는 경구의 의미가 담겨 있다.

⇒ 호상옷은 뜰어 고찌지도 안 허곡. 날뵈서 뭍곡. 지금도 그러지.

**6.2.8. 본명일광 줌날은 호상옷 안 만든다.**

‘본명일과 줌날, 즉 쥐날은 수의 안 만든다’는 뜻이다. 길일을 골라서 ‘호상옷’을 짓는 제주사람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는 속담이다.

⇒ 호상옷은 베엿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난 날 아니민 재단허는 거.

**6.2.9. 줌인 호상옷은 망인이 살아 있을 때 쓴다. 죽영 슬민 짐 된다.**

‘줌이 쓴 수의는 망인이 살아 있을 때 불살라야 한다. 죽어서 사루면 망인의 짐 된다.’는 뜻이다.

#### 6.2.10. 살앙 호사 흔 번 죽엉 호사 흔 번.

‘살아서 호사 한 번, 죽어서 호사 한 번’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결혼할 때 좋은 옷으로 단장하고, 죽어서 좋은 옷으로 단장하는 호사를 누린다는 뜻이다. 결혼할 때 좋은 예복을 입어서 호사하고, 죽어서 저승 갈 때 정성을 다해 옷을 해서 입히기 때문에 호사에 비유해서 하는 속담이다.





## 제 3 부

#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 제 5 장 마무리

이 보고서는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의 4명의 제보자와 제주시 이도1동 ‘수익와 부속품 제작 기능인’ 김경생을 제보자로 하여 ‘호상옷’과 관련한 구술자료와 어휘 조사 결과를 담아낸 것이다.

1부 1장에는 연구 개요가 담겨 있고, 2장은 제주의 ‘호상옷’ 연구 추진 과정, 3장은 ‘구술 자료-김경생의 호상옷 이야기’, 4장은 조사된 어휘 자료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부록으로 엑셀파일로 정리한 어휘 자료를 수록했다. 엑셀파일은 올림말과 표준어, 발음, 품사, 용례 등을 실어 ‘호상옷’의 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편집하였다.

3장 ‘김경생의 호상옷 이야기’는 주제보자의 출생과 생활, ‘호상옷’과 상복, 제주의 장례 풍습, ‘호상옷’의 제작도구, 바느질법, 부분 명칭 등 제주의 기층문화와 관련한 자료들로 꾸며졌다. 구술 자료 속에 정리되지 않은 어휘 가운데는 제주인의 삶과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어휘들과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미 등재어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체제를 갖추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장례 풍습과 얽히는 과정이 구술 자료 속에 정리되어 있어 제주의 민속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장에서는 이번 민족생활어 조사에서 수집된 ‘호상옷’ 관련 어휘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 등을 담아 ‘호상옷’의 이해를 돕고 있다. ‘호상옷’의 정의는 물론, ‘호상옷 종류와 부속물 명칭’, ‘호상옷의 재료’, ‘바느질 도구’, ‘바느질 법 관련 어휘’, ‘호상옷 부분 명칭’, ‘호상옷과 관련한 속담과 금기어’ 등으로 나누어 뜻풀이와 쓰임새를 체계화했다.

4장에서 정리된 어휘는 서귀포시 남원읍 일부 지역과 제주시 이도1동에서 조사한 내용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호상옷’의 전체 특징을 다 아우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호상옷’의 종류와 제작과정, 재료, 부분 명칭 등을 체계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미등재 어휘 등 자료 가치 있는 제주 특유의 어휘가 상당히 집적되었다. ‘호상옷’과 관련해서 수집된 어휘(속담 포함)는 159개이며, 이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미 등재 어휘는 111개다. ‘복’(폭), ‘깃바대’ 등과 같은 고어가 살아있고, ‘동근술’, ‘어불복’, ‘뎅침’, ‘뒗바농질’, ‘이몸’, ‘질스미’, ‘젓강바데’ 등과 같은 주옥같은 어휘들을 발굴했다. 국어사뿐만 아니라 제주어를 풍부하게 해주는 언어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호상옷’ 관련 속담과 금기어도 제주민의 언중의식을 엿볼 수 자료로 가치가 있다.

이 뿐 아니다. ‘호상옷’ 관련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존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했다. 가령 시신에게 옷을 입히는 과정인 ‘대렴’을 제주에서는 ‘대수렴’이라고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소렴’을 대렴(大殮)과 소렴(小殮)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되어 있다. 소렴은 ‘초소렴’ 또는 ‘초수렴’이라고 한다. 시신을 넣은 관 안에 넣는 ‘동심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동심결’과는 의미가 달라 재해석이 필요하다. 또 남자의 겹옷인 ‘두루막’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두루마기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두루마기의 제주방언’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언필칭, 기층민들의 삶 속에는 미처 발굴하지 못한 생활과 밀접한 어휘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나 머잖은 장래에 민족생활어가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호상옷’ 관련 어휘 가운데는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어휘들이 채록되지 않았다. 기존의 자료가 한자 또는 표준어 어형으로 조사된 경우도 있지만 제보자들이 ‘호상옷’과 관련한 어휘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호상옷’과 관련한 어휘를 하나라도 더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삶 속에는 미처 캐내지 못한 미 발굴 어휘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어휘를 캐내는 일이야말로 민족생활어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이다.

## 참고 문헌

- 고부자(1996), 〈호상옷, 일생의례복〉, 《제주의 민속》(IV) 제주도, 46~55.
- 김동욱 고부자(1974, 1977), 〈수의(호상옷)〉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220~221.
- 김순자(2008), 《나, 육십육 년 물질허명 이제도록 살안(제주시 이호마을 고순여 할머니 생애 구술)》(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01),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 김순자,(2007),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해녀 어부 민속주》, 국립국어원.
- 김영돈(1973), 〈상례, 통과의례〉,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pp.122~123.



부 부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정보 사진	별칭 정보 음성	표준국어 시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기타	기타	대령	대소령	대소령	대소령	명	소령을 할 다음날, 송정에 옷을 가져다 입고 고아를 써서 배로 묶음.	{대소령은} 관에 놓을 때 하는 거라.	대수령이라고도 함. <표준>에는 대령(大嶺)과 소령(小嶺)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되어 있으나 제주에서는 대령을 가리킬. 소령은 초소령 또는 초수령이라고 함.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기타	기타	뽕날	배명날	배명날	배명날	명	지지(地支)가 서(西)로 된 날.	호상웃은 {배명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날 아니면 제 단하는 거.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기타	기타	본명일	본명일	본명일	본명일	명	음양사에서, 난 해에 따라 뽕날을 조심해야 한다는 날, 난 해가 지면이면 유원, 죽년이면 오일, 인년이면 미일, 묘년이면 신일, 진년이면 해일, 사년이면 풀날, 오년이면 죽을, 미년이면 자일, 신년이면 묘일, 유년이 되면 인일, 술년이면 사일, 해년이면 진일을 이른다.	호상웃은 배명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날 아니면 제 단하는 거.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기타	기타	줌날	줌날	줌날	줌날	명	지지(地支)가 지(子)로 된 날, 쥐가 좀처럼 뜰 줄기를 잘 볼기 때문에 뜰어진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상웃은 배명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날 아니면 제 단하는 거.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기타	기타	쥐날	쥐날	쥐날	쥐날	명	지지(地支)가 지(子)로 된 날.	호상웃은 배명날, 줌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날 아니면 제 단하는 거.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기타	기타	염	염	염	염	명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 전에 옷을 입고 고아를 염포로 묶는 일.	그 하리버지내 {염하는} 거를 다 굶추니까 이게 호상웃을 알게 된 거야.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기타	기타	소령	초소령	초소령	초소령	명	사람이 죽으면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피서서 시신이 굳기 전에 손 발 마리를 배 따위로 반듯하게 묶어두는 일.	의원이 이 분이 돌아간다 하면 우선 상복으로 모자를 시켜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서, 그걸 {초소령에} 입는 옷이라거든.	=초수령, 고부지(1996)김순자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2007)는 '초수령'이라 했다.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속담	속담		호상웃 모시웃을 염지면 그 지손에 머리 해염해본다	호상웃 모시웃을 염지면 그 지손에 머리 해염해본다	호상웃 모시웃을 염지면 그 지손에 머리 해염해본다	구	수의 망인 죽은 후에는 사루지 않는다.	호상웃 망인 죽어본 후엔 안 술아. 자승가 민 정 명기젠 하민 귀찮든단.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속담	속담		호상웃 모시웃을 염지면 그 지손에 머리 해염해본다	호상웃 모시웃을 염지면 그 지손에 머리 해염해본다	호상웃 모시웃을 염지면 그 지손에 머리 해염해본다	구	수의 풀 쏠면 지손에 구멍난다고 안 임힌다.	호상웃 고함 나민 주손에 고명 나는 그것이 한엔 행으네 좀이 많이 쓰으면 안 임해주.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속담	속담		호상웃 퀘이 쏠아 본 거 염으면 도독질하는 지 지식 난다.	호상웃 퀘이 쏠아 본 거 염으면 도독질하는 지 지식 난다.	호상웃 퀘이 쏠아 본 거 염으면 도독질하는 지 지식 난다.	구	수의 쥐 꼬아버린 것 염으면 도독질하는 지 지식 난다.	호상웃 퀘이 쏠아본 거 염으면 도독질하는 지 지식 난다.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속담	속담		호상웃은 뽕바늘도 안 하라. 틀어 고재지 도 안 하라. 날 뽕서 올라, 지름도 그러지.	호상웃은 뽕바늘도 안 하라. 틀어 고재지 도 안 하라. 날 뽕서 올라, 지름도 그러지.	호상웃은 뽕바늘도 안 하라. 틀어 고재지 도 안 하라. 날 뽕서 올라, 지름도 그러지.	구	수의는 뽕바늘 안 한다.	호상웃은 뽕바늘도 안 하라. 틀어 고재지 도 안 하라. 날 뽕서 올라, 지름도 그러지.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속담	속담		호상웃은 틀어 고재지 지지 안 한다.	호상웃은 틀어 고재지 지지 안 한다.	호상웃은 틀어 고재지 지지 안 한다.	구	수의는 틀어서 고재지 아니 한다.	호상웃은 뽕바늘도 안 하라. 틀어 고재지 도 안 하라. 날 뽕서 올라, 지름도 그러지.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기타	명칭	명칭	기위	고/세	고/세	고/세	명	옷감, 종이, 마리를 따위를 지르는 기구.			호상웃(제주시 이도1동)		0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암	올림암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정보 사진	별칭 정보 음성	표준국어 시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골무	골미	골미	명	명	바느질할 때 바늘귀를 밀기 위하여 손가락에 끼는 도구.	손 쥘러볼러꾸면 골미 짜.	<표준>에 강원, 경남, 전라, 평안 함경 방언으로 되어 있어 제주를 포함시켜야 함.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바늘	바늘	바늘	명	명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	바늘하고 뿔하고 또 바늘귀 꿰는 거 허고.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질	질	질	명	명	고치, 털, 솜, 삼 따위나 화학 원료를 써서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것. 옷감을 짜고 바느질할 때 쓰는 데 쓴다.	바늘하고 뿔하고 또 바늘귀 꿰는 거 허고.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인두	윤디	윤디	명	명	바느질할 때 풀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풀거나 퍼거나 솜기를 짖어 누르는 데 쓰는 도구.	윤디로만 누르믄주.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인두판	윤디판	윤디판	명	명	인두질할 때, 다리는 물건을 돌려놓는 기구. 직사각형의 널조각 위에 솜을 두고 솜이 하나 향쪽으로 써서 만든다.	윤디판 나무 영 질게 해영으네 오만히 하게 해영 이제도 있주, 기지로 영으네 그디 쪼두 까로 솜이나 뭐 뻥하게 감양 광목으로 싸근에 바늘으로 중앙 호양은에 경 행그르에 다라.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자	자	자	명	명	길이를 재는 데 쓰는 도구.	허리는 두 {자를} 놓지.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화로	화리	화리	명	명	솜불을 담아 놓는 그릇.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쓴다.	화리에 풀 실라그네, 재로 꼭꼭 묻어 들어서 오래하진 하민 영 윤디 그레 쏙 질렀다근 디까땡.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노구	노구	명칭		다리미	다리케	다리케	명	명	매끄러운 밑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옷 따위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 데 쓰는, 쇠붙이로 된 기구.	{다리케런}. 지금은 다리미엔 하는다.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기타		매듭	매개	매개	명	명	노, 실, 끈 따위를 겹어매어 마디를 이룬 것.	호 시름 무끄는 디 열두 {매개라.}	=무개.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명칭		수의	호상	호상	명	명	영삼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	지금 장개가는 옷이 {호상이고}, 시진가는 옷이 {호상이가든}././영반의 짐은, 또 향교에 영삼 가는 옷이 지음의 {호상이다}.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명칭		수의	호상웃	호상웃	명	명	영삼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	그 영민 그돌아가신 아든 품을 다께서 {호상웃}을 입서, 저승 가는 옷을 지름 유린 수의.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명칭		근	근	근	명	명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과도는 이렇게 꼬버정으네 오디 {근} 후나 후나 두 개 돌양 하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명칭		부엌	벗암섬	벗암섬	명	명	자고리나 두루마기 따위의 것 아래쪽에 달린 바깥 부분의 끝쪽만 함.	{벗암섬은} 후술 넓게 하고 안암섬은 쪽게 허구.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명칭		부엌	부엌	부엌	명	명	하리노 연결하려고 걸은 길이로 나누어 놓은 줄이, 털, 끈 따위의 조각.	지마는 이제 지러기는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지러기, 키가 크면 두 자 지러기를 놓고 작은 자 아홉 지를 놓고, 또 이제 {부엌} 수를 짜그르네 향교 하디고 해서 일곱, 일곱 쪽으로 지마를 허어서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명칭		부엌	소중의바데	소중의바데	명	명	소중의는 전부가 일곱 지를 요오, 일곱 지 지러기만 넣, 자는 이몸으로 해서 막고버쳐서 넣, 저하고, 또 반, 자는 이디 놓는 게 잇어요. {소중의바데라고}.	소중의는 전부가 일곱 지를 요오, 일곱 지 지러기만 넣, 자는 이몸으로 해서 막고버쳐서 넣, 저하고, 또 반, 자는 이디 놓는 게 잇어요. {소중의바데라고}.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명칭	명칭		실밥	실밥	실밥	명	명	깨만 실이 밖으로 드러난 부분.	영 박는 거니까 실밥.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편 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편지 정보 사진	표준국어 시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어불복	매전에 흉상 매복으로 입던 남자의 걸옷의 어불복을 어디다가 부찌는가 하면 요건 짓 등 뒤에 덧붙여진 복.	어불복을 어디다가 부찌는가 하면 요건 짓 이년 짓바데에 부찌는 거이.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안웃고름	진금	옷의 안깃을 어미어 매는 웃고름.	두루마기도 짓바데에 짓바데 있어오. 또 큰 금, {셋박} 있고.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진금	고름 가운데 길이가 긴 고름.	이거 {진금}. 이진 짜/름금. 오 금은 둘근 밑으네 오다. 넣 요금. 양 고비형 줄라매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큰시복	진셋복	남자 한복 바지에서 마루복과 마루복 사이 매 대 큰 복.	이거 {진셋복} 부찌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포름금	고름 가운데 길이가 짧은 고름.	이거 진금. 이진 {포/름금}. 오 금으로 둘근 밑으네 오다. 넣 요금. 양 고비형 줄라매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치마폭	치마폭	그딘 아무 것도 아닌 치마폭.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강알바데	중의 실 부분에 덧대는 항결 조각.	중의는 일로 찢어질까부다고 중의에 {강알 바데} 조곰 놔.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웃고름	금	저고리나 두루마기, 도포 따위의 옷의 깃 한쪽 {공은} 같게 이렇게 같은 거는 두 자. 깃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어울 수 있도록 항결 끈.	한쪽 {공은} 같게 이렇게 같은 거는 두 자. 저리길 놓고 한쪽은 한 자 하면 이렇게 한 볼깁어디가 줄라매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간금	저고리나 두루마기, 도포 따위의 옷의 깃 한쪽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어울 수 있도록 한 항결 가운데 끈.	이건 수미, 질수미, 오디 부찌는 거를 벗한 것. 오디 부찌는 거는 안완삼, 요건 짓, 또 바위 부치는 건 동진, 요건 {간금}, 요건 짜 림금, 소금에 부치는 건 짓금.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권통	권통	여자의 저고리 소매부리에 맨 다른 색의 띠.	물색으로 {꽃등} 놓고, 짓도 물색으로 하고.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단	단속곤	옷자락 끝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어 붙여 거나 감친 부분.	중의는 영 개경 {단을} 허니까 단이라고 하 느디 바지는 안팎을 같이 어울라 부치는 띠. 띠에 단이 없어.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목고대	목욕의 깃.	이것 구라 {목고대엔} 허거든.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바데	바데	중의나 고의 따위의 깃 하지는 곳에 안 찰웃에도 {바데} 들어가, 찰웃에도 짓바데.	찰웃에도 그 밑은 목에 {삼복}, 곁은 가는 양. 안팎. 이렇게 부드린 림은 복으로 이렇 게 하는 거는 {삼복}.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마루복	삼복	바지나 고의 따위의 허리에 달아 사복을 대는 긴 항결.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입삼, 놓인, 짓, {삼} 다 잇주게.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섬	섬	저고리나 두루마기 따위의 깃 아래쪽에 달 단. 결박한 항결.	이건 {수미}, 질수미, 오디 부찌는 거를 벗한 것. 오디 부찌는 거는 안완삼, 요건 짓, 또 바위 부치는 건 동진, 요건 간금, 요건 짜 림금, 소금에 부치는 건 짓금.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부분명 칭	부분명 칭	소매	소/미	윗옷의 좌우에 있는 두 팔을 꿰는 부분.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1 호상옷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별칭 정보 사진	표준국어 사진 등록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수복	수복	수복	수복	명	버선 따위의 쾌맨 술기.	등잔불 보그네, 손으로 다 모신 {수복} 새 기구, 그걸 순바보질 해주.	없음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안삼렘	안삼렘	안삼렘	안삼렘	명	옷의 앞자락에 대는 섬 가운데 속으로 에메 치는 부분의 싹.	이건 수미, 질수미, 옥디 부피는 기를 반입 한, 옥디 부피는 기는 {안삼렘}, 요란 짓, 보, 바위 부피는 건 봉진, 요긴 간음, 요긴 봉문음, 소림에 부치는 건 적음.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암삼	암삼	암삼	암삼	명	옷의 앞자락에 대는 싹.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인삼}, 동전, 짓, 섬 디 잇주께.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이몸	이몸	이몸	이몸	명	저고리나 장옷 따위의 품에 해당하는 부분.	수중의는 진부가 일곱 지를 보요, 일곱 지 저러기만 낙 지는 {이몸으로} 해서 막 고버져서 낙 저하고, 또 반 지는 이디 놓는 게 이야요.	=잇몸.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잇몸	잇몸	잇몸	잇몸	명	저고리나 장옷 따위의 품에 해당하는 부분.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암삼, 동전, 짓, 섬 디 잇주께.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적강바대	적강바대	적강바대	적강바대	명	적삼의 게드랑이 부분에 덧댄 바대.	적강에도 종이 나민 빨리 꺾어지거든께 [적강바대도] 두류 보././수의 같은 것도 갱 어지나 그런 양려는 없는디 옛날 고전적으 로 표음이라도 짓바대, {적강바대} 다 너요. 지금도 그 종의 적삼에는 그런 걸 다 놓 주.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죽은사복	죽은사복	죽은사복	죽은사복	명	바지나 고의 따위의 오른쪽 마루쪽에 대는 용골.	죽장으로 영 하는 게는 이제 큰색복, {죽은 사복}, 크게 몰려는데 {죽은사복들} 큰것복에 잇몸 부피에 상복에 부평 바지를 맞게 접는 거.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지라기	지라기	지라기	지라기	명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	지마는 이제 {지라기는} 두 자 지라기를 놓고, 지라기, 키가 크면 두 자 지라기를 놓고 작으면 자 아롬 지를 놓고. 또 이제 목 수를 짜구르게 한다고 해서 일곱 목, 일곱 목으 로 지마를 하여서	<표준>에 '겉이의 강원 방언으로 지라기'가 되어 있는 것에 제주 방언도 추가해 야 할 듯.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진동	진동	진동	진동	명	스매에서 깃과 닿는 부분의 폭이나 넓이.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암삼, 동전, 짓, 섬 디 잇주께.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질소리	질소리	질소리	질소리	명	저고리의 소매 가운데 이어 만든 부분.	저고리 하나에 진동, 잇몸, {질수미}, 암삼, 동전, 짓, 섬 디 잇주께.//올론 곱 놓는 기는 {질수미}.//질소리 수미 이오는 기././수미가 꼬트면 이거 잇는 거는 질수미고, 또 둘씩으로 놓는 거는 곱뎀이고.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깃	깃	깃	깃	명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돌리되어 얹에 서 머물 수 있도록 된 부분.	얹색으로 영 하는 게는, {깃도} 둘씩으로 하 고.	<표준>에 '깃의 강원, 경남, 함경방 방언으로 되어 있는 것에 제주 방언을도 포함해야 할 듯.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깃바대	깃바대	깃바대	깃바대	명	홍웃의 깃고대 안쪽으로 깊고 넓게 덧붙여져 서 등까지 대는 홍깃.	또 속적삼은 또 더 부트는 게 있어, {깃바대}, {깃바대가} 이 여벌에 옷을 영으민 돌 깃바대. 등바대의 옛말. 깃바대> 깃바대가 깃바대, 깃바대> 깃바대, 깃바대> 깃바대, 깃바대> 깃바대. 그러면 이런 군 잘 깃바대라고 봐 놓고.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옷 명칭		부분명 칭	큰금	큰금	큰금	큰금	명	길이가 긴 고름.	두루마기도 적강바대 깃바대 이야요. 또 {큰금}, 적금 잇고.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원어	원어	표준국어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남자 한복 바지에서 마루쪽 사이에서 앞면 부채야 상복에 부채 바지를 얹게 하는 거.	중간으로 영 하는 거는 이제 {큰셋배}, 즉 은셋배. 크게 올란근에 죽은셋배를 {큰셋배에} 앞면 부채야 상복에 부채 바지를 얹게 하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윗옷의 거드랑이 밑의 가슴과 등을 두르는 부분의 넓이.	의상은 저고릴 크게 입었어. 이제 거라기는 보통 이제 여덟 치 반을 놓고, 또 이제 {폭은} 보통으로 한 자를 봐.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바지·지마·고의 따위의 맨 위가 되는 부분.	바지·지마·고의 따위의 맨 위가 되는 부채에 두 개 구치 {하리} 둘야.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치마의 하리에 다는 고름.	치마. {하리곰}.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	고름이 없으니까. 무작단추. 무작으로 이렇게 옷처져 해서 하나까.	=별모/작.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	이디도 별무작을 막아지게 세 개씩을 둘 아. 겐디 양반들이 입는 거는 막 이디 후나만 놓고.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시신의 머리와 손톱 발톱 따위를 잘라서 넣는 주머니. 영수나 장호지도 만든 주머니로 만든다.	{주렁기는} 다섯 켤 놀민 그 사람이 죽으면 손톱, 발톱, 굶아서 덩을 영지로 만든 주머니. 머릿털 작촉 영초 찰수 영수도를 넣은 주머니 5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김경성은 손톱 발톱 영배 노는 영초 찰수 영수도를 넣은 주머니 다섯 개가 들어 있다고 구술했다.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관을 싸는 보자기.	관 위에 덮는 걸 {관포라고} 하거든. {관포} 그 다음은 관비.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시신에게 수의를 다 입힌 후에 마지막으로 싸는 천. 배나 영주를 이용한다.	{대림포는} 마지막 이렇게 영영 놓고 저영 병 싸는 거. 영지 가져 혼 필 드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의상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의상복	대렴을 한 시신은 관 안에 넣고 그 위에 넣는 물건. 검은영주와 노랑영주 위에 놓는 오색영포 사용 모양으로도 불린다.	{동심줄} 옷양, 옷양은 지금은 우리가 다 만들 영 후나로 하느디 옷양에 두었디 모양으로 맨는디. 흰색에 두었디 모양으로 맨는디. 관 위에 가슴 쪽에 두어 놓고는디. <표준>의 동심줄과는 의미가 다른 듯함.		김경성(재주시 이도동)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암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원어 정보 사진	표준국어 시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부속물	명칭	명칭	명	명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일정한 크기의 긴 천에 보통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 지낼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에 널 위에 띠 놓는다.	그 다음은 명전. 돌청 니가는 거. (제주시 이도1동)		호상웃(서귀포시 남원2리)/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부속물	배개	배개	명	명	장을 지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	배개 놓우는 거.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부속물	보궁	보궁	명	명	빈 곳을 채워서 매용. 또는 그런 물건.	ஏ닐은 옷이 잇는 분은 옷으로 보궁을 놓고, 경 어머니 산디씩을 똑똑 똑 쳐서, 단드 정에서 똑똑 똑 두드려 복스럽게 두드려서 그 풍을 장호지애나 백지애나 발행 새가지고 덮이 다 꼭꼭 얹어.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부속물	손수건	손수건	명	명	몸에 지니고 다니며 쓰는 얇고 자그마한 수건.	옛날 다리니 없는 때는 지전 올랑 그 종이 지전 올랑 또 우렁씩 놓고 이제 (손수건) 하나씩을 가면서 씬원하민.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부속물	지오	지오	명	명	관 안에 끼는 요.	=지오. 고무자(1996)는 표준어형인 평 우의 활판이나 그 우의 영 더갈 관 더 개//이불고한 천금 지금. 천금이엔 천 권로 히어 갖은 정색이나, 복색을 히는 우의 더고는 거. 아련 곁은 거 곱/고 우의 더고는 건 뽕은 거 더고고.	김순자(2007)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부속물	천금	천금	명	명	관 안에 있는 시신의 덮는 이불.	{천금은} 마지막 더고는 거./이불고한 천금 지금. 천금이엔 천 권로 히어 갖은 정색이나, 복색을 히는 우의 더고는 건 뽕은 거 더고고.	김순자(2008)	0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부속물	지전	지전	명	명	돈 모양으로 으린 종이 혹은 사람이 저속하는 길에 노지(路費)로 쓰라는 뜻으로 관 속에 넣는다. 저등은 이라고도 한다.	옛날 다리니 없는 때는 {지전} 올랑 그 종이 지전 올랑 또 우렁씩 놓고 이제 손수건 하나씩을 가면서 씬원하민.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	겉지고리	겉지고리	명	명	지고리를 꺼임을 때 맨 겉에 입는 지고리.	어저는 지고리 돌을 헤요. 돌 해서 속지고 리 {겉지고리} 해서 꾀돌 놓고 짓 돌고 해민 이제 옷은 다 뺏겨든.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			명	명	치마와 지고리를 입은 후 그 사이에 덮는 하리띠. 옷을 입힌 다음에 허리에 묶는 하리띠(배) 싸개로, 명주나 삼베로 곁으로 한다. 영할 때 시신의 배를 싸는 데 쓰는 수의다.	{과도라고} 치마 입고 허리띠지. 이렇디면, 치마에 입고 지고리 입은디 옛날은 통솔라져. 욱 고부자(1974,1977) 고부자 이디가. 치마를 우드래 안 입거든. 짓 우이 (1996)김순자(2006)에는 '과두', 김 안 입으니가, 명주나 삼베로 곁으로 한다. 하영돈(1973)에는 '과디라'고 되어 있음. 리띠를, 만일 영지민 두 쪽 해서 두 자 두 치를 놔. 영 푹기두와지게.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	관띠	관띠	명	명	관을 묶는 띠.	관 우애 더뜨는 걸 관포라고 하거든. 관포 더 다음은 {관띠}.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	도복	도복	명	명	예전에, 흉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위에는 띠 폭을 단다.	=도복.	김순식(서귀포시 남원2리)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	도포	도포	명	명	예전에, 흉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위에는 띠 폭을 단다.	{도복} 입지민 이 띠를 무개야 허거든.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분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암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정보 사진	별칭 정보 음성	표준국어 시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두루마기	두루막	두루막	명	오리나간 고유의 우유,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 두께가 따귀도 이루어져 있다.	또 저구리 그 다음엔 {두루막}, 후리매.	=후리매, <표준>에 두루마기의 정 뜻이라고 된 말은 두루마기의 제주 방언으로 고쳐져야 함.	현문식(서귀포시 남원2리)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복강티	복강티	복강티	명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명주로 만든 모자. 안은 붉은 색 명주로, 겉은 검정색 명주로 해서 만든다.	머리에 씌우는 호상, 검은호상, {복강티}.	=검은호상.	현문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속저고리	속저고리	속저고리	명	여자의 저고리 가운데 속에 입는 저고리.	여자는 저고리 통을 꿰고, 통에서 {속저고리} 깃저고리 해서 깃동 놓고 깃 들고 허반이세 옷은 다 벗겨든.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속꼭삼	속꼭삼	속꼭삼	명	저고리나 적삼 속에 끼이는 적삼.	또 {속적삼은} 또 더 부트는 게 있어, 첫바 데.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속치마	속치마	속치마	명	겉치마 밑에 받쳐서 입는 치마.	연방은 부통 {속치마} 여섯어, 게인 그 밑속곳 입고 그디 치마 입고 그렇게 했는디 그게 이제 중간에는 단속곳은 없고 {속치마}, 치매 풀로 벗겨든.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염도	염도	염도	명	시신의 옷을 입힌 다음에 설명주로 눈과 코 등을 막고 머리를 감싸는 물건. 하얀 명주로 해서 만든다.	{염도로} 머리를 싸는 거, 요거 염도. 그디 염도 검은호상을 머리에 툭 씌우는 거./{염도는} 양 쪽 풀을 이렇게 하고 으섯 거지가 고미쳐져.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웁수	웁수	웁수	명	시신의 손에 끼우는 장갑, 손을 싸는 싸개 또는 두 개를 만든다.	{웁수는} 손에 이렇게 끼우는 거.	=웁수, 손싸개. 고무지(1996)는 의식(손싸개)라고 했다. 양손에 씌우 마 2개 만든다. 같은 김장, 안은 빨 고무지(1974,1977)는 '웁수' 김장 명주로 만든다고 되어 있다.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장웃	장웃	장웃	명	예전에, 어지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 새끼시의 겉층식 예복으로 이용하다가 죽을 때 수인의 맨 마지막에 입히는 옷이다. 요즘은 하얀 색 정웃으로 만든다.	여전 {장웃} 남잔 도복.	현문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저고리	저고리	저고리	명	한복 윗옷의 하나.	장뻬이, 또 비지, 또 중의, 치마, 또 무신, 여전 그거 허반 아래 꺾은 다 웨고이, 우해 또 적삼, {저고리}, 적삼에 한삼도 들고, 손 벗겨진 거.	현문식(서귀포시 남원2리)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저구리	저구리	저구리	명	한복 윗옷의 하나.	그 다음은 용도리, 적삼 {저구리}, 또 그 다음은 용웃 입저에 경우고는 거.	현문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적삼	적삼	적삼	명	여자가 저고리 안에 입는 적삼, 여기에서는 속적삼을 가리킨다.	적삼은 속웃은부터, 속웃은 {적삼} 아래 꺾은 장뻬이, 장뻬이, 옛날엔 팬티 대신 장뻬이러나서.	현문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호상웃	호상웃	상	상	장웃	장웃	장웃	명	예전에, 도포 밑에 입던 우옷의 하나, 훗날 만든다.	그 다음은 풍도리, 적삼 저구리, 또 그 다음은 {장웃} 입저근에 경우고는 거.	현문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정보 사진	표준국어 시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의	상의	큰옷	큰복	명	매진에, 흉상 매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 소매가 넓고 등 위에는 띠를 두었다.	두루막에 큰옷, 도복, 도복. {큰옷엔} 허주.	=도복, 도복.	원근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의	상의	한삼	한삼	명	여자의 지고리 따위의 용운 소매 끝에 흰색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 수의에는 직삼이 덧대진다.	정뱅이, 또 바지, 또 종의, 지마, 또 {복삼, 여전, 그거 허민 아래 갖은 다. 웨고이, 우의, 또 직삼, 지고리, 직삼에 {한삼도} 들고, 는 막아진 거.	=복삼.	원근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의	상의	혼/삼(한삼)	혼삼	명	손을 가리기 위하여서 두루마기, 소창옷 따위의 지고리 따위의 겹옷 소매 끝에 흰색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 수의에는 직삼이 덧대진다.	영 손을 가리우기 위해서 {혼삼을} 부채는 디 지금은 그 혼삼에는 직삼에 부채 // 영년 은 그 신부던 영 정하극 영 허제 허민 이개 그 절개 {한삼이} 꼭 그 후 너비로 장옷에 부따야 가터보았주.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상의	상의	후리매	후리매	명	오리나리, 고유의 용운,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 두께가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두루막, {후리매}.		원근식(서귀포시 남원2리)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대님	대님	명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잡아서 발목을 풀러대는 바지라는 {대님}.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갓치매	갓치매	명	치마를 끼 입을 때 맨 끝에 입는 치마.	이젠 바질 치매로 바. 치매 두 개, 속치매하 국, {갓치매}.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다님	다님	명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잡아서 발목을 풀러대는 바지 {다님을} 이렇게 무개야 하거든.	=대님.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단속곳	단속곳	명	여자 속옷의 하나. 양 가랑이가 넓고 밑에 삼은 결흔할 때도 {단속곳이} 있어, 바지 쪽의 밑구속 입구 속구 입구 쪽의 밑구 바지 입구 쪽에 지마를 입는다.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바지	바지	명	아랫도리에 입는 옷의 하나.	{바지도} 그 용리는 복에 상복, 곧은 가는 영, 민일, 이렇게 부르면 곧은 복으로 이할 게 하는 가는 상복.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보신	보신	명	전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리 아랫까지 발에 신는 물려, 견버서이나 속바신으로 한다. 안에는 명주솜이나 창호지를 넣는다.	정뱅이, 또 바지, 또 종의, 지마, 또 {보신}, 여전, 그거 허민 아래 갖은 다. 웨고이, 우의, 또 직삼, 지고리, 직삼에 한삼도 들고, 는 막아진 거.		원근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소종의	소종의	명	여자의 맨 속에 입는 속옷.	여자 가는 그 치마 지고리만 무로 들고, {소종의} 들고, 이디 옛 거지만 무로 들주.	=소종의.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속종의	속종의	명	종의 안에 끼이는 종의.	{속종이애} 그 다음 종의, 바지.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신발	신발	명	발을 신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 신을 통하여 이르는 말. 여기서는 저승 갈 때 신는 '저승신'을 말한다.	보신 {신발은} 다 7트는 거.	=신.	김경생(제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명칭	종류	하의	하의	장팡이	장팡이	명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바지.	호상웃 속옷으로 부디, 속옷은 직삼 아랫도린 {장팡이}, 장팡이, 옛날엔 팬티 대신 장팡이러나서.		원근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암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원티 정보 사진	원티 정보 음성	표준국어 시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종류	하의	장방이	장방이	장방이	명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옷바지.	호상웃 속옷으로부터. 속옷은 직삼 아랫도리인 장방이. {장방이}. 옛날엔 팬티 대신 장방이라서.		호상웃(서귀포 남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종류	하의	중의	중의	중의	명	남자의 옷바지. 바지 안에 입는다.	팬티가 어서난 속옷 이면이 허리 돌아근에 얹어만 입고 그 다음에 바지 입고 그 다음에 또 {중의}. {중의엔} 흰 거 팔락한 중의. 바지 위의 일곱.		호상웃(서귀포 남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종류	하의	치마	치마	치마	명	여자의 아랫도리 걸옷.	아젠 바질 {치마로} 바. {치마} 두 개. 속치마 배어죽, 것치마.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종류	하의	행견	행견	행견	명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장기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 반듯한 장감으로 소매부리처럼 만들고 위쪽에 끈을 두 개 달아서 둘라매게 되어 있다.	{행견은} 일로 터그네 오기지만 아래 바지 그네 이디 단 해양으네 일로 단 내영 올도 끈 도는 거.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종류	치마저고리	치마저고리	치마저고리	치마저고리	명	「1. 치와와 차고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여자들이 입는 한복을 이르는 말.	등잔불에 맞아서 한 옷도 증극 그런 걸 하 는디. 치마는, 이제 저음은 이제 우선 옷을 오지 만드나 하면 우선에 이제 여자로부 터는 {치마저고리} 만들 거든.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종류	하리띠	하리띠	하리띠	하리띠	명	[1]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 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2] 예전에, 물 젓가슴을 가리기 위하여 여자의 가슴에 둘 러 띠던, 끈이 달린 옷의 하나.	바지에 {하리띠}.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맨칭	호상웃 맨칭	행위	겉다	기치다	기치다	기치다	동	실 줄 끈, 천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띠 로 떼어지게 하다.	막 잠영으로 물르민 뒤로뒤로 {기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잠으민 그게 다 그 후 복에 서 나오게 했우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부재로 명칭	호상웃 부재로 명칭	부속물	발벗짚	산디씩	산디씩	산디씩	명	발버의 짚.	엿벌은 옷이 있는 부분은 옷으로 부근을 붙 고 경 이넘이 {산디짚을} 똑똑들 쳐서 띠 는형에서 똑똑들 두드려, 복사하게, 두드려 서 그 붓을 정호지애나 복지애나 뽕뽕 새가 지고 뽕이 다 꼭꼭 뽕혀.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부재로 명칭	호상웃 부재로 명칭	부속물	명주슴	설맹지	설맹지	설맹지	명	명주를 원료로 한 솜, 시신의 코나 입, 귀, 구멍 등을 막고 턱이나 목을 바로 고일 때 사용한다. 버선이나 배개의 속을 채울 때도 사용한다.	우선 돌아가민 무록 시켜서 옷 입히고, 이 자, {설맹지로} 막아요. 고말을 꼭꼭 {설맹지로}.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고부지(1996)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부재로 명칭	호상웃 부재로 명칭	부속물	명주슴	설맹주	설맹주	설맹주	명	명주를 원료로 한 솜, 시신의 코나 입, 귀, 구멍 등을 막고 턱이나 목을 바로 고일 때 사용한다. 버선이나 배개의 속을 채울 때도 사용한다.	사람이 죽으민 코로 영 물이 출출 물르민 풀이 아니고 피라, 그러니까 {설맹주로} 꼭 꼭 고냥 막구 꼭 촘들카부덴 바치코.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부재로 명칭	호상웃 부재로 명칭	부속물	봉진	봉진	봉진	봉진	명	하복의 차고리 끈 위에 조르듯게 덧대어 꾸 미는 하얀 항걸 오리.	차고리는 {동전을} 들고 직삼은 {동전을} 안 들었어.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상태	호상웃 상태	상태	동글라지다	동글라지다	동글라지다	동글라지다	동	위와 아래가 사이가 벌어져서 갈라지다	끼도라고 치마 입고 허리띠, 이렇다면 치마 입고 차고리 입은디 엿날은 {동글라지}. 이디가, 치마를 두드레 안 입거든. 것 두어 안 입으니까 일로 일으니까 {동글라지 민} 허리띠를, 안일 락지민 두 꼭 해서 두 자 두 치를 낚, 영 꼭 기두와지게.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상태	호상웃 상태	상태	물색	물색	물색	물색	명	물건의 빛깔. 빨강 노랑 초록 따위의 색깔이 있는 것을 말한다.	{물색으로} 꾸든 놓고, 지도 {물색으로} 허 고.		김경성(제주시 이도1동)		0	0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암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음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칭 정보 사진	별칭 정보 음성	표준국어 시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상태	상태			포/불포/불	조물조물	부	주름이 잡힌 모양이나 상태.	치에는 저 포로 다 왜로 먹고 단 막고 어린애 주름을 {썩불썩불} 줄여서 이제 혼아마상 센지름 주름을 줄어요.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부속물	흰종이	백지	백지	명	다나무 감질로 만든 흰빛의 우리나라 종이.	어닐은 옷이 잇는 부분은 옷으로 부감을 붙고, 경 이너민 산디떡을 똑똑똑 쳐서. 단드령에서 똑똑똑 두드려 복스럽게. 두드려서 그놈을 창조지애나. {백지애나} 병행 써가지고 옆이 다 국국 뻗혀.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부속물	오색실	오색실	오색실	명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다섯 가지 색깔의 실.	{오색실} 행은내 동심줄을 뜻함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부속물	창호지	창호지	창호지	명	재래식 종이의 한 가지.	어닐은 옷이 잇는 부분은 옷으로 부감을 붙고, 경 이너민 산디떡을 똑똑똑 쳐서. 단드령에서 똑똑똑 두드려, 복스럽게. 두드려서 그놈을 {창호지애나} 백지애나 병행 써가지고 옆이 다 국국 뻗혀.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천이름	양단	양단	양단	명	은실이나 색실로 수를 놓고 감으로 두껍게 짠 고급 비단의 하나.	감은호상 검은행지나 {양단애나}.		원근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천이름	상배	배	배	명	상실로 짠 천.	대림포 다음에 {배로} 무고는 거. 스물석지짜리 한 벌 들어.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천이름	검은행지	검은행지	검은행지	명	검은 물을 들인 명주.	동심줄을 뜻함. 옷양은에 지금은 응리가 다 만들어 주니도 허는디 옷양은에 그 노양행지에 {라든행지애} 동심줄 이롭게 딱 그지 놔근에. 관 우에 놓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천이름	검은호상	검은호상	검은호상	명	시신의 머리에 싸우는 명주로 만든 모자. 안은 붉은 색 명주도, 열은 검정색 명주도 해서 만든다.	영도로 머리를 싸는 거. 오거 영도. 그 다음에 {검은호상을} 머리에 딱 싸우는 거.//영도로 오섯 가지를 고비정 열감을 만든 다음에 {검은호상을} 딱 싸우면, 검은호상은 안은 붉은 거 우는 검은 거니까 그게 그게 다 감추와 지거든.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패로	명칭	천이름	노랑행지	노랑행지	노랑행지	명	노란 물을 들인 명주.	동심줄을 뜻함. 옷양은에 지금은 응리가 다 만들어 주니도 허는디 옷양은에 그 {노양행지에} 검은행지에 동심줄 이롭게 딱 그지 놔근에. 관 우에 놓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걸 행위	감지다	감지다	감지다	감지다	동	반스걸의 가장자리나 속기를 실용이 풀리지 않게 응수물이 감긴 모양으로 감아 깨 매다.	옛날은 단 허는 거 감쳐.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걸 행위	반박음질	반박음질	행침	행침	명	반음질의 하나. 한 맘씩 잇더어 하는 것으로. 버늘을 앞 맘의 제자리에 꽂아 박는다	어닐은 그 뒤바놓질로 {덴침이엔} 허영 지금 그 미신에서 박듯이 든든히 허친 허민 {덴침} 바늘질을 허는 거고.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걸 행위	근치다	근치다	고비치다	고비치다	동	반으로 잡아 한대 함치다.	영도로 오섯 가지를 {고비침} 열감을 만든 다음에 검은호상을 딱 싸우면, 검은호상은 안은 붉은 거 우는 검은 거니까 그게 그게 다 감추와 지거든.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걸 행위	달다	달다	돌/다	돌다	동	돌건을 일정한 곳에 붙여다.	지교리는 동전을 {돌고} 적삼은 동전을 안 {돌 잇어}.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라양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타 정보 사전	별타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동근술	명	웃 따위를 지을 때 두 쪽을 맞대고 깎아낸 후 한 쪽을 하나로 감싸기 위하여 친을 보아서 세 단 강아서 막는 바느질.	적삼에는 깃바데 짓강바데 놓고 곱 전아가 지고 {동근술} 하고 //동근술이래 한 이 할개 배갓 들로 호아서 또 이렇게 또 두 번 보아서 또 이렇게 해서 배갓물도 막는 거. 세 번을 막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뒷바느질	명	반스질의 하나. 한 양쪽 잇대어 하는 것으로, 바늘을 앞 맘의 체자리에 꽂아 박는다.	호상웃은 {뒷바느질도} 안 하구. 틀어 고개 시도 안 하구. 볼 뒤서 줄국, 지름도 그러지.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매듭짓다		문따	명	노, 실, 끈 따위를 겹여매어 마디를 만들다.	동삼줄을 {우양}, {우양은애} 지금은 우리 가다. 만들양 호나로 허는다 {우양은애} 그 노란맹지에 검은맹지에 동삼줄 이렇게 딱 *지 되근애. 관 우애 놓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바느질		바느질	명	바늘에 실을 꿰어 옷 따위를 짓거나 꿰는 일.	{바느질이} 역볼 이거 배우젠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집안에서 카기면서.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박다		박다	명	실을 굵글어서 꿰매다.	동근술이래 한 건 이렇게 배갓 들로 호아서 또 이렇게 또 두 번 보서 또 이렇게 해서 배갓물로 {박는} 거. 세 번을 {박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손바느질		손바느질	명	기계를 쓰지 아니하고 직접 손으로 하는 바느질.	동삼줄 보그네, 손으로 다 보선 수속 새기 국, 그걸 {손바느질} 췌주.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수속 새기다		수속 새기다	구	바선 따위의 등에 꿰매서 술기를 만들다.	동삼줄 보그네, 손으로 다 보선 {수속 새기 국}, 그걸 손바느질 췌주.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징그다		시끄다	명	옷의 헐거기 쉬운 부분이 헐게 헤어지거나 디하도록 다른 친을 대고 등성등성 꿰매다.	잇 두 개가 이몸에 부패는 거거든. 이몸에 부패면 이게 딱 {시끄어져서} 오거 두 개가 시끄어져야 이 강양이 딱 {시끄어지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재단하다		재단하다	명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다.	호상웃은 배엄날, 증날, 쥐날,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그 본명일 자기 날 아니면 {재단하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깎다		좁다	명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등삼줄에 맞아서 한 옷도 {좁국} 그런 걸 하는디. 차마는, 이제 처음은 이전 우신 옷 을운지 만드느냐 하면 우선에 이제 여자로 부텀은 차매저고리 만들 거든.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호다		호다	명	형광을 겹쳐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	동근술이래 한 건 이렇게 배갓 들로 {호아 시} 또 이렇게 또 두 번 보서 또 이렇게 해서 배갓물도 막는 거. 세 번을 막는 거.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깎다		깨끄다	명	천 따위의 양은 물체를 구부리거나 굽히다.	중의 영 {깨경} 단을 허니까 단이단고 허 는디 바지는 안땀을 같이 어울려 부치는 때 문애 단이 없어.			김경성(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반스질 행위	반스질 행위	깎다		꼴/다	명	바닥에 퍼 놓다.	천금 지금 헤시난, 관 인네 소양이 {꼴/아} 병우의 활양이나 그 우의 영더경 단뜨까			백근식(서귀포시 남원2리)		0	0	

01 호상웃 조사어휘(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암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별칭 정보 사전	별칭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깨우다	깨우다	깨우다	동	몸에 걸려있도록 걸치거나 깨어준다.	목수는 손에 이렇게 {깨우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다리다	다리다	다리다	동	옷이나 전 따위의 주름이나 구멍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거나 인두로 문지르거나 다리다.	다리위로 다리는 거. 그자 못 다리민 마추심영 마추심영 이렇게 불 피양 디렸주.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돋다.	더그다	더그다	동	물건 따위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넣은 천 따위를 얹어서 씌우다.	천은 마지막, {더그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마르다	물/르다	물르다	동	옷감이나 재목 따위의 재료를 치수에 맞게 자르다.	바지도 그 {물르는} 쪽에 상복, 같은 거는 영, 만일. 이렇게 부트민 같은 복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복.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육다	무그다	무그다	동	한군데 모여 서로 붙어 있도록 새끼나 꼬리를 따위로 묶이다.	혼 사름 {무그는} 디 열두 매개라.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배우다	배우다	동	배게 하다.	{배게} 받 배우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붙이다	부찌다	부찌다	동	서로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중간으로 영 하는 거는 이제 린센복, 죽은 세복, 크게 물리근에 죽은세복을 린센복에 영영 {부찌야} 상복에 부평 바지를 맞게 전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붙이다	부치다	부치다	동	서로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중의는 영 개경 단을 허니개 단이라고 하는 디 바지는 안곳을 같이 어울러 {부치는} 따 =부찌다.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임다	임다	임다	동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른다.	팬티가 아시난 속곳 이민이 허리 돌아근에 영만애 {임곡} 그 다음애 바지 임곡 그다음엔 또 종의, 종이면 한 가 팔락한 종의, 바지 무의 임곡.		현근식(서귀포 남원2리)			0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임히다	임찌다	임찌다	동	임게 하다.	수오는 호상웃, 돌아가시민 {임지는} 옷 죽 상웃.		현근식(서귀포 남원2리)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졸리매다	졸리매다	졸리매다	동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다.	한쪽 끝은 길게 이렇게 길는 거는 두 자 지 길리 불고 흥쪽은 흥 지 허민 이렇게 흥 붙 강아다가 풀리매는 거.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주름잡/다	주름잡다	동	옷 쪽 끝은 것에 주름이 지게 하다.	치매는 저 포도 다 웨모 먹고 단 먹고 허리 에 주름을 주름잡을 중아서 이제 홀 아따 상 선지음 {주름을} 중아요.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의	기능	의례복	호상웃 행위	호상웃 행위	행위	행위	명주	명진	명진	명	명주실로 무너 없애 칸 피복.	영리 시진칼 때꼬지 나 게 맨주하고 인주변 단이엔 맨애 그거밖에 안 나보사.		김경생(재주시 이도1동)			0		

# 찾아보기

## ㄱ

꺾세 .....127, 153  
 가위 .....31  
 감주 .....32  
 감치다 .....156  
 강바대 .....134  
 강알바테 .....55, 133, 150  
 건대 .....88  
 검은맹지 .....48, 124, 151  
 검은호상 .....16, 49, 50, 51, 85, 131, 139  
 것저고리 .....84, 137  
 것치마 .....56  
 것치메 .....47, 79, 138  
 꼴미 .....126, 154  
 곱 .....80, 83, 90, 94, 95, 99, 146  
 공정 .....31, 32  
 과도 .....84, 104, 105, 124, 138  
 과질 .....67  
 관띠 .....144  
 관포 .....45, 46, 87, 143  
 광중 .....28  
 굴중이 .....61  
 기치다 .....155  
 긴곰 .....53, 94, 102  
 김경생 .....16, 17, 18, 23  
 깔다 .....159  
 꺼끄다 .....159  
 꾀동 .....81, 84, 93, 95, 96, 107, 145  
 끼우다 .....159

## ㄴ

나비적 .....65, 66  
 낭웨 .....73, 74  
 낭푼이 .....32  
 노랑맹지 .....48, 124, 151

노잣돈 .....27  
 녹두쉬 .....71  
 누룩 .....73

## ㄷ

다님 .....48, 61, 110, 134  
 다라니 .....26, 27, 87  
 다리다 .....158  
 다리미 .....128  
 다리웨 .....128, 129, 154  
 단 .....101, 111, 149  
 단속곳 .....61, 63, 82, 83, 113, 137  
 달구 .....28  
 들다 .....157  
 들마기 .....150, 157  
 담제 .....29  
 대렴 .....86  
 대렴포 .....16, 26, 39, 44, 86, 124, 141, 152  
 대상 .....29, 32  
 대소렴 .....26, 85, 162  
 대수렴 .....85, 162  
 더끄다 .....159  
 던드령 .....86  
 데님 .....59  
 뎡침 .....125, 156  
 도구리 .....66  
 도귀통 .....71  
 도복 .....114, 115, 135  
 도복띠 .....122  
 도포 .....54  
 도폭 .....30, 39, 42, 48, 49, 54, 75, 114, 116, 120, 121, 124  
 돌레떡 .....69, 70  
 돌화리 .....66  
 동관 .....27, 77  
 동근술 .....81, 82, 110, 111, 115, 133, 134, 135, 158

동심줄 .....42, 48, 49, 124, 131, 143, 152, 157  
 동전 .....53, 59, 81, 119, 137, 148  
 동글라지다 .....161  
 두건 .....31, 37  
 두루막 .....33, 114, 115  
 두부적 .....65, 67  
 뗏바농질 .....51, 125, 156  
 등실밥 .....116

□

막날 .....51  
 마농적 .....66, 67  
 막름질 .....124  
 막작단추 .....60, 150, 157  
 만두떡 .....69  
 만스 .....27, 77  
 물르다 .....155  
 못다 .....157  
 머귀낭 .....36, 88  
 머리창 .....89  
 메께 .....86, 161  
 멩진 .....27, 28, 45, 87, 144  
 멩주 .....57  
 멩지 .....44, 57, 84, 103, 124, 130, 131, 132, 151  
 멩지줄 .....112  
 모멸떡 .....69  
 모멸틀레 .....68  
 모세기머리 .....27, 28  
 모시로 호상옷 행 입지민 자손들 머리 헤영헤  
     분다. ....163  
 목고대 .....54, 145  
 몽탕 .....75  
 무께 .....26, 86, 87  
 무끄다 .....160  
 목적 .....64, 65, 67  
 물떡 .....69, 70  
 물만두 .....70  
 물색 .....49, 81, 84, 95, 96, 106  
 밋 .....97, 98

ㅅ

바농 실 .....38

바농 .....31, 126, 153  
 바농귀 .....126  
 바농질 .....31, 75, 79, 104, 125, 126, 155  
 바농질와치 .....153  
 바느질 .....78  
 바데 .....55, 101, 147  
 바지 .....47, 48, 49, 61, 63, 83, 114, 133  
 박다 .....156  
 밧밧 .....98, 99  
 밧압집 .....53, 59, 90, 92, 146  
 방장대 .....36, 37, 88  
 뱌날 .....132  
 별막작 .....83, 103, 150, 157  
 베 .....152  
 베개 .....49, 142  
 베염날 .....51, 162  
 베우다 .....160  
 벅지 .....26, 27, 71, 86, 152  
 벤 .....64  
 보공 .....26, 86, 144, 152  
 보선 .....48, 107, 124, 142  
 북 .....79, 117, 148  
 북감티 .....139  
 북수건 .....38  
 북옷 .....88  
 본멩일광 줌날은 호상옷 안 만든다. ....164  
 본멩일 .....51, 132, 162  
 붕분 .....28, 29  
 부찌다 .....160  
 부치다 .....160  
 북시미 .....36, 37, 88  
 붉은멩지 .....48  
 밧떡 .....73

ㅈ

스미 .....53, 54, 91, 95, 103, 114, 120, 145  
 스십구제 .....88  
 사일 .....51  
 산디적 .....26, 86, 87, 144, 152  
 삼년상 .....88  
 삼우제 .....87  
 삼 .....28  
 상물 .....25, 26, 86

상복 .....25, 30, 31, 34, 35, 58, 89, 107, 108, 149  
 상식 .....29, 88  
 상장대 .....37  
 상제웃 .....33  
 설귀 .....71, 72  
 설귀떡 .....31  
 설맹지 .....49, 85, 142  
 설명주 .....43, 50  
 섭 .....53, 146  
 성복 .....64  
 성복제 .....25  
 세미떡 .....69, 70  
 섹일 .....29  
 셋복 .....117, 118, 119, 120  
 소날 .....51  
 소단 .....34, 89, 114  
 소미 .....116  
 소상 .....29, 32  
 소중의 .....46, 49, 60, 83, 84, 86, 99, 101, 103, 135  
 소중의바데 .....83, 150  
 속곳 .....63, 113  
 속저고리 .....84, 124, 136  
 속적삼 .....55, 114, 124, 136  
 속중의 .....113, 114, 133  
 속치메 .....47, 63, 79, 80, 138  
 손바농질 .....53, 156  
 손수건 .....26, 87, 141  
 술벤 .....31, 64  
 술변 .....68  
 술변본 .....68  
 수늑 새기다 .....158  
 시끄다 .....157  
 시리떡 .....72  
 신발 .....107  
 실 .....31  
 실밥 .....93, 110, 115  
 썰 .....89, 126, 153

○

안밋 .....98  
 안압섭 .....59, 90, 92, 146  
 안앞섭 .....53  
 압섭 .....53, 90, 146

약궤 .....31, 64, 67  
 양단 .....151  
 어불복 .....116, 117, 119, 120, 148  
 엄도 .....16, 43, 49, 50, 85, 103, 104, 124, 139  
 염 .....76, 77, 161  
 영장뻗 .....68  
 오색실 .....48, 124, 152  
 오양수 .....17, 18  
 왁수 .....48, 140  
 왕대 .....88  
 우머니 .....33, 89  
 우지시 .....31, 64, 68, 70  
 원미 .....87  
 윤디 .....127, 128, 129, 154  
 윤디질 .....130  
 윤디관 .....129, 154  
 은절미 .....68  
 이몸 .....83, 96, 98, 144  
 일포제 .....25, 27  
 입지다 .....160  
 잇몸 .....53, 54, 59, 100, 101, 103, 104, 115, 116,  
 117, 144

ㄱ

즈글즈글 .....62  
 즈른곰 .....102  
 장웃 .....17, 48, 49, 54, 75, 84, 85, 105, 106, 139  
 저고리 .....47, 48, 49, 80, 84  
 저구리 .....47, 82, 84, 90, 114, 134, 136  
 저승신 .....142  
 저승웃 .....132  
 적삼 47, 48, 49, 54, 81, 82, 84, 111, 114, 134, 136  
 적쇄 .....66  
 전기 .....73  
 전기떡 .....73  
 절벤 .....31  
 절변 .....68  
 절변본 .....68  
 점벙이 .....133  
 짓강바데 .....55, 81, 111, 115, 120, 135, 136, 147  
 짓곰 .....53, 59, 92, 147  
 제주어 표기법 .....17  
 조발낭 .....141

죽은셋북 58, 59, 109, 116, 117, 118, 119, 120, 150  
 줄라매다 .....160  
 줌 친 옷 입으면 손지 대에 줌 친다. ....163  
 줌 친 옷 입으면 손지 대에 줌 친다 .....16  
 줌날 .....51, 162  
 줌인 호상옷은 망인이 살아 있을 때 쓴다. 죽영 술  
 민 짐 댜다. ....164  
 주름줍 .....158  
 주머니 .....49  
 주맹기 .....16, 141  
 줍다 .....157  
 중께 .....31, 64, 67  
 중단 .....34  
 중의 .....47, 48, 49, 61, 63, 83, 84, 110, 114, 133  
 쥐날 .....51, 132, 163  
 지금 .....16, 45, 140  
 지도옷 .....35  
 지러기 .....149  
 지름떡 .....31, 64, 68  
 지전 .....27, 87, 143, 152  
 진곰 .....95, 103, 147  
 진동 .....53, 59, 91, 145  
 진셋북 .....150  
 질소미 .....96  
 질쌘 .....30, 31, 39, 57  
 질스미 .....53, 54, 91, 92, 93, 95, 107, 145  
 짓 .....53, 59, 84, 90, 92, 116, 118, 145, 147  
 짓바데 .....55, 81, 111, 112, 115, 116, 117, 119,  
 120, 134, 135, 136, 147, 148  
 징 .....71  
 짝른곰 .....53, 94, 95, 147  
 짝불짝불 .....161  
 짝 .....36

大

창옷 .....42, 48, 55, 114, 115, 120, 121, 135  
 창옷지 .....26  
 창호지 .....86, 152  
 천금 .....16, 45, 140  
 체 .....73  
 체롱 .....31  
 초소렴 .....25, 26, 162  
 초수렴 .....85, 86, 162

초우제 .....87  
 초제 .....29  
 치마 .....37, 38, 46, 56, 63, 79, 82, 89  
 치마폭 .....94, 148  
 치매 .....38, 46, 47, 48, 49, 80, 83, 84, 89, 115, 137  
 친떡 .....64, 71

ㄱ

큰곰 .....59, 146  
 큰셋북 .....58, 59, 108, 109, 116, 117

ㅅ

택일 .....25  
 통설대 .....75

ㅈ

패마농적 .....66  
 포재기 .....25  
 풋쉬 .....69, 70, 72  
 필역 .....70

ㅎ

하관제 .....87  
 한 .....136  
 한삼 .....54  
 한습 .....84, 105, 107  
 혼삼 .....54, 137  
 혼섬 .....85  
 혼습 .....70, 71  
 허리 .....47, 56, 58, 80, 93, 95, 99, 149  
 허리곰 .....56, 149  
 허리띠 .....84, 104, 105, 138  
 행경 .....49, 123, 124, 134  
 호다 .....157  
 호상 .....25, 39, 49, 76, 83, 86, 124  
 호상옷 만들 땐 뒷마농질 안 헌다. ....164  
 호상옷 망인 죽은 후에는 슬지 아녜다. ....163  
 호상옷 줌 쏘으민 즈손에 고망난다고 안 입진다. 163  
 호상옷 췁이 쫘아분 거 입으민 도둑질허는 자식  
 난다. ....164



호상옷 .....16, 17, 132, 162  
호상옷은 틀어 고치지 안 한다. ....164  
화리 .....129, 155  
흰머리창 .....89



■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김순자(제주대학교)

##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1월 27일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